

청동기시대 환호, 환구 유적 최신 조사 성과 발표회  
- 중부, 호서지역을 중심으로 -

- ▣ 일시: 2025.02.07.(금) 13:30~17:40
- ▣ 장소: 한국고고환경연구소 강당



한국청동기학회

# 청동기시대 환호, 환구 유적 최신 조사 성과 발표회 - 중부, 호서지역을 중심으로-

■ 일시: 2025.02.07.(금) 13:30~17:40

■ 장소: 한국고고환경연구소 강당

◆ 제1발표 및 질의 13:30 ~ 14:00

강원영서지역 청동기시대 환호(環壕)· 환구(環溝) 유적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정원철)

◆ 제2발표 및 질의 14:00 ~ 14:25

인천 검단 원당동, 당하동 환구 (중부고고학연구소 구준모)

◆ 휴식 14:25 ~ 14:40

◆ 제3발표 및 질의 14:40 ~ 15:00

평택 사리유적(라온문화유산연구원 곽수복)

◆ 제4발표 및 질의 15:00 ~ 15:20

평택 세교동 은실 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도원문화재연구원 정경훈)

◆ 제5발표 및 질의 15:20 ~ 15:40

천안 성성동 37-3번지 유적(중원문화유산연구원 소준섭)

◆ 제6발표 및 질의 15:40 ~ 16:00

청양 양사리 산2-11번지 일원 유적(한양문화유산연구원 황성수)

◆ 자율토론 16:20 ~ 17:40

강원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환호(環壕)·환구(環溝) 유적  
(중도동·울문리·천전리·아우라지유적)

정원철(강원역사문화연구원)

I. 머리말

강원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환호(環壕)는 춘천 중도동유적이 발굴조사 되면서 주목을 받게 된 후로 울문리와 천전리유적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존재가 확인되고 있으며, 정선 아우라지유적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유구가 확인되어 환호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영서지역 환호는 현재 모두 충적대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기의 천전리 유형의 취락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세부적인 중복관계를 통해 천전리유적 주구묘 조성 시점보다는 늦고, 점토구역과 작업공을 지표로 하는 천전리형 주거지와는 선후관계가 중첩되고 있어 동일 시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도동유적 발굴 보고서 발간과 함께 환호와 관련된 사안이 일부 논의되었을 뿐 더 이상 구체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발표를 통해 춘천 중도동·울문리·천전리, 원주 문막리, 정선 아우라지 일원에서 확인되고 있는 청동기시대 환호 및 환구의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환호(環濠)와 환호(環壕)

“청동기시대 환호(環濠)는 마을을 방어하거나 구획하기 위해서 흙을 파내 도랑을 만든 시설이다. 환호의 형태는 타원형과 방형이 많으며 거주 공간의 외곽에 도랑을 파서 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환호가 자리 잡은 곳의 지형은 구릉의 정상부나 사면, 그리고 강변 충적지의 평지에 해당한다. 환호와 비슷한 형태의 환구(環溝)는 주거 공간을 에워싸지 않는 (타)원형 또는 방형의 도랑으로 구획된 시설로서 광장이나 의례 공간의 성격을 갖는다. 환호는 목책(木柵)이나 토루(土壘)와 함께 방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을 집단의 내부 결속과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만든 시설로 이해하는 견해가 많다.”(한국고고학전문사전)<sup>1)</sup>

“환구(環溝)는 원형이나 타원형, 또는 방형으로 도랑을 파서 만든 유구를 말한다. 환구의 규모는 지름 30m부터 100m 이상인 것도 있으며, 도랑은 대체로 한 줄인 것이 많지만 2~3줄인 것도 있다. 한 바퀴 전체를 파낸 것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한, 두 곳은 끊어져 있는데, 이 단절된 부분은 출입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환구는 방어 시설 또는 구획 시설로서 마을을 감싸는 환호와 다르게 주거 공간을 에워싸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그 내부 공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의례를 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구가 자리잡은 곳은 주로 구릉의 정상부가 대부분이지만, 구리 토평동 유적과 같이 강변 충적지에서도 발견된다.”(한국고고학전문사전)<sup>2)</sup>

환호와 환구에 대한 외형적 설명으로 한국고고학전문사전을 인용하였다. 먼저 환호의 경우 한자 사전의 ‘濠’·‘壕’ 두 글자 모두 해자(垓字)·도랑의 의미로 사용되나 ‘濠’는 성을 빙 둘러싼 못(水)의 의미가 강하고, ‘壕’는 성 둘레에 판 도랑의 의미가 강하다. 즉, 동일한 뜻의 2개 글자가 있다는 것은 용도는 동일하나 형태적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한자에서 두 글자의 사용시기까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 의미를 달리한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環濠’와 ‘環壕’에 대한 차이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강원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환호 중 물이 채워졌거나, 일부라도 물의 영향을 받았거나, 심지어 홍수·장마·폭우로 인한 매몰 흔적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 청동기시대 환호유적으로 호남지역 고흥 장덕리 장동유적, 호서지역 청주 대울리유적, 예산 창소리유적, 서천 월기리유적, 영남지역 대평리문화권의 옥산리유적, 대평리유적, 초전동유적, 중부지역 12개 유적이 언급되고 있지만 역시 환호 내부에 물이 채워졌거나 흐른 양상의 토층은 확인되지 않는다.<sup>3)</sup>

1) 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청동기시대편」, 『한국고고학전문사전』, pp.661~662.

2) 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청동기시대편」, 『한국고고학전문사전』, p.660.

3) 이종철, 2024, 「호남지역 환호·환구의 양상과 특징」, 『교환과 경제의 고고학』 제4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이형원, 2024, 「호서지역 환호·환구의 양상과 특징」, 『교환과 경제의 고고학』 제4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배덕환, 2024, 「영남지역 환호·환구의 양상과 특징」, 『교환과 경제의 고고학』 제4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강원 영서지역에서 춘천 중도동유적, 춘천 울문리유적, 춘천 천전리유적(2개소)의 환호가 현재까지는 평면적·토층적으로 명확하다 여겨지는데, 4개소 모두 소양강과 북한강의 기본 수위보다 높은 해발의 충적대지에 위치하고 있어 담수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며, 토질 역시 사질성분이 강한 하천변 충적토의 양상이다. 어찌 되었든 물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였다면 반드시 추가적인 바닥시설이 필요함에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획단계에서부터 물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도동유적에는 동편 근화동 방면으로 철기(원삼국)시대 환호가 존재하는데, 전체길이 약 844m 가량이 조사되었고, 2줄 형태로 간격은 2.3~5.7m 정도이다. 동쪽 환호의 경우 상면 너비 2.6~3.8m, 잔존깊이 0.68~1.85m 이고, 서쪽 환호는 상면 너비 0.7~1.9m, 잔존깊이 0.56~1.2m 정도로 동쪽 환호의 규모가 월등히 크다. 이처럼 대형의 환호가 조성되었음에도 토층상 내부에 물을 채웠거나 흐른 양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중도동유적 철기(원삼국)시대 환호의 경우는 특히나 전체 거주 공간 외곽에 조성되어 청동기시대 환호보다는 취락 전체의 방어용 의미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환호를 조성할 당시 물을 채우거나 할 계획이 없었다면 이를 지칭하는 단어로는 '環壕'가 더욱 타당하다 생각하며, 추후 시기를 달리하여 물을 이용한 환호가 확인될 경우는 '環濠'의 단어를 사용함이 옳다.<sup>4)</sup>

---

한국고고학회.

박경신, 2024, 「중부지역 환호·환구의 양상과 특징」, 『교환과 경제의 고고학』 제4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4) 환구의 '溝'는 외자로 붓도랑, 배수구 등 작은 의미이고, 비교의 글자가 없다.

### Ⅲ. 강원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환호(環壕)와 환구(環溝)

#### 1. 환호(環壕)

##### 1) 춘천 중도동유적

춘천 중도동유적의 환호는 길이 121.6m, 너비 87.2m이며, 둘레 403.7m, 내부 면적 9,516㎡(2,878평)이다. 환호의 잔존하는 상면 너비는 대체로 2m 내외(1.7~2.5m)이며, 잔존 깊이는 출입부와 서쪽 구간이 0.5m로 얇은 편이나 남쪽 구간은 0.75~0.95m로 깊다. 단면 형태는 깊이가 얇은 구간이 'U'자 모양이고, 깊이가 깊은 구간에는 하부 'U'자 모양이 상부로 가면서 'Y'자 모양으로 벌어진다. 환호의 서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3곳에는 도랑이 단절되어 있는데, '육교부(陸橋部)'라 불리기도 하며 출입구로 이용된 곳으로 추정된다. 출입구의 폭은 서쪽 1.3m, 남쪽 1m이며, 동쪽은 일부 파괴되었으나 나머지 출입구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호 내·외부에 다수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수혈유구 등이 밀집된 양상으로 일정 형태의 공간(空間) 혹은 광장(廣場)은 따로 분류해내지 못하고 있다.<sup>5)</sup> 환호는 평면 방향의 형태로 서·남쪽 구간은 직선 형태를 보이거나 북쪽 구간은 돌출된 곳이 있으며, 동쪽 구간은 정연하지 않았다. 환호의 폐기과정 역시 바닥면-벽면-중앙부 순으로 자연 퇴적되었고, 일정 기간 방기되면서 재퇴적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역시 축조 및 폐기과정에서 크게 물과 관련된 양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돌출된 부분 내측에는 환호가 폐기된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주거지만 확인되었고, 의미를 부여할 만한 시설물이나 굴립주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토층조사를 통해서도 사질토 중심의 퇴적양상에 인위적인 다짐토, 토루와 관련된 붕괴토 등으로 볼 수 있는 퇴적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구제발굴의 한계상 유적의 상면 퇴적층을 전면제토 하고 있으므로 토루와 같은 지상구조물은 물론 깊이가 얇은 구조물은 확인할 수 없음과 최근까지도 중도 현지에서 유구 상면까지 경작에 의한 훼손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지상 구조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환호와 주거지간 중복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환호보다 선축된 주거지는 돌대문토기가 출토되고, 석상위석식 노지가 확인되는 미사리형 주거지(B1-58호)를 비롯하여 (장)방형 형태에 공렬·무문토기가 출토되고, 점토구역, 수혈식 노지, 작업공, 중심기둥, 저장공이 확인되는 천전리형 주거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후축된 주거지는 주로 점토구역에 작업공이 확인되는 천전리형 주거지와 점토구역과 작업공이 시설되지 않는 늦은 시기의 주거지가 함께 확인되었다. 천전리형 주거지 중 세장방형의 형태로 공간분할에 따른 복수의 노지가 시설되는 주거지도 함께 후축되고 있으나 모두 점토구역에 작업공이 시설되고 있어 시기적인 차이는 없다.

따라서 중도동유적의 환호는 천전리형 주거지가 주를 이루는 시점에 조성되었고, 점토

5) 보고서 고찰에서는 환호 내부 주거지 배치상 공백부분을 '광장'의 의미로 추정하였으나 주거지들의 동시기성을 규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 배치상 공백부분을 공동체의 광장으로 추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E1-168호와 같이 후축 중복된 대형 세장방형 주거지들만 제외하여도 전혀 다른 형태의 환호 내 공백지가 나타나게 된다.

구역과 작업공 및 복수의 노지가 시설되는 대형 세장방향 주거지 조성전에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춘천 중도동유적 청동기시대 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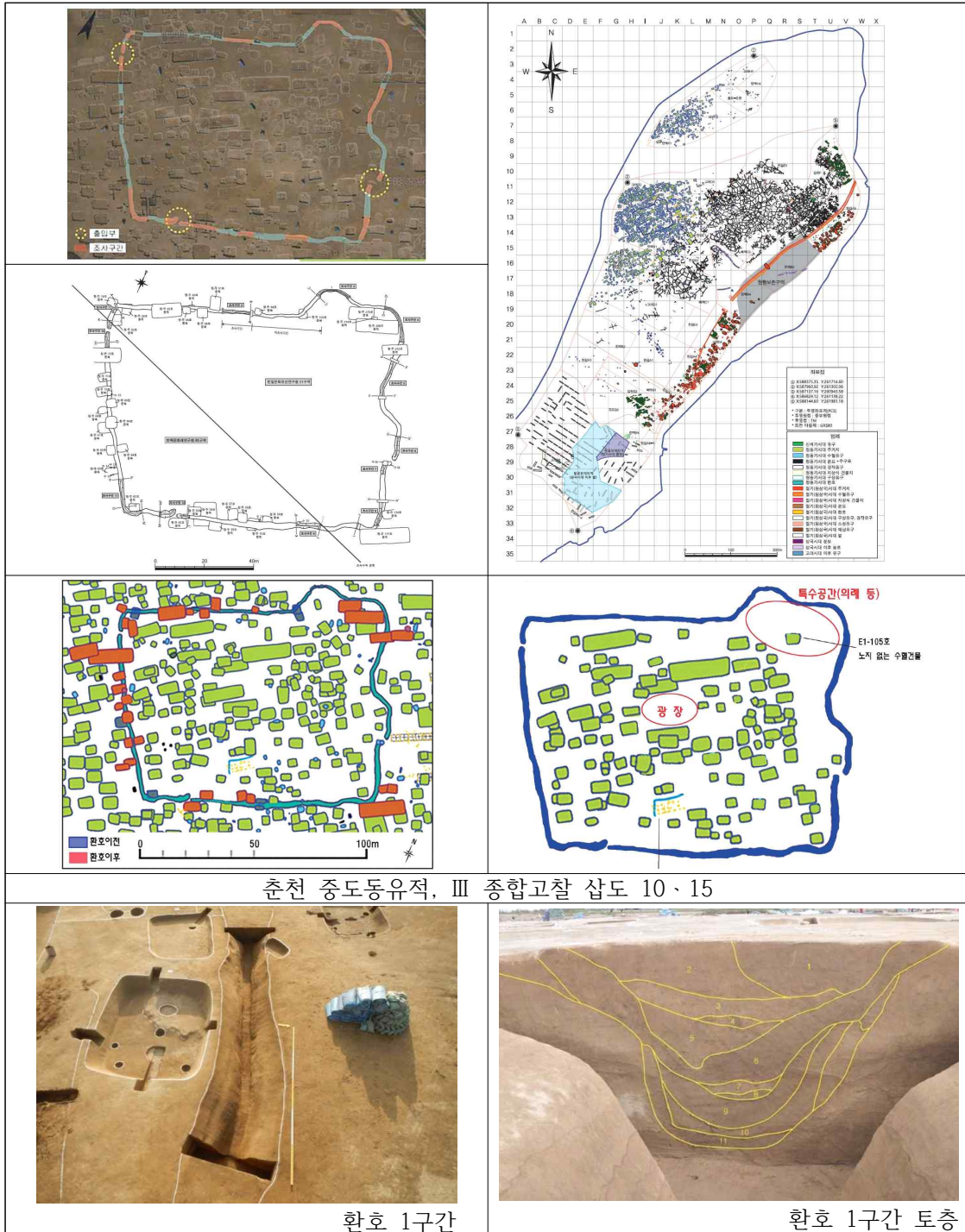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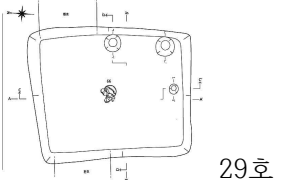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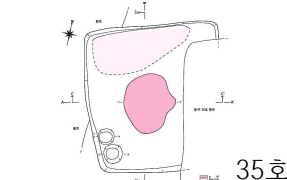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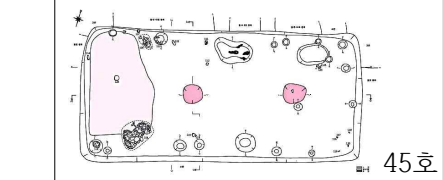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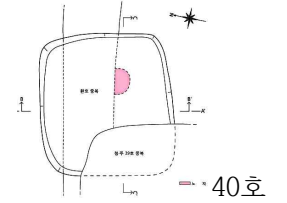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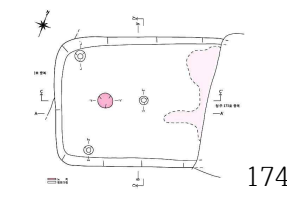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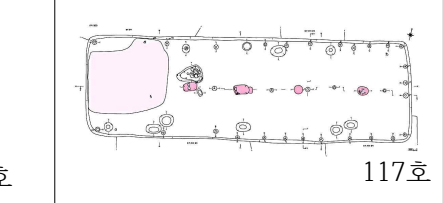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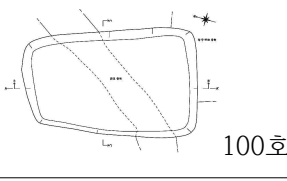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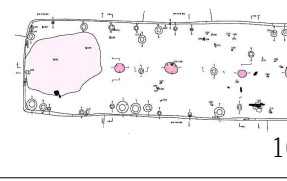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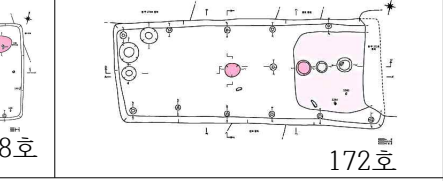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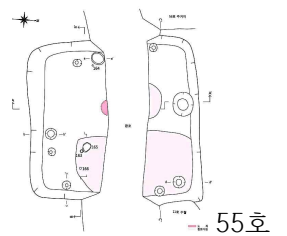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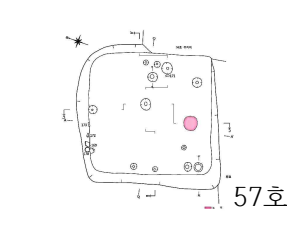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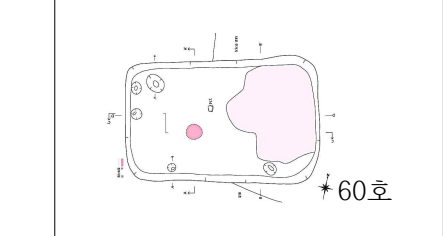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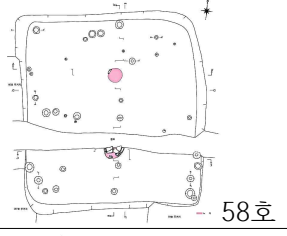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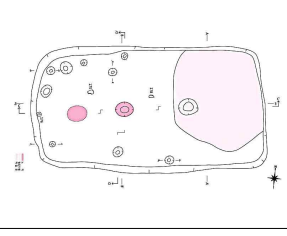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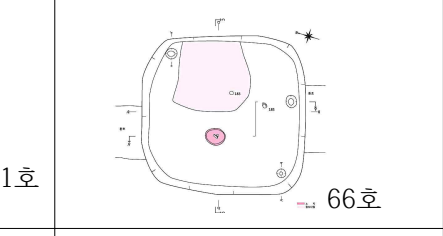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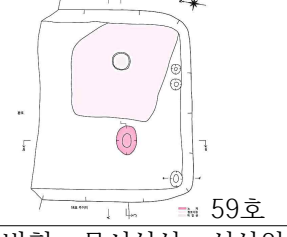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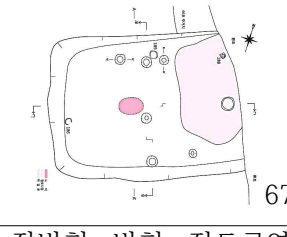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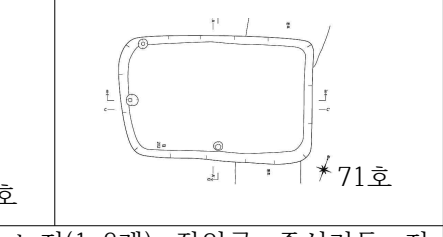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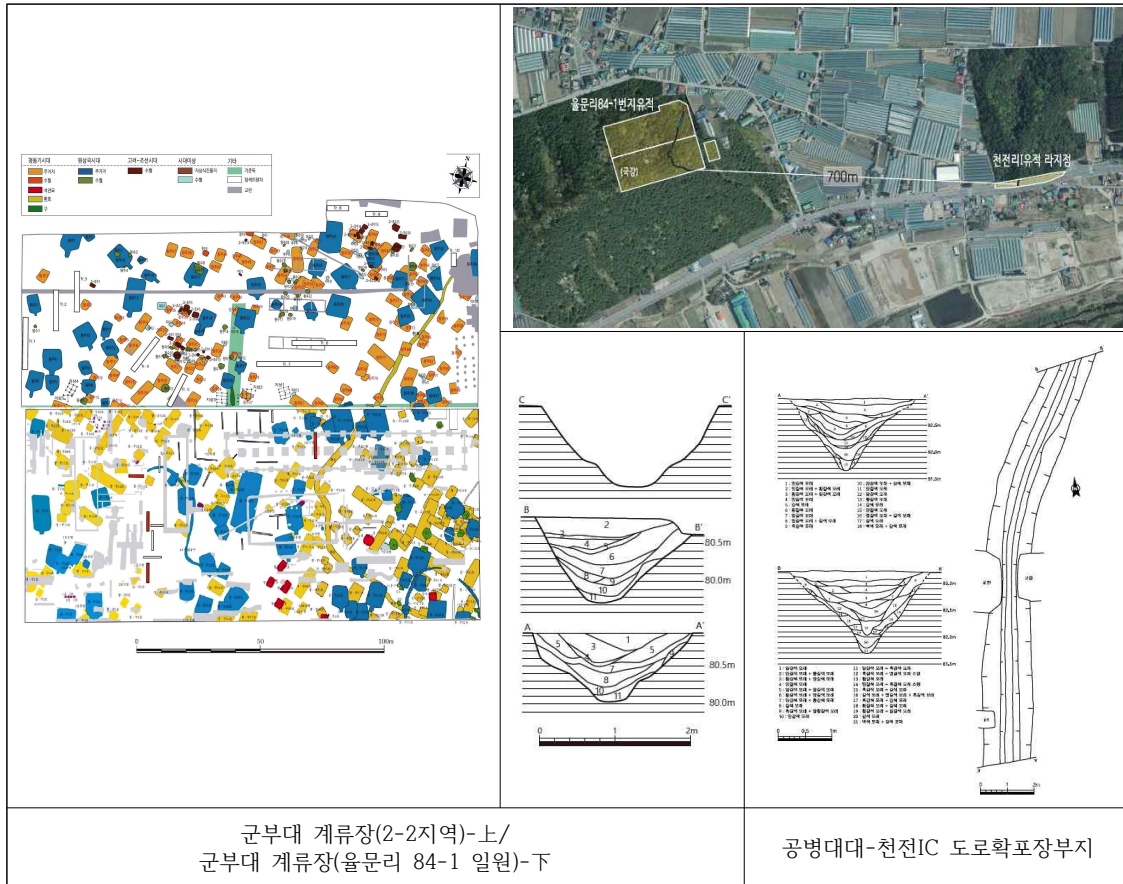
표 2 춘천 중도동유적 환호 중복 주거지 일람(축척부동)

		중복관계(주거지)	
		선축	후축
E1	29 · 40 · 100호	16 · 35 · 39 · 43 · 44 · 45 · 46 · 51 · 91 · 174 · 177 · 268 · 272 · 275호	
			
			
			
	방형, 무시설, 노지(1)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 점토구역, 노지(1~4개), 작업공, 중심기둥, 저장공	
B1	54 · 55 · 58 · 59 · 62 · 67호	56 · 57 · 60 · 61 · 63 · 64 · 65 · 66 · 68 · 69 · 70 · 71 · 72호	
			
			
			
	방형, 무시설, 석상위 석식, 점토구역, 작업공	장방형, 방형, 점토구역, 노지(1~2개), 작업공, 중심기둥, 저장공	

2) 춘천 울문리유적

울문리 환호는 군부대 항공기 계류장 재포장 및 정비고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호남문화재연구소, 2021)과 군부대 계류장포장 및 정비고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국강고고학연구소, 2023)에 북-남으로 이어지면서 확인되었다. 노출된 환호의 전체 규모는 북동-남서 115m, 서북-동남 70m, 상면 너비 1.9~2.4m, 깊이 0.9~1.5m 정도이다. 현재 전체 중 서남 모서리 부분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며, 동쪽으로 700m 정도 이격된 공병대대~천전IC간 도로확포장부지내 유적(예맥문화재연구원, 2018) '라'지점 환호와 연관성을 찾기도 한다.6) '라'지점 환호가 15m 정도만 짧게 확인되었고, 동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동쪽 경계가 되고 있다.

표 3 춘천 울문리유적 청동기시대 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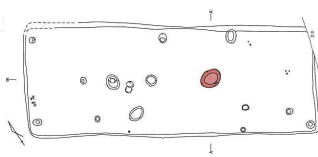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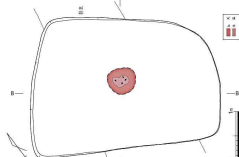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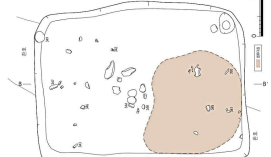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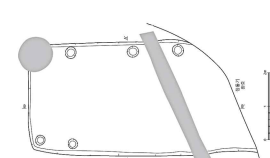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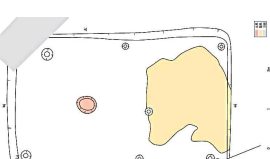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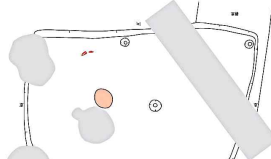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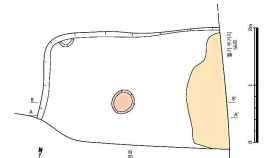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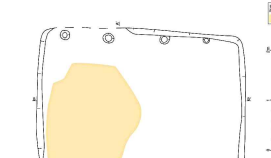


환호는 계류장 북편(호남)의 경우 역삼동식 세장방향 주거지에 구순각목토기와 2단경 석축이 출토되는 77호에 후축, 85·94·96호에 선축 되었는데, 94호 주거지는 점토구역 이 조성된 천전리형 주거지이며, 내부 점토시설이 온전한 것으로 미루어 환호에 후축 되었음이 명확하다. 계류장 남편(국강)의 경우 청동기시대 63호에 후축·67호(A2:장방향)에 선축·68호(A2:장방향)에 선축·116호(A2)에 선축·122호(A2)호에 선축 되었다. 68호 주거지는 점토구역과 작업공이 조성된 천전리형(A2:장방향·소형) 주거지로 내부 점토시설 이 온전한 것으로 미루어 환호가 선축 되었음이 명확하다.

6) 호남문화재연구소, 2021, 『춘천 울문리 84-1번지 유적Ⅱ』.

결국 율문리 환호는 청동기시대 전기와 중기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도동유적 환호의 조성 시점과 비슷하다 하겠다. 중도동유적의 경우 청동기시대 전기의 양상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인데, 율문리 환호를 통해 보다 좁혀진 시간성이 도출되었다고 여겨진다.

표 4 춘천 율문리유적 환호 중복 주거지 일람(축척부동)

	중복관계(주거지)	
	선축	후축
호남	77호 	85·94·96호  
	세장방형, 수혈식(1), 저장공, 주혈, 적색마연토기 호, 장경호, 반원형석도, 구순각목, 2단경	장방형, 수혈식(1), 점토구역, 저장공, 석착, 연석붕, 지석
국강	63호 	67·68·116·122    
	세장방형, 주혈, 무문토기편	장방형, 수혈식(1), 점토구역, 공렬, 무문

### 3) 춘천 천전리유적 환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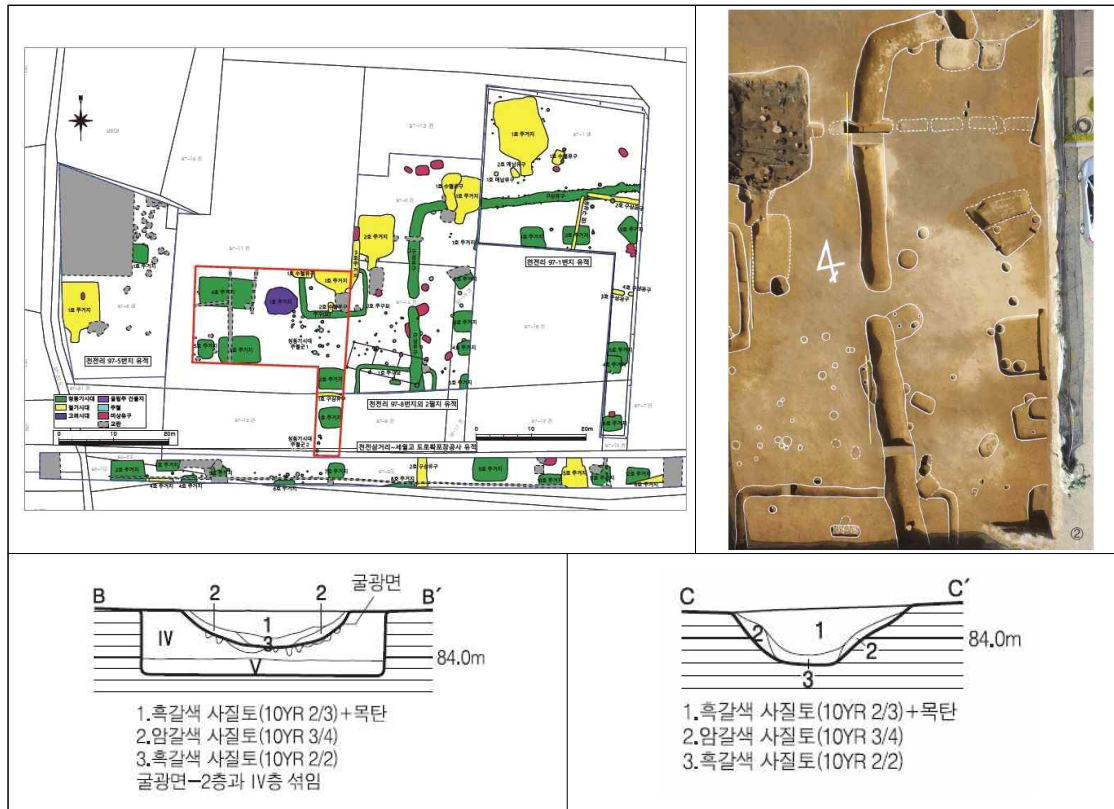
천전리 97-8번지 유적과 97-1번지에 서쪽으로 출입구가 존재하는 (장)방형 환호 1개소가 확인되었는데, 확인된 규모는 동-서 약 37.5m, 남-북 약 30.0m, 서편 출입구 너비 1.52m, 상단 너비 1.5~1.9m, 깊이 0.28~0.65m 정도이다. 양쪽 내부에는 원형 주공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주공은 대체로 0.7~1.15m의 간격으로 확인되었다.

환호의 북서편 모서리가 노출된 상태인데, 청동기시대 주거지들은 환호로부터 2.5m 정도 이격된 곳에서부터 조성되었다. 환호 내측 주거지들은 천전리형(A3:방형·소형) 주거지들로 점토구역이 시설된 것과 시설되지 않은 것 모두 혼재하였다.

환호에 선축된 주구묘 매장주체부에서는 만입석축과 2단경석축이 출토되었고, 환호 내측 주거지들에서 공렬토기편, 호형무문토기, 1단경, 일체형석축 등이 확인되고 있어 유물의 상대편년상으로도 환호와 주거지가 주구묘에 후행되었다.

환호를 고려한 배치양상으로 AMS 분석 결과 주거지는 BC 760~400년, 환호는 BC 840~550년이 도출되어 환호를 먼저 시설하고, 후에 주거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나 주거지를 조성할 당시 환호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하기에 동일 시점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며, 주거지의 조성방식이나 주구석관묘에 후행하고 있어 환호는 청동기시대 중기 후반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춘천 천전리유적 환호 1



7) 한국문화재단, 2019,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표 6 춘천 천전리유적 환호 1 관련 유구 일람(축척부동)

	중복관계	
	선축(주구묘)	내축(주거지)
97-8 번지	97-8번지 1호 주구묘	1·2·3·4·5호 주거지
		<p>3호</p> <p>5호</p>
		점토구역, 방추차, 지석, 1단, 일체형석축, 무문토기 발
97-1 번지		1·2·3·4·5호·6호 주거지
		<p>1호</p> <p>2호</p>
		<p>5호</p> <p>6호</p>
		점토구역, 수혈식노지(1), 작업공, 공렬토기편, 호형무문토기, 일체형석축, 반월형석도

#### 4) 춘천 천전리유적 환호 2

춘천 천전리유적 환호 2는 최근 천전삼거리-세월교 도로확포장부지 내 유적(국강고고학연구소, 2024)에서 확인되었으며, 층위와 구조 및 형태로 보아 청동기시대 환호로 판단하였다. 환호는 북서편 진행방향을 가로질러 신북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건설공사 부지내 유적(예맥문화재연구원, 2010)과 천전삼거리-세월교 도로확포장부지내 유적 북쪽 구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진행방향과 겹치게 먼저 신북 하수종말처리장 A-37Tr. 미상 2호가 위치하고 있다. 미상 2호의 경우 청주34호에 후행 중복되고 있었으며, 유구 수혈선이 지표로부터 약 3m 이상을 하강하였으나 바닥면을 보지 못하였다. 내부토에서 회청색 경질무문토기편과 단각고배편이 수습되어 삼국시대로 추정하였으나 유구의 깊이를 감안하면 환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북 하수종말처리장 유적 A구역 서쪽 지표면 해발이 85.0m이므로 미상 2호는 해발 82m 이상 깊이를 보이는데, 이는 조사된 환호의 토층 깊이가 해발 81.2m이므로 동일 유구 가능성이 크다.

천전삼거리-세월교유적의 북쪽 구간 서쪽 경계부근의 철기 1호 구상유구(조사지역 유구배치도) 역시 환호 진행방향과 겹치고 있는데, 보고서에 조사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천전리 환호 2의 남동 진행방향으로는 90-19번지 유적이 조사되었는데, 해당 위치에 교란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교란은 청동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천전리식 점토구역 주거지 6호와 8호를 후행하면서 지나가고 있어 중복관계를 가늠할 수 있으며, 교란의 범위와 방향이 환호의 진행방향과 일치하고 있어 역시 환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북서편 방향의 117-1번지<sup>8)</sup>에서도 일부 확인되었는데, 당시에는 단순 '도랑'으로 해석하여 Tr. 조사만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으로 보았을 때 천전리 환호 2의 일부는 상단 너비 5.2m, 깊이 2.9m 정도이며, 북서-남동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약 180m 정도의 길이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는 신북 하수종말처리장 A-37Tr. 34호, 90-19번지 6·8호에 후행 중복되고 있는데, A-37Tr. 34호 주거지 출토 호형토기 3점은 천전리형 주거지에서 다수 출토된 기형이며,<sup>9)</sup> 90-19번지 6호와 8호는 모두 천전리형(A3:방형·소형) 이므로 청동기시대 중기나 중기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중도유적 환호의 사례와 같이 중기 주거지들과의 중복관계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혹은 철기시대 환호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 사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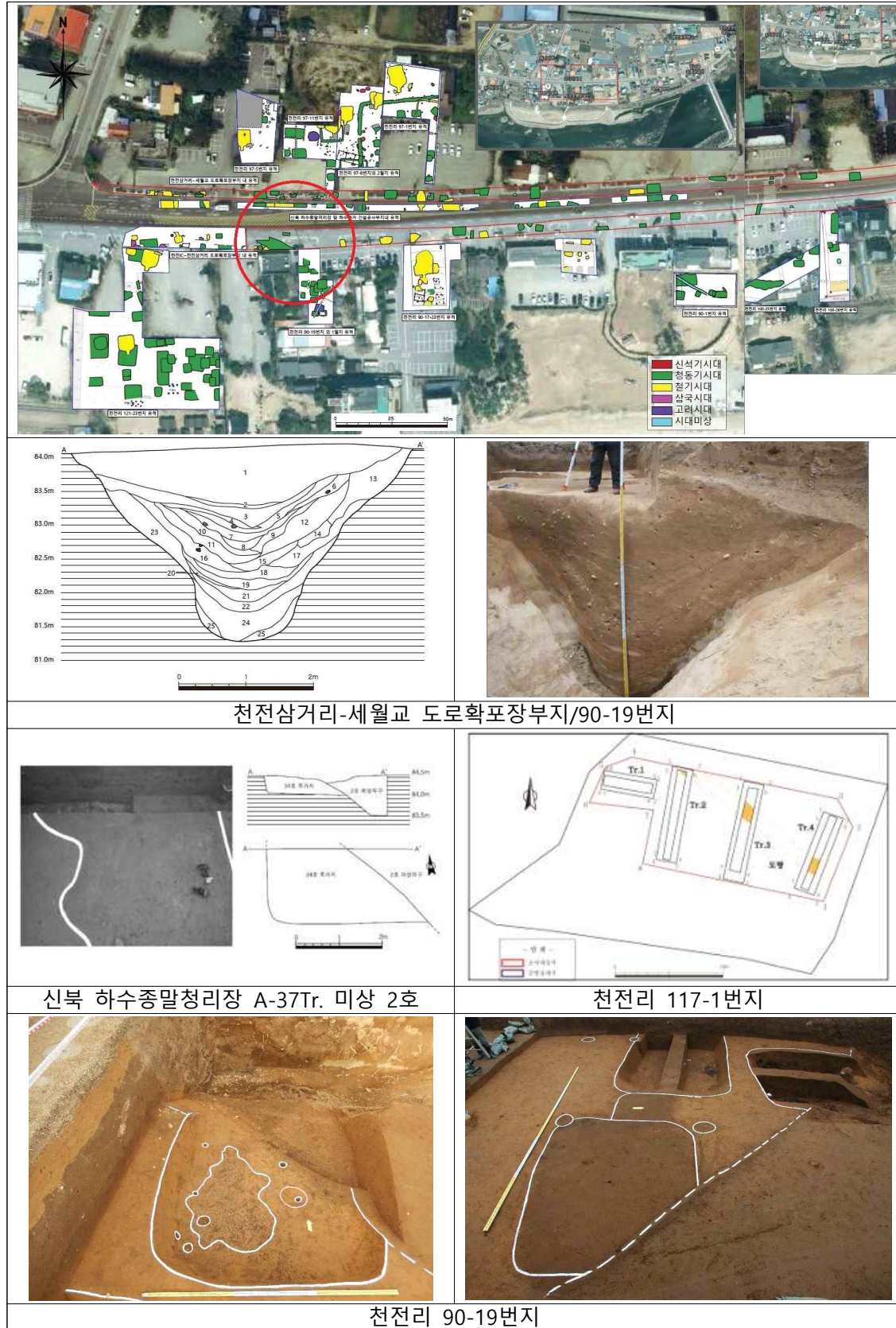
8) 한국문화재단, 2017,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춘천 천전리 117-1번지 유적」.

9)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천전리』.

강원문화재연구소, 2013, 『춘천 중도동유적』.

춘천중도동연합발굴조사단, 2020, 『춘천 중도동유적』.

표 7 춘천 천전리유적 환호 2 관련 유구 일람(축척부동)



2. 환구(環溝)

## 1) 원주 문막리유적<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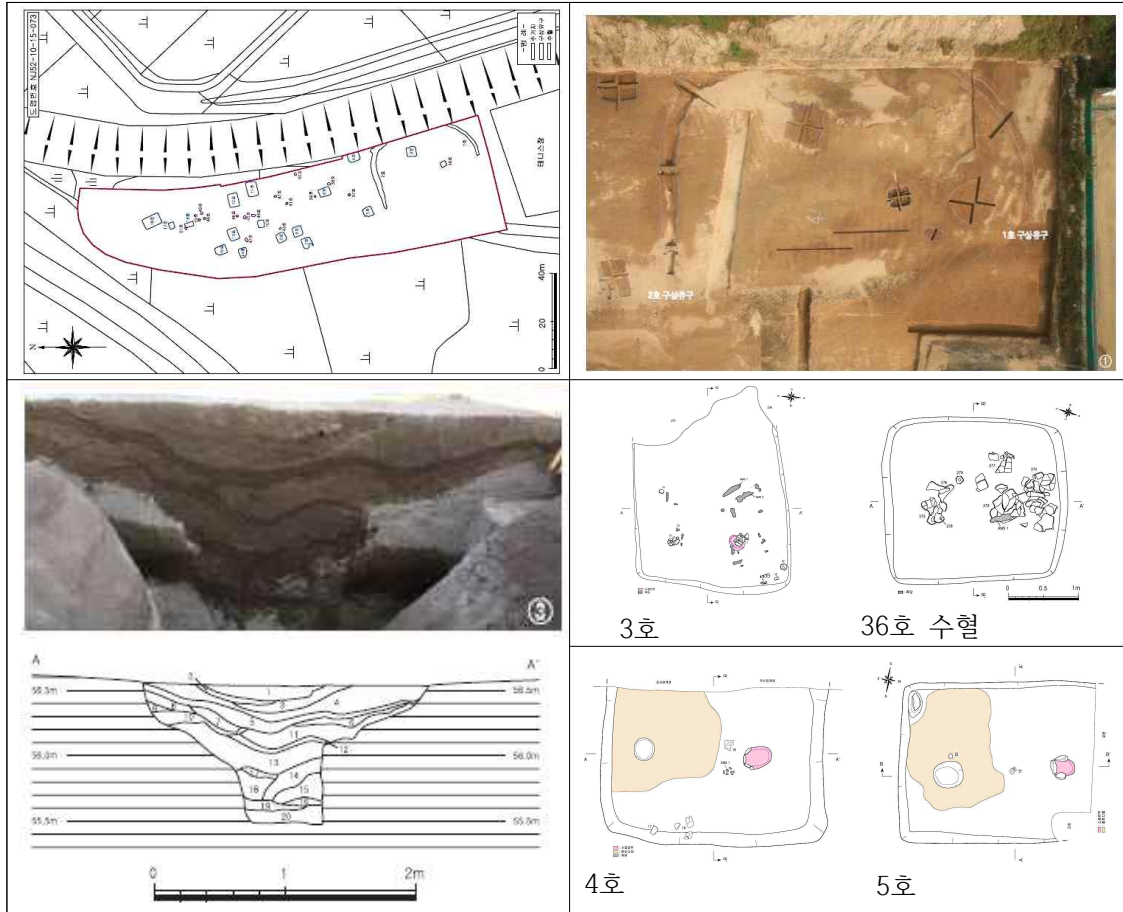
원주 문막리유적은 4대강 살리기사업 원주 섬강 13공구 유적추정지<sup>2</sup>에 대한 발굴조사로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29-4번지 일원 2개층의 문화층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18기, 구상유구 2기, 수혈 51기, 시대미상의 소성유구 1기, 경작유구 8기가 확인된 유적이다.

보고서에 수록된 구상유구 2기가 환구로 판단되는데, 조사지역 남쪽 경계부에 위치하며, 조사지역 동편 경계부 하단으로 진행되고 있어 연결성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평면적으로 3호 주거지 및 36호 수혈을 중심으로 원형의 구가 조성되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유구 분포양상으로 보아 여타의 주거지와는 이격된 독립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의 내부에서는 특별한 시설이 확인되지 않으나, 잔존상태가 양호한 북편 환구의 토층에서 상면으로부터 약 50cm 깊이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다가 이후 바닥까지는 수직에 가까운 굴착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Y'자의 단면 형태이다. 서편으로는 지면이 한 단 낮아지면서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있어 원형으로 조성하였으나 반원의 형태로만 잔존하는지 아니면 반원의 형태로 조성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잔존 반원형의 환구는 잔존 길이는 41m, 직경 45.7m, 상면 너비 1.2~2.3m, 깊이 0.3~1.2m의 규모이며, 구 내부에서 구순 각목문 호형토기, 무문토기 등이 확인되었다.

환구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3호 주거지는 별다른 시설 없이 수혈식 노지가 시설되었고, 출토유물로는 무문토기편과 적색마연토기편, 석검편이 확인되었으나 상대편년이 어렵다. 다만, 환구는 북편의 4호, 5호 주거지와 이격된 독립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어 4호, 5호 주거지와도 일정부분 시기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주거지는 동일하게 평면 방형에 점토구역과 작업공, 단수의 수혈식 노지가 시설되며, 무문토기편만 확인되고 있어 8세기 중심의 중기 후반~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편년 된다. 환구 내부 3주거지에 대한 AMS는 820BC~520BC, 1260BC~980BC 2개의 측정값이 도출되었으나 주거 구조와 유물 조합을 고려한다면 820BC~520BC의 측정값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0)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원주 문막리 유적』.

표 8 원주 문막리유적 환구 관련 유구 일람(축척부동)



2) 정선 아우라지유적Ⅱ<sup>11)</sup>

정선 여량면 여량리 191번지(정선 아우라지 유적 내) 유적은 정선 여량읍 여량리 191번지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로 2006~2007년 조사가 이루어진 I지역 서편으로 연계하여 2016~2017년 실시된 Ⅱ~Ⅳ지역의 발굴조사이다. 2016년 실시된 발굴조사에서는 조선시대 주거지 3기,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8기, 삼국(신라)시대 주거지 12기, 적석유구(집단 적석묘) 1기, 수혈유구 1기, 철기시대 주거지 1기, 청동기시대 주거지 45기, 고인돌 8기, 주구묘 3기, 수혈유구 5기, 신석기시대 주거지 1기, 미상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환구<sup>12)</sup>는 1호 주구묘로 설명된 유구로 평면형태는 말각방향으로 북동쪽 부근의 주구 일부가 청동기시대 주거지 12호에 의해 파괴되었다. 환구의 주축방향은 강과 나란한 동서 방향이며, 북쪽에 위치한 주구는 출입문처럼 좌·우가 나뉘어져 있다. 북동쪽에 위치한 주구 내부에 천석이 일부 채워진 상태로 확인되었으나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환구의 단면은 넓은 'U'자형이며, 전체 길이 16.84m, 상면 너비는 1.4~2.68m, 깊이는 0.2~0.3m이다. 환구 내부에 추가적인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환구

환구에 후행 중복된 12호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으로 내부에 점토가 깔린 장방형과 방

11) 강원도문화재연구소, 2019, 『정선 아우라지유적Ⅱ』.

12) 보고서에는 '1호 주구묘'로 설명되었으며, 김권중(2020)에 의해 '환구'로 재해석되고 있다.

형 위석식 노지 2개가 시설되었다. 출토유물로는 내부토 제거중 돌대각목문토기 구연부편, 구순각목문토기편, 무문토기 저부편, 석부편, 만입석축 미완품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김권중(2020)<sup>13)</sup>은 해당 유구를 환구로 보고서와 다르게 재해석하여 한강유역의 구리 토평동유적과 같이 이른 시기부터 미사리유형 취락의 요소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미사리유형 취락의 구성 요소<sup>14)</sup>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발표자 역시 해당 유구의 '환구' 가능성에는 동의하나 과연 해당 유구가 미사리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아우라지유적Ⅱ의 보고자는 돌대문토기 단계 - 이중구연토기 단계 - 구순각목·공렬토기 단계 - 무문토기 단계 등 4단계로 분석하였다. 환구에 후행 중복된 12호 주거지의 경우 복수의 점토상 위석식 노지가 시설되나, 초반석은 확인되지 않으며, 노지에서 먼 쪽을 중심으로 유물이 집중됨을 들어 돌대문 단계나 이중구연 단계와는 차별화된 공간배치 양상을 보이는 구순각목·공렬토기 단계로 해석하였다. 45기의 주거지 중 13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12호 주거지 주변의 1·2·3·12·23·26호 주거지 모두 구순각목·공렬단계로 해석하였다. 환구 주변 40m 이내 대부분 주거지가 여기에 해당하고 있어 환구 역시 동일 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여겨진다. 물론 중복 관계에 있어 환구가 선축된 것은 확실하나 그렇다고 환구를 미사리식 취락 요소와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 확인된 최대 규모의 미사리유형 취락인 중도에서 환구는 1기도 확인되지 않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해당 유구를 주구묘가 아닌 환구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 조성 시점은 조기 후반의 미사리유형이 아닌 전기 전반까지 지속된 돌대문토기 출토 단계의 주거지 혹은 11~12세기 중심의 남한강 유역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sup>15)</sup>

구순각목·공렬단계의 AMS 역시 1호 1230BC~980BC, 3호 1210BC~1000BC, 26호 1210BC~970BC, 37호 1210BC~930BC, 40호 1210BC~1010BC 의 측정값이 도출되었다.

13) 김권중, 2020,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문화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 김권중, 전게서 <도면 92>

15) 정원철, 2012, 「중부지역 돌대문토기의 편년 연구」, 『한국청동기학보』11호.

신수화, 2014, 「남한강유역 청동기시대 토기 연구」, 『한국청동기학보』15호.

표 9 정선 아우라지유적Ⅱ 환구 관련 유구 일람(축척부동)

	중복관계	
	선축(환구)	후축(주거지)
아우라지Ⅱ		
	<p>1호 주구묘</p>	<p>12호 주거지</p> <p>12호</p> <p>장방형, 점토상위석식(2), 돌대문, 구순각목문, 무문</p>

3) 정선 아우라지유적Ⅲ<sup>16)</sup>

정선 아우라지지역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부지 내 유적은 정선 여량읍 여량리 182번지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로 기존 아우라지유적의 동쪽으로 치우친 곳에 위치하며, 신석기시대 야외노지 1기, 청동기시대 주거지 10기, 수혈유구 7기, 구상유구 2기, 조선시대 소성유구 2기, 환구 1기가 확인되었다.<sup>17)</sup>

환구는 청동기시대 5호 주거지 주변에 원형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남동편 1/2 가량이 경계 밖으로 진행하고 있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지역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게 세장하는 형태여서 일부의 유구만 배치상태가 확인되었으나 환구가 조성된 5호 주거지를 중심으로 모든 유구가 병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환구의 직경은 15m, 상면 너비는 0.74~1.22m, 깊이 0.12~0.23m의 규모이며, 구 내부에서 돌대각목문토기 구연부편 1점, 부리형석기 3점, 석제 어망추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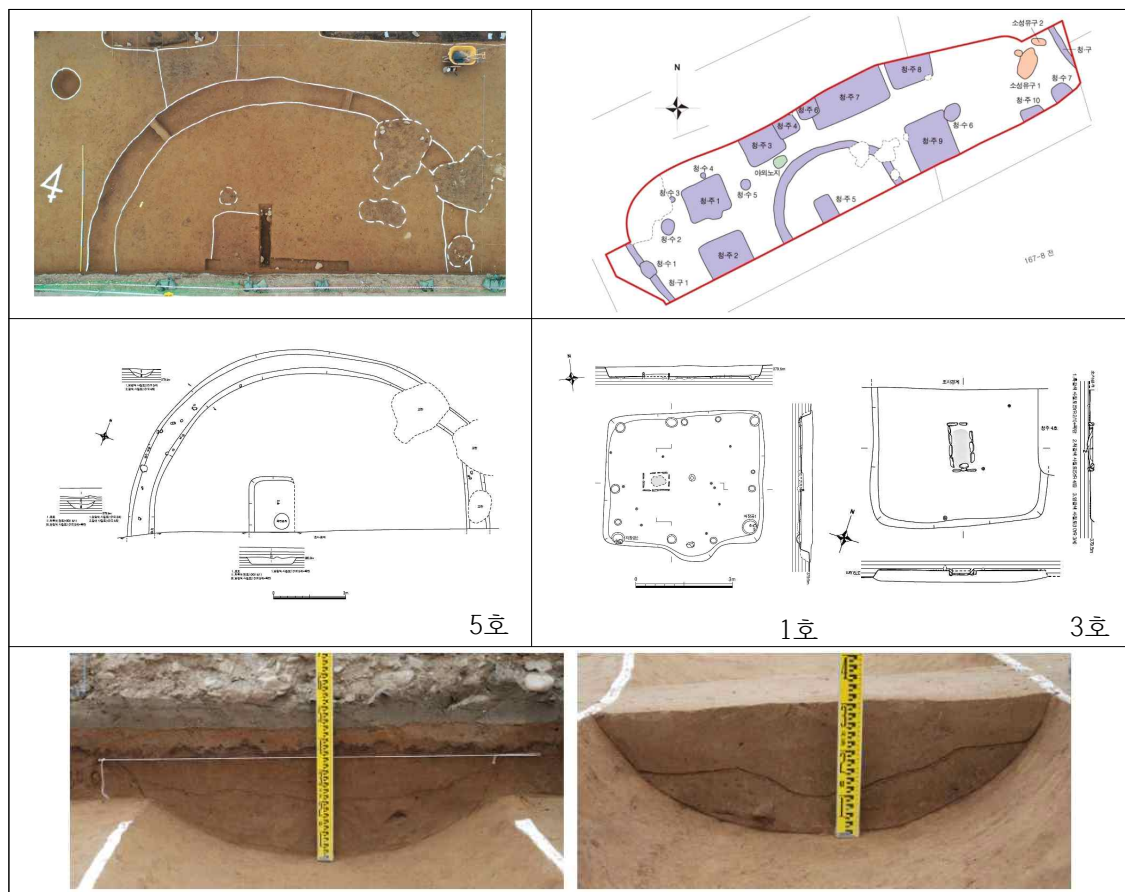
환구 내부에 위치한 5호 주거지는 일부만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평면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별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며, 삼각만입석축 1점이 출토되었다.

16) 강원도문화재연구소, 2022, 『정선 아우라지유적Ⅲ』.

17) 보고서에는 '환호'로 기술되었다.

한편, 정선 아우라지지역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부지 내 유적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들은 4호와 6호를 제외하고 중복관계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고 있어 동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1호에서는 돌대문토기편, 빗살문토기편이 확인되었고, 8호에서는 공렬+단사선+구순각목문토기, 공렬+단사선문토기편, 구순각목문토기의 복합문계 토기가 확인되었으며, 3호에서는 위석식노지에 2단병 석검이 확인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11~12세기 중심의 전기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편년된다. AMS 역시 1호 1130BC~850BC, 5호 1280BC~1010BC, 8호 1200BC~910BC, 9호 1210BC~930BC의 측정값이 도출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10 정선 아우라지유적Ⅲ 환구 관련 유구 일람(축척부동)



### 3. 추정 환호(環壕)

#### 1) 정선 아우라지유적Ⅲ 추정 환호<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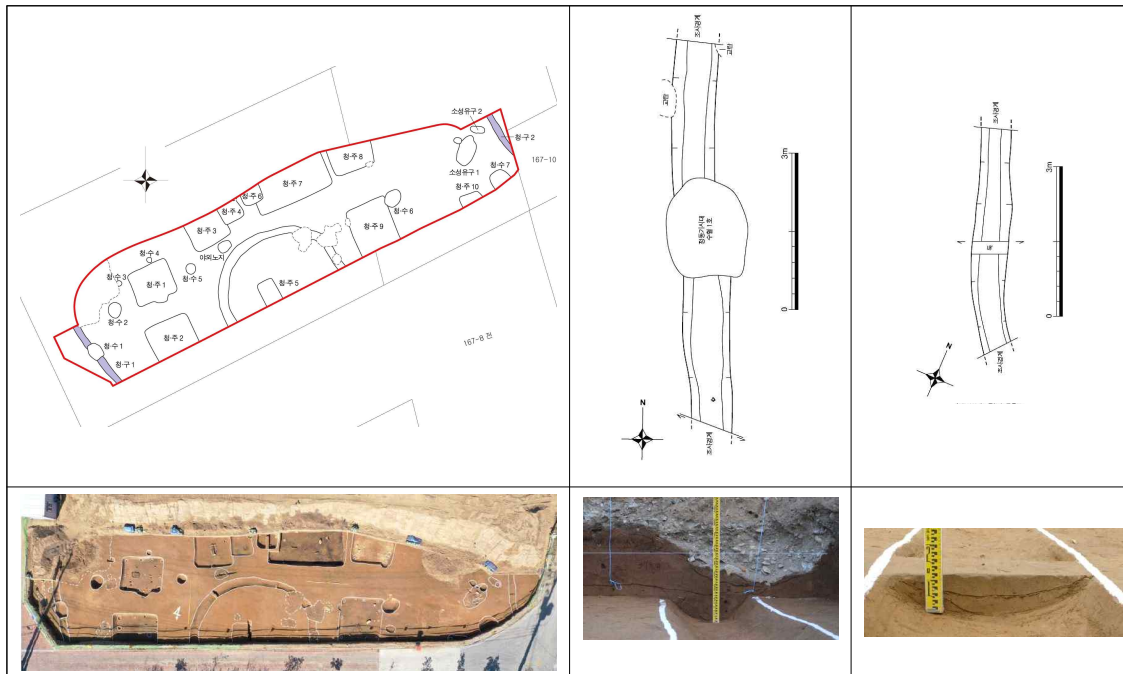
정선 아우라지지역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부지 내 유적 서쪽과 동쪽 끝 부분에 북-남 방향의 구가 평행의 형태로 확인되어 환호로 추정되고 있다.<sup>19)</sup>

보고서에는 구상유구 1호와 2호로 설명되었는데, 조사지역 경계 밖으로 진행하고 있어 일부만 조사가 진행되었다. 구상유구 1호의 규모는 잔존길이 7.6m, 상면 너비 0.8~0.9m, 깊이 0.14m이다. 내부토에서 무문토기 저부편과 동체부편이 확인되었다.

구상유구 2호의 규모는 잔존길이 4.42m, 상면너비 0.55~0.7m, 깊이 0.1m이며, 내부에서 확인된 유물은 없다. 청동기시대 유구 포함층인 황갈색 사질토층에 조성되었고, 청동기시대 수혈 1호가 후행 중복되었다. 구상유구 1호와 2호의 간격은 54.9m 정도이다.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워낙 짧아 환호 여부는 언급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추후 환호가 맞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현재까지 영서지역에서 가장 이른시기인 청동기시대 전기 전반에 해당하는 환호가 된다.

표 11 정선 아우라지유적Ⅲ 추정 환호



18) 강원도문화재연구소, 2022, 『정선 아우라지유적Ⅲ』.

19) 박경진, 2024, 「중부지역 환호·환구의 양상과 특징」, 『교환과 경제의 고고학』 제4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아우라지지역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부지 유적 외 인근 아우라지 관광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에도 환호가 있는 것으로 상기 발표문 그림1.에 제시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어느 유구 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 V. 맺음말

강원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환호로는 춘천 중도동·울문리·천전리유적(2기)에서 각각 확인되었으며, 정선 아우라지유적Ⅲ(어린이놀이터)에서도 환호로 추정되는 유구가 일부만 조사되었다. 환구는 원주 문막리·정선 아우라지유적(어린이놀이터)에서 환구 내측에 주거지 및 수혈유구와 함께 확인되었다. 많지 않은 조사 사례를 근거로 명확한 조성 시기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청동기시대 중기의 천전리유형 취락과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복관계로 보아 전기 후반~중기 전반에 해당하는 주구묘에 후행하고, 중기의 천전리식 주거지와는 중복관계가 중첩되고 있다. 환호 내측에 일정 간격을 두고 조성된 천전리 환호 1(97-8, 97-1번지)의 주거지 양상 역시 점토구역이 시설된 중기와 시설되지 않은 후기의 주거지가 혼재하였다. 최근 보고서의 발간의 존재가 확인된 천전리 환호 2는 시기적으로 청동기/철기시대 중 언제 조성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나 충분히 환호의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약 180m 정도의 길이가 확인되고 있다. 철기시대에 조성된 환호라면 무관하겠으나 청동기시대에 조성되었다면 천전리 지역에 2개의 환호가 존재하게 된다.

정선 아우라지유적Ⅱ·Ⅲ에서 확인된 환구와 추정 환호의 경우 인접한 주거지 및 출토 유물로 보아 천전리식 주거지와는 관련성이 적은 청동기시대 전기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영서지역에서는 가장 이른 환호 및 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토대로 강원 영서지역 환호의 경우는 청동기시대 중기의 천전리형 취락과 관련이 깊은 반면 환구의 경우는 청동기시대 전기 전반의 시점부터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강원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환호, 환구 유적의 최신 조사 성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으며 논의를 통해 진전된 연구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주)강원중도개발공사·춘천 중도동유적 연합발굴조사단, 2020, 『춘천 중도동유적』.
- 강원문화재연구소, 2017, 「춘천 신북읍 천전리(97-8번지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
- 국강고고학연구소, 2023, 『춘천 울문리유적Ⅱ』.
- 호남문화재연구소, 2021, 『춘천 울문리 84-1번지 유적 I·Ⅱ』.
- 국강고고학연구소, 2024, 『춘천 천전지유적Ⅳ』.
-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춘천 천전리·울문리유적』.
- 예맥문화재연구원, 2018, 『춘천 천전리유적 I』.
- 예맥문화재연구원, 2020, 『춘천 천전리유적 Ⅱ』.
- 예맥문화재연구원, 2021, 『춘천 울문리유적Ⅲ』.
- 한국문화재단, 2017,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IV -강원3, 세종-』.
- 한국문화재단, 2016,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VI -강원2-』.
- 한국문화재단, 2015,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 -강원3-』.
- 한국문화재단, 2019,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 한국문화재단, 2015,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Ⅲ -강원3-』.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Ⅱ-경기2·강원-』.
- 한국문화재단, 2015, 『2013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Ⅲ -강원-』.
-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 『정선 아우라지 유적』.
- 강원문화재연구소, 2019, 『정선 아우라지 유적Ⅱ』.
- 강원도문화재연구소, 2022, 『정선 아우라지 유적Ⅲ』.
-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원주 문막리 유적』.

# 인천 검단 원당동, 당하동 환구 -중서부지역 청동기시대 중기 환구의 전개-

(재)중부고고학연구소 구 준 모

## 1. 머리말

환구(環溝)는 청동기시대 취락의 구성요소 중 독특한 위치에 있다. 유구 자체로는 고리형태의 구(溝)가 원형으로 일주하는 형태로 내부에 별다른 시설은 없지만, 유구의 조성위치와 주변 유구와의 배치관계 등 경관적 상징성이 내재하여 있다. 선사시대 대부분의 고고학적 유구가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비해 환구의 경우는 상기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접근방법과 해석에 사뭇 차이가 있다. 즉 유구 개별적인 기능적 검토보다는 주변 유구와의 관계성, 입지형의 광역적, 미시적 경관성<sup>20)</sup>이 유구의 해석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를 통해 일반 유구보다 취락 또는 당시 사회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매우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환구 연구는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이 상존한다. 우선 대부분의 현행 구제발굴에서 유구가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구간만 선별발굴이 행해지고 있어 상당수 유적들이 단일지형 내에서 부분적으로 조사되는 점이다. 경관적 측면에서는 유구가 확인되는 구간 뿐 아니라 그 외 지형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관적 해석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 요소이다.

두 번째는 환구와 동시기성을 가지는 유구를 추출하는 것이다. 환구 자체는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형태적, 시설적 특색이 없다. 오로지 직접적인 요소는 내부출토유물과 절대연대측정 자료인데 이 또한 온전한 상태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손에 꼽는다. 때문에 주변 동시기 유구와의 상호연결이 반드시 필요한데 상기의 근거가 없다면 배치 및 해석적 검토가 개입되는 비교적 주관적인 영역으로의 한계가 있다.

인천검단 유적은 이러한 측면에서 광역적인 단위에서 취락의 경관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들이 확보되어 환구를 포함한 중서부지역 취락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20) 경관복원에 있어 당시 지형요소의 광역적인 복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최소 가시권 범위까지는 복원되어야 하며 좀 더 넓게는 강 또는 대하천까지 이어지는 산계 단위 또는 수계 단위의 경관복원과 해석이 필요하다. 현재는 주변 일대가 여러 개발로 지형훼손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제약이 있지만 이는 1910년대 근세지형도 및 1950~60년대 정사영상의 교차검토를 통해 분석 가능하다.

## 2. 인천 검단유적과 입지형

인천 검단 유적<sup>21)</sup>은 인천검단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6개 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되었으며 총 조사면적 549,302㎡에서 청동기시대는 수혈주거 562기, 수혈 20기, 구 5기, 지석묘 3기, 토광묘 1기, 환구 2기, 초기철기시대는 수혈주거 2기, 목관묘 3기, 수혈 3기, 구 1기가 조사된 중서부지역 최대규모 청동기시대 취락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환구가 확인된 취락은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인천 검단 원당동(마지점)과 (재)충청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인천 검단 당하동(2지점)의 2개소이다.

표 1\_인천 검단유적 유구현황표

시기/유구	조사기관	합	중부	중앙	충청	대동	호남	한빛
			원당동	원당동	당하동	불로동 원당동	마전동,원당 동,불로동	불로동
청동기 시대	주거	562	23	16	163	156	134	70
	수혈	20	2	-	7	2	-	9
	환구	2	-	1	1	-	-	-
	구	5	-	-	-	-	2	3
	지석묘	3	-	-	-	1	2	-
	토광묘	1	-	-	-	1	-	-
초기 철기 시대	주거	2	-	-	-	2	-	-
	수혈	3	-	-	-	3	-	-
	구	1	-	-	-	1	-	-
	목관묘	3	-	-	-	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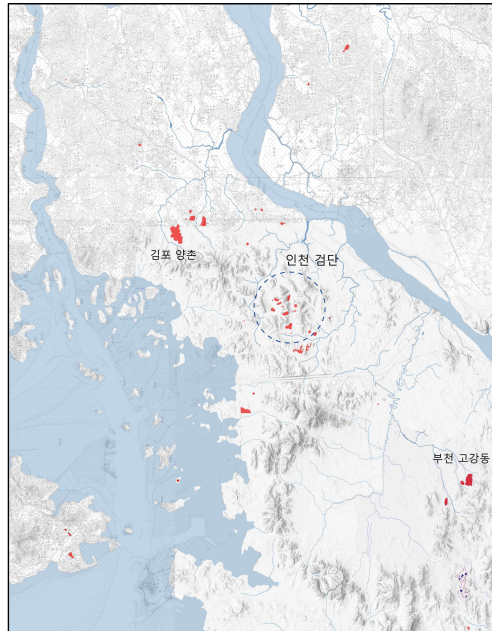
인천검단유적이 포함된 중서부지역은 산업화와 함께 해안가 일대의 대규모 간척 및 경인 아라뱃길의 조성, 하천 정비, 대도시 외곽의 도시화 등으로 지형변화가 상당하여 근세지형도 및 근현대 정사영상 등으로 지형상황을 복원하고 유구현황을 검토 및 제시해야 한다.

이를 감안한 원지형상에서 유적의 입지형을 검토하면 현대 지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지정학적으로 유적은 서해안선(개펄 침수지, 직선거리로 약 4km 이내)과 한강분류(직선거리 약 5km) 사이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한강상류에서 내륙으로 진입하는 교두보에 위치하고 있다. 직선거리 상으로는 한강보다 서해안에 더 인접해 있지만 서해안과 유적 사이에는 김포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어지는 분수계(산맥계)인 한북정맥으로 지형적 경계가 구분되어 있다. 이 산맥계 상류에서 발원하여 인천검단 유적 주변을 돌아 한강으로 합수하는 여러 개천(계양천, 나진포천 등)들이 주변 구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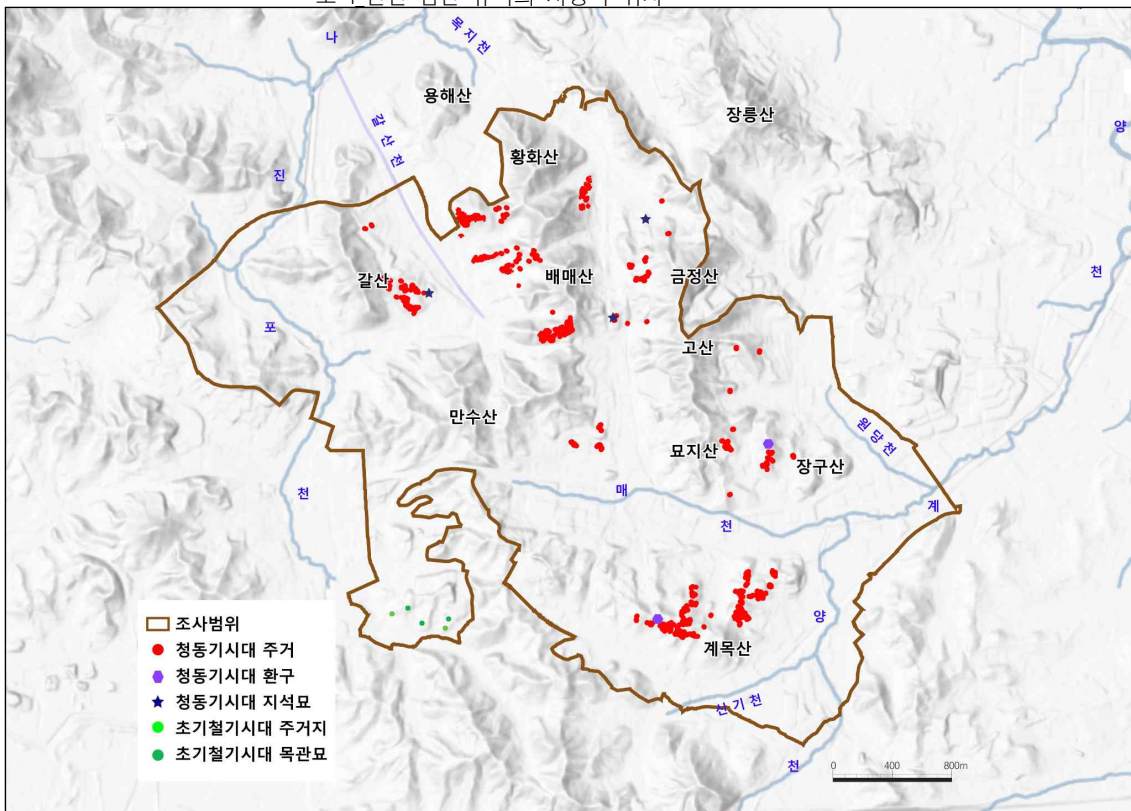
21) 인천 당하동(충청문화재연구원), 원당동(중부고고학연구소, 중앙문화재연구원), 불로동 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한빛문화재연구원)을 포함한다. 그 외 금번 사업 이전에 조사된 원당동유적 I II(한국문화재보호재단)도 사업구역 내에 포함된 기초사유적이다.

사이로 곡부를 형성하며 흐르고 있고, 유적들은 이 수계의 상류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어 당시 인천검단 유적 거주민들의 주 활동권역은 한강을 조망하는 동쪽 내륙지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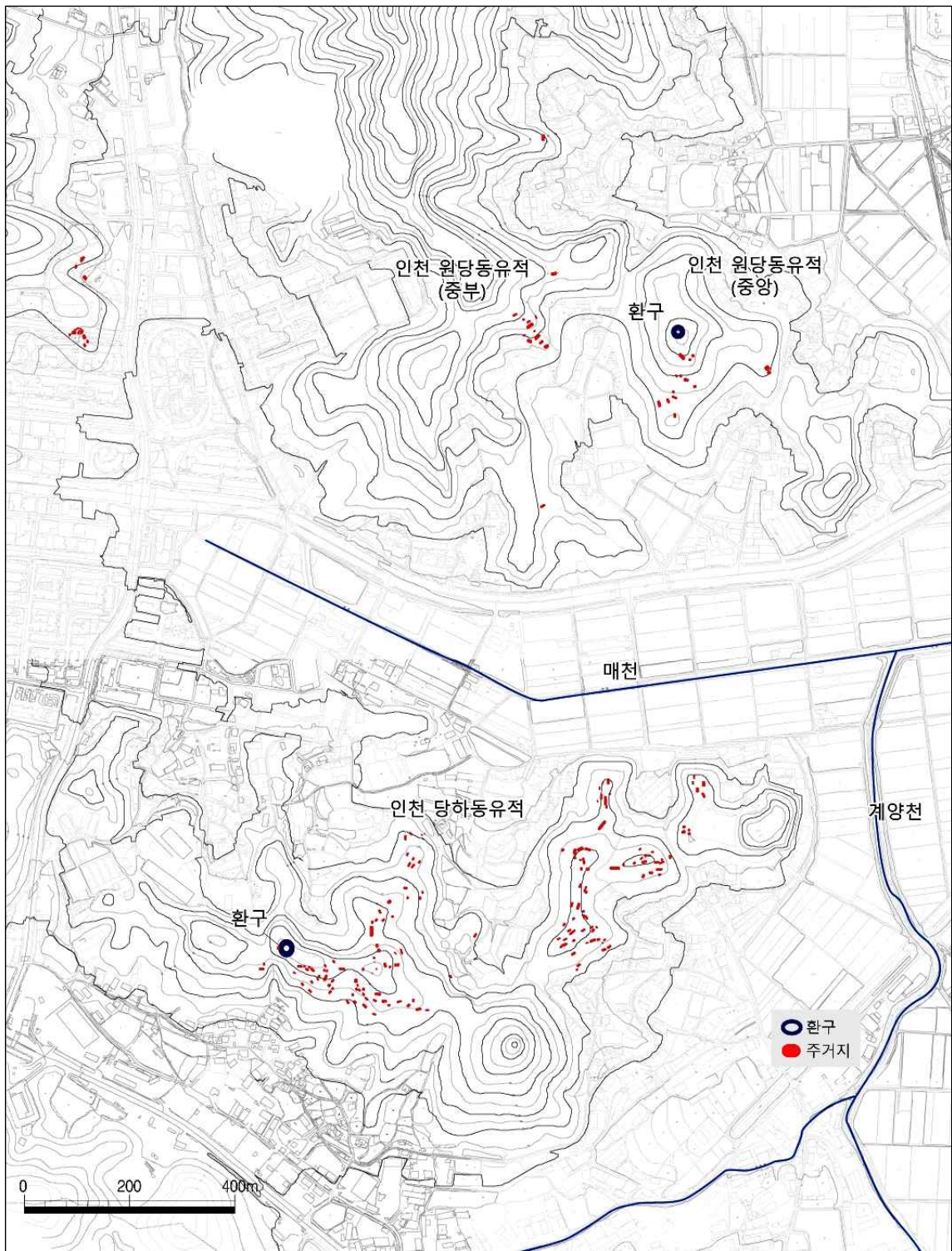
취락은 해발 40~60m 이내의 구릉상에 분포하며 청동기시대 시기구분 상 전기전반부터 전기후반, 중기, 후기~초기철기시대까지 청동기시대 전 시기에 걸쳐 유적이 점유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 1 인천 검단 유적의 지형적 위치



도 2\_인천 검단 유적 청동기-초기철기시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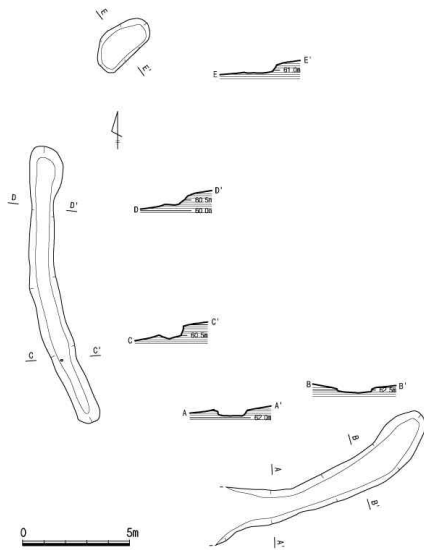


도 3\_인천검단 당하동·원당동 유적 환구취락 현황(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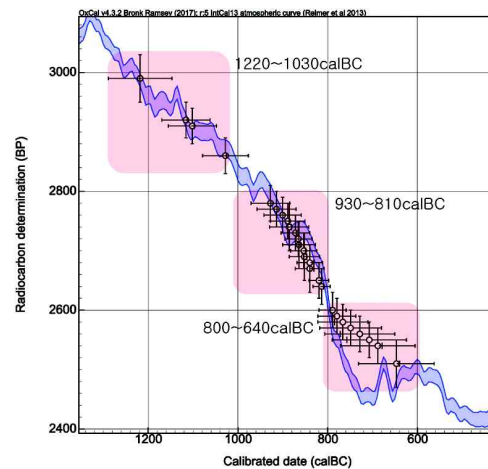
### 3. 당하동유적의 환구와 취락

#### 1) 환구

인천 당하동유적(충청문화재)의 환구는 취락이 조성된 구릉상의 고지대인 해발 60.5~62.5m에 입지한다. 평면형태 원형<sup>22)</sup>에 규모는 직경 24m, 구 폭 120~160cm 정도이다. 침식으로 유실된 북동쪽 일대를 제외하고는 2개의 분절구간이 확인되며 분절구간 사이 간격은 4m 정도이다. 유물은 내부토에서 무문토기 동체부 1점이 출토되었다. 전체 취락배치 상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서쪽 4m 지점에 청동기시대 주거 1기(2-3지점 청주1호)가 인접하여 있다. 그 외에는 주변 약 30m 지점 이내로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환구 주변으로는 의도적으로 공지를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 4\_당하동 유적 환구(1:40)



도 5\_당하동 청동기시대 유적 보정연대 커브플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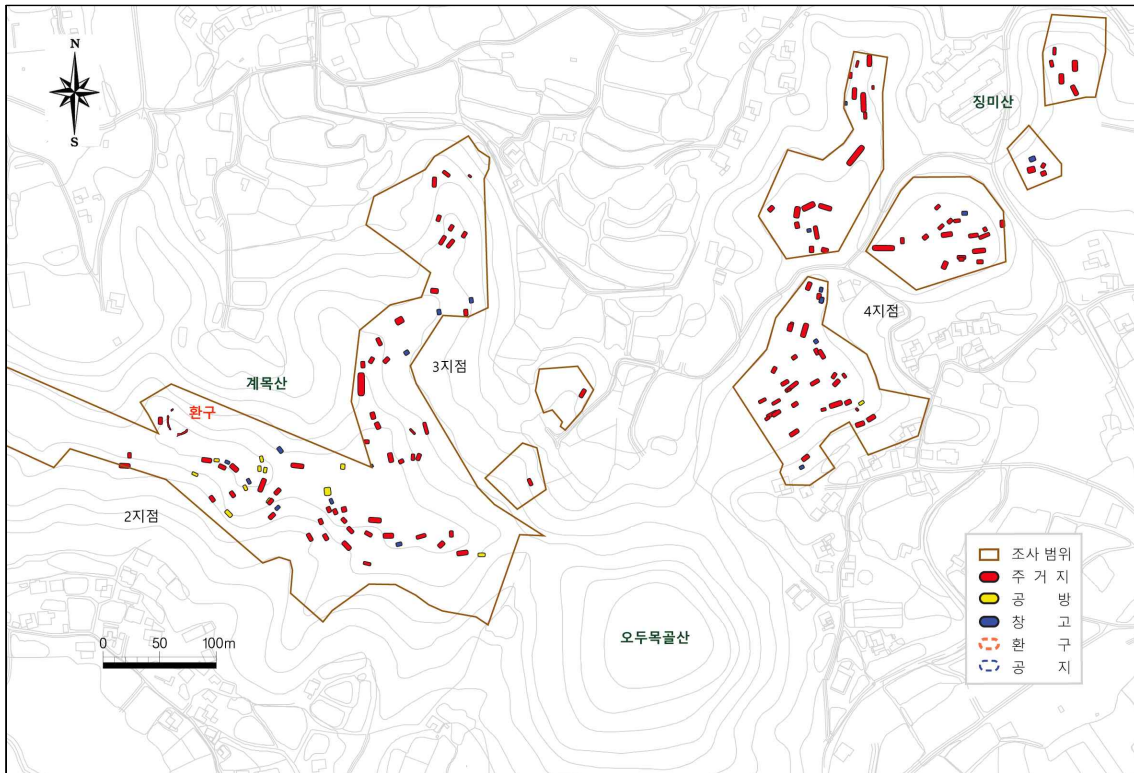
#### 2) 동기시 취락경관

당하동유적은 청동기시대 주거 163기, 수혈 7기, 환구 1기가 확인되었으며, 유적의 배치와 분포가 계목산 전체에 걸쳐 넓게 산포되어 있으며 중복양상도 수기 이내로 많지 않다. AMS연대상으로 보면 크게 3시기로 구분되는데(도4) 2,990BP를 전후한 전기전반은 주거 5~6기 정도로 주로 환구에서 서쪽 구릉에 밀집해 있으며 그 외 나머지 유구는 2,700BP를 전후하여 집중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동시기성을 보이는 중기단계의 단일취락으로 보는데 문제없으며 환구도 이 시기로 비정된다.

환구는 전체 취락에서 외곽부인 서쪽에 입지하는데 주변으로는 주거유구 없이 공방 및 창고 등의 기능성 유구가 분포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환구(의례)-특수-주거'의 공간구분으로 취락이 구성되어 있다.

환구는 계목산에서 유구가 분포하는 곳 중 가장 지대가 높은 곳에 입지하나 연속되는 구릉지형상에서는 동남쪽 해발 80.4m의 오두목골산이 최고지로 지형적으로 취락의 중심에

22) 잔존형태는 반원형이나 북사면 일대가 후대 침식으로 삭평된 것으로 보여 원형태는 원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 6\_인천검단 당하동유적 청동기시대 중기 취락(축적부동)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곳은 급한 경사도에 시굴조사 단계에서 유적이 확인되지 않아 발굴조사에서 배제된 곳이다. 일대 전체 취락배치를 볼 때 이 곳이 취락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중앙에 위치한 고지로서 상징성이 높아 보이나 환구입지에서 배제된 것을 볼 때 접근성 또한 환구 입지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추측된다.

유적이 입지한 계목산은 북쪽 곡부를 따라 매천, 동남쪽의 곡부로는 신기천과 계양천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곡부 축적지가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는 등 용수 접근성 및 주변 조망과 방어 등이 용이한 지형환경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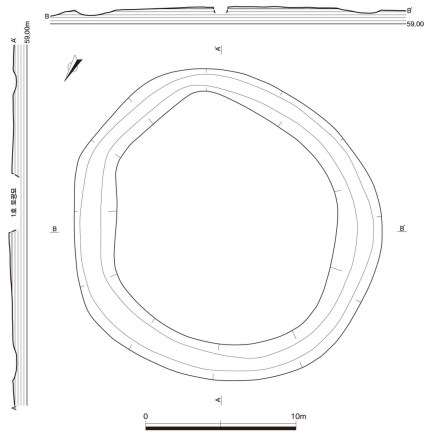
#### 4. 원당동유적의 환구와 취락

원당동유적은 당하동유적과는 매천과 곡부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개별 구릉상에 형성되어 있다. 지형적으로는 북쪽의 고산(해발 123.4m)에서 뻗어나온 능선의 남쪽(묘지산 해발 65m)과 동남쪽 가마산(해발 60m)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사면부에 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중부고고학연구소의 9지점(묘지산의 동쪽능선사면)과 중앙문화재연구원의 마지점(가마산의 정상부와 남쪽능선사면)을 중심으로 취락이 집중되어 있고 이 중 후자에 환구가 입지한다. 두 지점은 지형상 동일 구릉으로 인접해 있다. 중부고고학연구소는 청동기시대 주거 23기, 수혈 2기, 중앙문화재연구원은 주거 16기, 환구 1기가 조사되었다.

##### 1) 환구

원당동유적의 환구는 유적이 입지한 구릉의 가장 고지대인 가마산의 정상, 해발 59.2~60.0m에 단독으로 입지한다. 평면형태 원형에 규모는 직경 21m, 구 폭 172~304cm,

잔존깊이 20~34cm 정도이다. 분절구간 없이<sup>23)</sup> 연결되어 일주하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주변으로 관련 유구는 남쪽 사면 하단부 약 30m 지점에 수혈주거 1기가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는 공지로 남겨져 있다.



도 7 원당동 유적 환구(1:40)

## 2) 동시기 취락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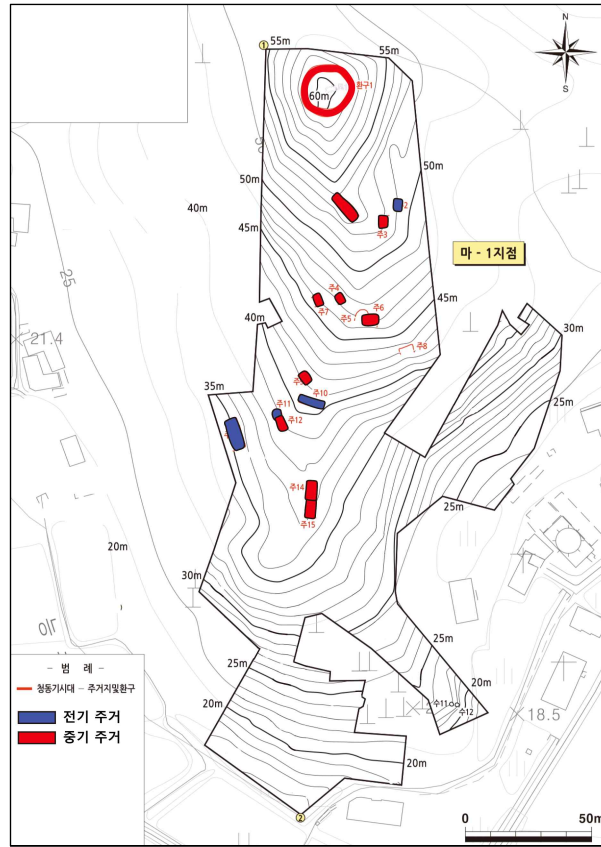
원당동 유적은 취락의 규모나 주거와의 연관성이 비교적 약한 편이다. 당하동 유적의 경우 대체적으로 동시기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배치와 연대값 및 수량으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원당동유적에서는 지점별로 유구의 시기가 분산되거나 섞여 있기 때문이다.

원당동유적 9지점 취락은 대략 2,900BP의 전기전반 이중구연계토기계통과 2,800BP 이상의 전기후반 공렬토기계 중심의 시기에 해당한다. 일대의 전기 유구는 이외에도 1,3,5,10,21지점과 중앙문화재연구원 바지점에 각 1~2기의 독립된 주거가 조성되어 있고 환구가 확인된 마지점 또한 이와 유사한 양상으로 3기 이내의 전기 주거가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원당동유적 마지점 취락은 2,500BP 이후 중후기 주거가 중심으로 시기적 차이를 보인다. 이는 유구형태와 배치 및 유물양상으로 대략적으로 구분된다. 이에 환구는 인접하여 밀집한 중기 단계로 시기를 비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AMS연대를 감안하면 원당동유적은 당하동유적보다 시기적으로 약간 후대에 조성된 환구취락으로 보여진다.

23) 현재까지 조사된 중서부지역 환구는 모두 분절구간이 확인되므로(전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유적 제외) 원당동 환구유구는 전체가 일주하는 유일한 사례이다.



도 8 \_원당동 유적(중앙 마지구) 시기별 유구 구분(1:3,000)

## 5. 인천 당하동 원당동 환구취락의 시공간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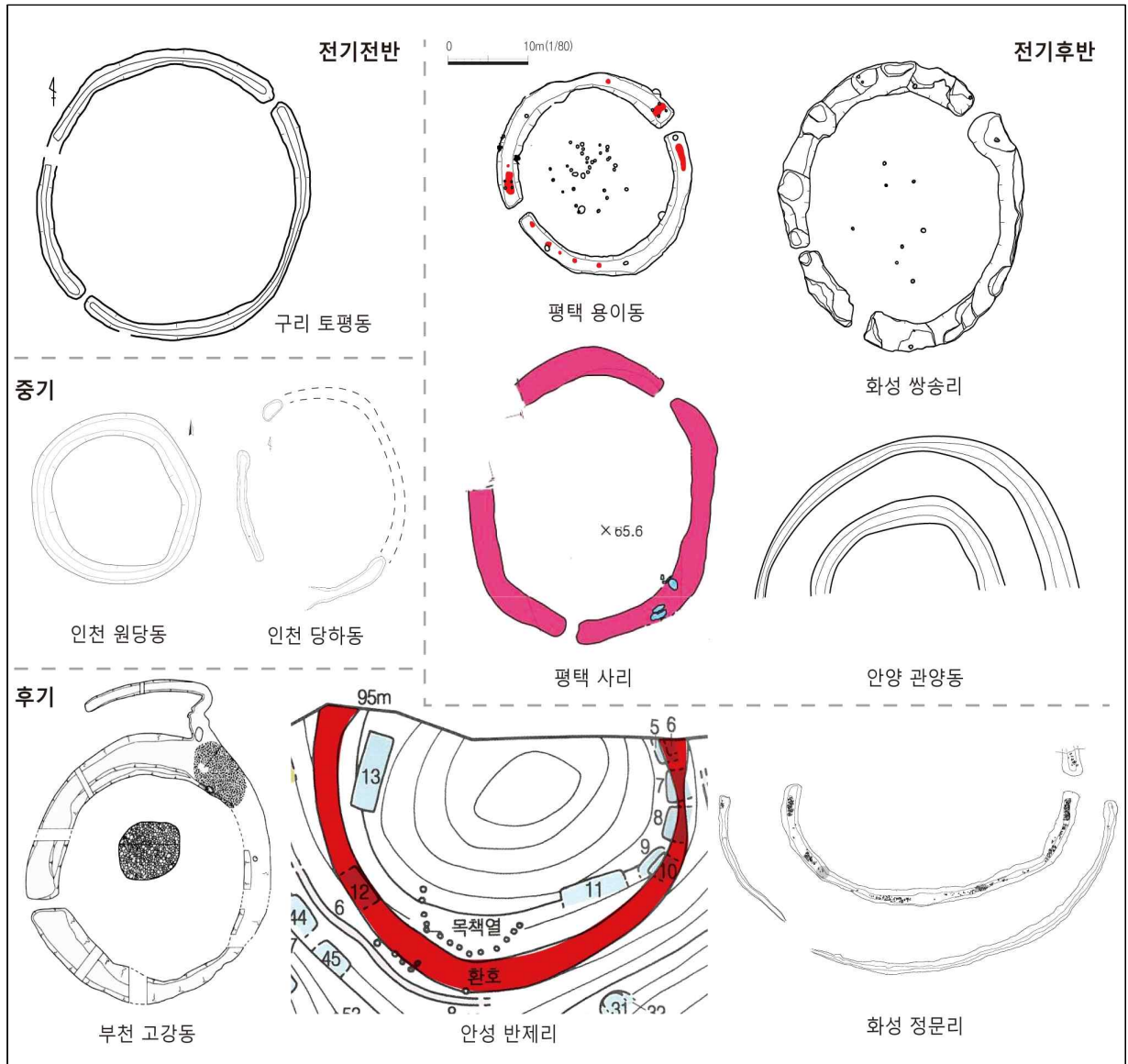
이제껏 여러 연구와 보고서에서 환호(環壕, 環壕)와 환구(環溝)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이 두 유구는 성격적으로 기능적으로도 명확히 다른 유구이므로 명칭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호(環壕, 環壕)는 주거 공간을 감싸는 도랑으로써 방어적, 영역적 구분을 의도하는 시설이므로 취락의 입지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크기<sup>24)</sup>로 조성될 수 있다. 이에 반해 환구(環溝)는 취락 내 특정공간, 특히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하는 의례공간으로 형태는 대부분 원형에 크기도 20~35m 이내로 대체로 규격화되어 있다. 2010년대 이후 유적사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형태, 취락구조 등이 좀 더 선명해진 현상은 이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본 장에서는 의례 성격의 '환구'를 대상으로 전개와 의미를 살펴보겠다.

중서부지역에서 조사된 환구취락 또는 환구유적은 대략 10개소<sup>25)</sup>에 이르며 이를 시기별로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24) 기본적으로 구릉사면을 퇴피식으로 일주하므로 규모가 단위취락을 수용할 만큼 크다.

25) 환호와 복합적으로 조성된 2기 유적 포함

관련하여 환호취락은 (9개소(복합2개소 포함))-강화 대신리, 인천 동춘동, 수원 울전동, 화성 동학산, 오산 청학동(2,380±40), 오산 가장동, 화성 정문리(복합), 평택 용이동(복합), 평택 화양지구



도 9 중서부지역 환구(1/80)

전기전반-구리 토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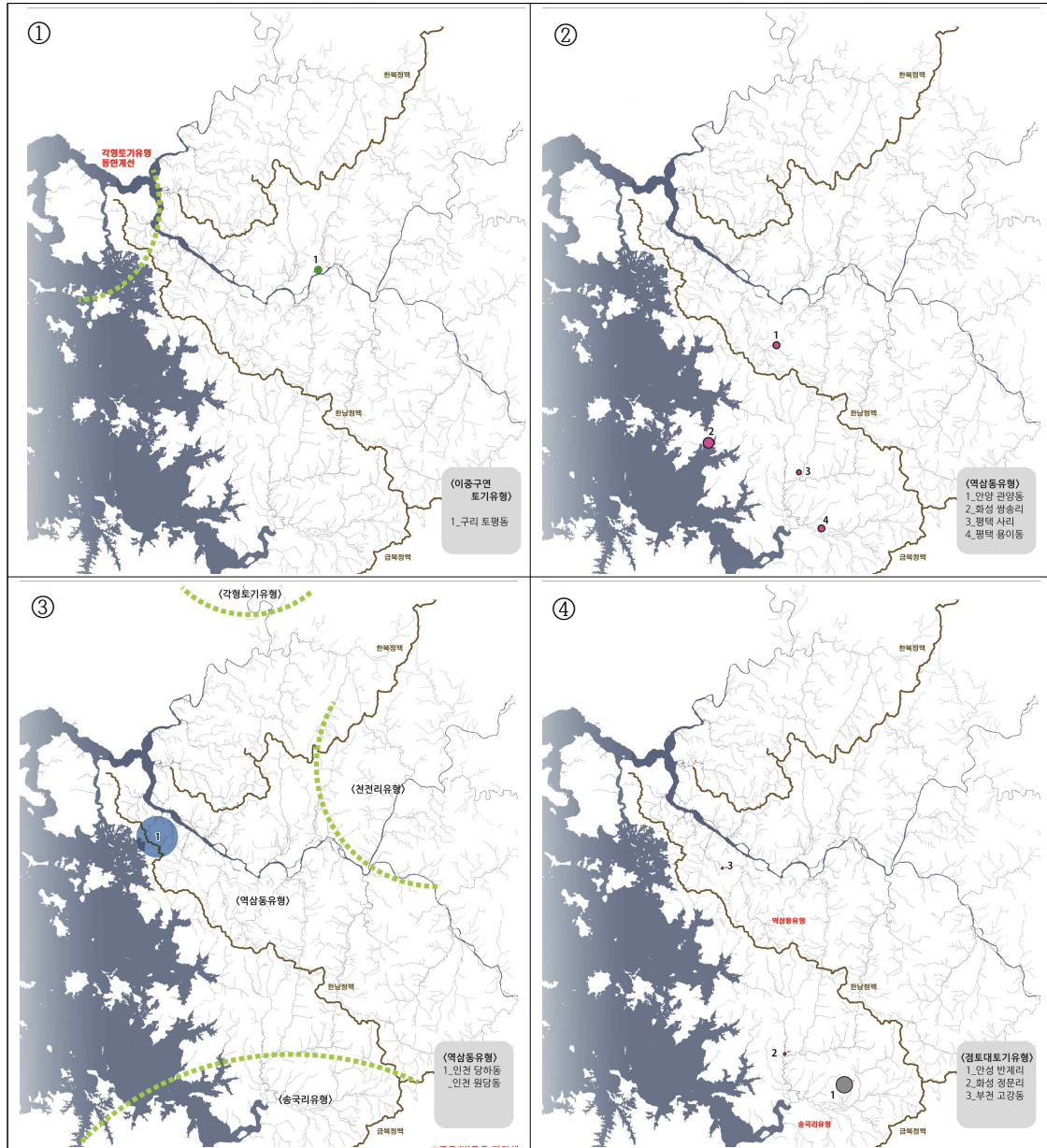
전기후반-안양 관양동, 화성 쌍승리, 평택 용이동(복합), 평택 사리

중기-인천(검단) 당하동, 인천(검단) 원당동

후기~초기철기 - 부천 고강동, 화성 정문리(복합), 안성 반제리

이같은 시기별 환구취락의 분포는 중서부지역 문화유형의 전개와 궤를 같이한다. 전기전반 구리 토평동유적의 환구는 이중구연토기문화 유적에서 확인된 유일한 사례로 전기의 역삼동유형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중구연토기문화는 주거와 토기형태 및 입지형에서도 후대의 역삼동유형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문화유형(구준모 2024)이므로 이를 형태적 입지 및 배치상에서 동일 비교범주에서 검토할 수 없는 사안이다. 토평동 유적의 평지상 입지 또한 그러한 범주에서 고려해야 한다.

전기후반에 들어서며 공렬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역삼동유형은 중서부지역에서 폭발적인 확장을 하였고 특히 서부해안으로 인접한 김포, 광명, 화성, 평택 일대에서 대형 취락들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구취락은 경기 남부(평택 사리, 평택 용이동), 경기 서부(화성 쌍송리), 경기 중부(안양 관양동) 등 당시 역삼동유형의 영역권의 중심지에서 형성되었다.



도 10\_중서부지역 환구취락의 시기별 전개양상(①전기전반, ②전기후반, ③중기, ④후기)

이후 강원영서지방의 천천리유형, 경기남부지방에서 송국리유형이 각각 서쪽과 북쪽에서 전개하며 영역권을 확장하게 되고 이와 함께 기존 점유하던 역삼동유형 취락들은 소멸하거나 타유형과 공존하며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결국 역삼동유형의 영역권은 축소되고 기존의 대형취락들은 해체되며 북서부 북부지방으로 이합집산하면서 다시 새로운 거점취락을 형성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인천검단유적과 화성 수영리유적 등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인천 당하동에서 환구취락이 형성되게 된다. 새로이 전개되던 타문화의 영향으로 주거가 축소되며 가족공동체가 해체되고 취락공동체로 전환되면서 공방, 창고 등의 전문시설이 등장하게 된 것이 당하동 취락의 형성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 후 점토대토기문화가 경기남쪽을 중심으로 확장하면서 안성 반제리, 화성 정문리, 부천 고강동 등에 환구취락을 형성하나 안성 반제리를 제외하고는 기층문화(생활유적)의 규모가 매우 소략한 점은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 및 점유전략(산발적 점상취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환구의 전통은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문화유형에서는 전기전반의 이종구연토기문화, 전기후반~중후기의 역삼동유형, 후기~초기철기의 점토대토기문화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문화권을 아우르는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 강원영서의 천전리유형에서는 중서부지역의 원형환구와는 달리 이에 대응하는 방형환호(춘천 중도동)의 전개가 특이한데 이는 지형적으로 충적지에 입지하는 지역성에 기인한 변형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한 송국리문화에서 환구의 부재는 주거형태의 이질성과 함께 그 기원과 정체성의 차이에 대한 또 다른 근거일 수도 있겠다.

#### 참고문헌

- 김권중·구준모, 2019, 「인천 검단의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인천 검단의 고고학』중부고고학회 학술총서1.
- 구준모, 2023, 「부천의 고고학적 경관」, 『굴포문화연구』창간호, 부천시·부천문화원.
- 구준모, 2024,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유형의 분포와 전개」, 『청동기시대 취락 유형의 경계와 교류』 2024년 한국청동기학회 정기학술대회, 한국청동기학회.
- 이형원, 2012, 「중서부지역 신석기~청동기시대 취락의 공간 구조와 그 의미」, 『고고학』 11-2, 서울경기고고학회.
- 이형원, 2017, 「한강유역의 청동기시대 환호취락과 환구취락」, 『한강과 마을의 흔적』, 한성백제박물관.
- 박경신, 2024, 「중부지역 환호·환구 양상과 특징」, 『교환과 경제의 고고학』 제4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 평택 사리 유적

곽수복(라온문화유산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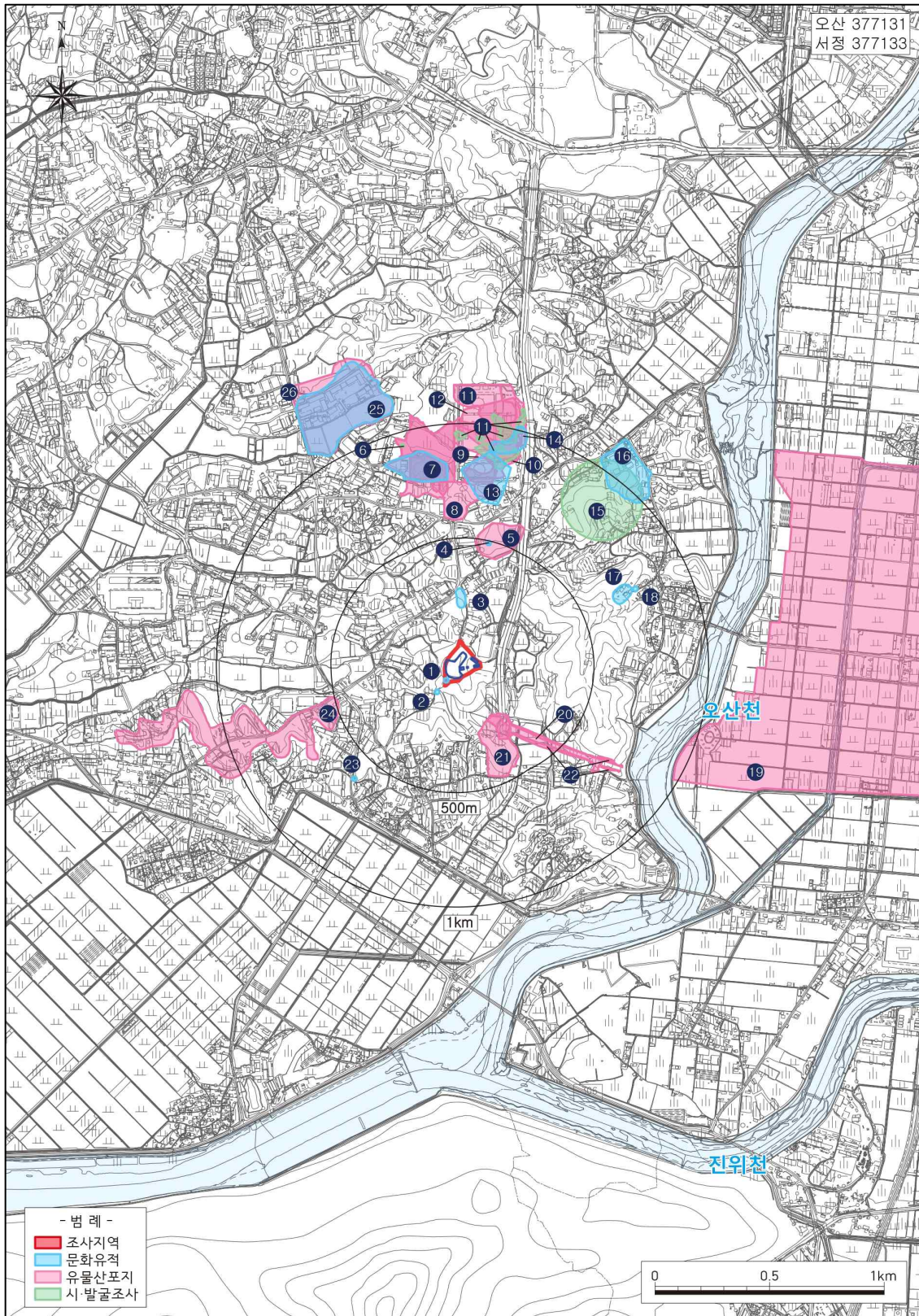
## I. 조사개요

평택 사리 유적은 경기도 화성시 서탄면 사리 산59번지 일원에 예정된 공장 증설부지에 대한 시·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은 오산천 우안에 넓게 형성된 저산성 구릉지대의 구릉 중 하나인 해발 65.6m 구릉에 위치한다. 조사지역의 지형은 구릉 정상부(해발 65.6m)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뺀 능선과 남동쪽으로 뺀 능선이 있고, 두 능선 사이에 곡간부가 자리하고 있다.

사업 시행에 앞서 실시한 시굴조사는 2023년 10월 10일~2023년 10월 25일(14일)까지 전체 사업부지 16,165㎡에 대해 총 64개소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한 결과, 구릉 능선부를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 환호 등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는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부분인 6,400㎡에 대해 2023년 11월 1일~2023년 12월 15일(45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릉 정상부에서 청동기시대 환구 1기((추정)고상건물지 1기), 구릉 능선부를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 9기, 지석묘 6기, 석관묘 1기, (추정)채석장 1개소 / 고려시대 석곽묘 1기, 토광묘 1기, 매납유구 1기 / 조선시대 주거지 1기, 회곽묘 4기 / 시대미상 수혈유구 1기, 아궁이시설 1기, 주혈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의 주변 유적은 '평택 수월암리 유적', '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평택 서탄면 마두리 194-9번지 공장신축부지 유적' 등의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중 '평택 수월암리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수혈, 지석묘, 추정 채석장 등이 조사되었고, '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은 청동기시대 주거지, 수혈유구, 고려시대 석곽묘, 조선시대 주거지, 가마 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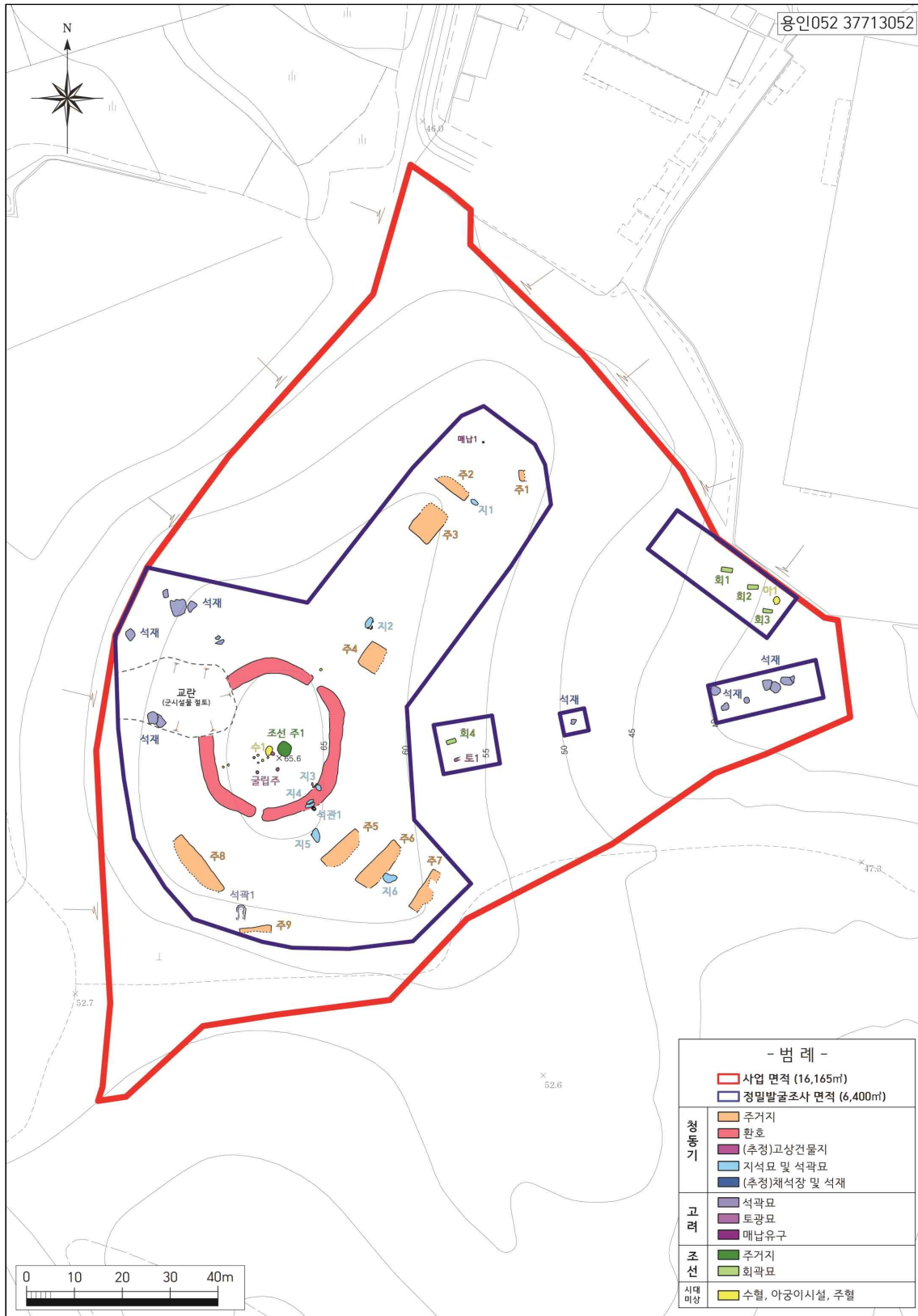
도면 1.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 유적 현황도 (S=1/25,000)



사진 1. 조사지역 전경(남동에서)



사진 2. 조사지역 전경(직상방, 아래가 남쪽)



도면 2. 발굴조사 유구현황도(S=1/1,200)

## II. 조사내용

### 1. 청동기시대 환구

청동기시대 환구는 해발 62m 구릉 정상부를 감싸는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남동사면 상단으로는 3, 4호 지석묘와 1호 석관묘가 환구 폐기 후 조성된 중복관계를 보인다.

환호의 전체 규모는 외부 직경(남북기준) 34.2m, 내부 직경 27.5m이며, 구의 너비는 230~380m, 깊이는 30~65cm이다. 단면형태는 대체로 'U'자형에 가까우나 서측 구간에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다 구 중앙부의 폭이 좁은 'V'을 보인다. 북동측 가지능선과 남측 사면부 방향으로 2개소의 출입시설이 확인되는데, 출입시설 너비는 65~67cm이다.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출입시설과 접하는 환구의 내부 바닥면을 다른 부분보다 깊게 굴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환구 내부 중앙에서 다수의 주혈들이 위치하는데 대부분 정형성은 없으나, 내부 퇴적토로 볼 때 환구와 동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주혈 4개가 고상 건물지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유물은 환호 내 바닥면을 따라 이중구연 단사선+횡침선문토기, 구순각목공렬토기 등의 토기류가 다량 출토되었으며, 석기는 석부편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들은 모두 환구 내 바닥면을 따라

청동기시대 환구 내에서 출토된 토기류와 시료 분석에 따른 절대연대(BP 2880±40, 2870±40)를 볼 때 청동기시대 주거지 중 전기 중반(1기)에 해당하는 2호~4호, 7호, 9호 주거지와 동 시기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주거지들은 환구와 일정 간격을 두고 조성

평택 사리 유적에서 조사된 환구는 인근의 화성 쌍송리 유적, 평택 용이·죽백동 유적 등에서도 조사되었는데, 이들 유적의 환구 성격이 방어보다는 의례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관계성이 주목된다.



사진 3. 청동기 환구 전경 (직상방, 아래가 남쪽)



사진 4. 청동기 환구 구간별 토층



사진 5. 청동기 환구 출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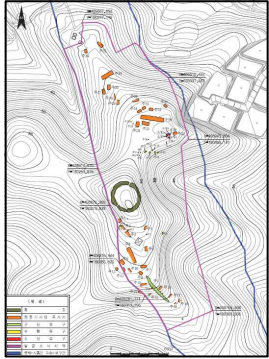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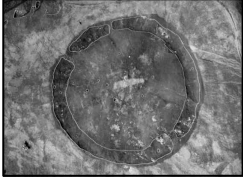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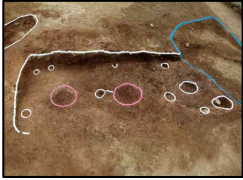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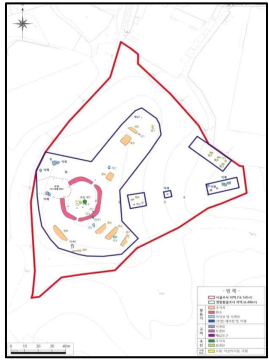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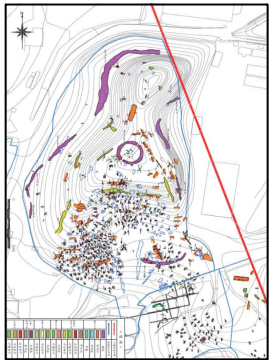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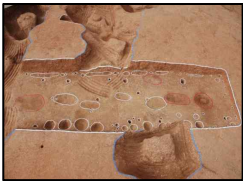


사진 6. 청동기 환구 내 유물 출토 양상



사진 7. 청동기 환구 내 구간별 출토유물 및 내부 (추정)고상건물지 전경

[표 1] 화성 쌍송리유적, 평택 사리유적, 평택 용이·죽백동유적 환구 비교표

유적	내용	유구 현황도	환구, 주거지
<p>화성 쌍송리 유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대 : 청동기 전기</li> <li>- 유구 : 환구 1, 주거지 36</li> <li>- 입지 : 환호(구릉 정상부) 주거지(능선 및 사면부)</li> <li>- 용도 : 의례공간</li> <li>- 주거지 군집 : 4개</li> </ul>		 <p>A지점(17지역) 환구</p>  <p>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p>
<p>평택 사리 유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대 : 청동기 전기</li> <li>- 유구 : 환구 1, 주거지 9, 지석묘 6</li> <li>- 입지 : 환호(구릉 정상부) 주거지(능선 및 사면부)</li> <li>- 용도 : 의례공간</li> <li>- 주거지 군집 : 3개</li> </ul>		 <p>환구</p>  <p>청동기시대 7호 주거지</p>
<p>평택 용이·죽백동 유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대 : 청동기 전기</li> <li>- 유구 : 환호(환구) 2, 주거지 90</li> <li>- 입지 : 환호(구릉 정상부) 주거지(능선 및 사면부)</li> <li>- 용도 : 의례공간</li> <li>- 주거지 군집 : 11개</li> </ul>		 <p>2-5지점 1호 환구</p>  <p>청동기 5호 주거지</p>

## 2. 청동기시대 주거지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총 9기가 조사되었다. 해발 57~59m 내외 구릉의 능선을 따라 자리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 5기, 방형 또는 장방형 4기이다. 구릉의 북동측 가지 능선에 방형 또는 장방형의 주거지 4기가 위치하고, 구릉 남동·남서사면에 세장방형 주거지 5기가 자리하고 있다. 내부시설은 노지, 주혈, 벽구시설, 저장혈 등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세장방형 주거지의 경우 중앙에 장축방향을 따라 2~3개의 무시설식 노지가 배치되어 있다. 주혈은 세장방형의 경우 중앙에 등간격으로 주혈이 배치되어 있으나, 장방형의 주거지는 대체로 산발적인 배치 양상을 보인다. 벽구시설은 일부 주거지에서 일부에만 얇게 조성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토기류와 석기류가 있다. 토기는 구순각목 또는 구순각목+공렬이 시문된 호, 발이 주류를 이루나, 3호 주거지에서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소량 확인된다. 현재 주거지 내에서 출토된 토기들에 대한 정리 및 복원이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기형과 문양 등은 추후에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석기는 어형석도, 무경식(삼각만입, 투공) 석촉, 이단경식 석촉, 석제 방추차, 지석, 미상석기 등 출토되었으며, 2호 주거지 내에서 다수의 토제 어망추가 확인되고 있다.

구릉 북동측 능선에 1호~4호 주거지가 자리한다. 2호 주거지는 대부분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노지 위치 등으로 볼 때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내부시설은 노지 2개와 주혈 2개만이 잔존하며, 남동벽에 치우쳐 20점의 토제 어망추와 석도, 지석이 출토되었다. 3호 주거지는 구릉 능선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조성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주거지의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내부시설은 주혈이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동측에 무문토기 발 1점을 직치한 저장혈 1개만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저장혈에서 무문토기 발 1점이 출토되었으며, 남서벽에 치우쳐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편, 구순각목공렬토기편, 석제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4호 주거지는 구릉 정상부와 가까운 능선부 남동사면에 위치한다. 하단부가 결실되었으나, 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 내부시설은 노지 1개가 약간 치우쳐 위치하며, 벽면을 따라 주혈이 배치되어 있다. 유물은 석기로 무경식(삼각만입, 투공) 석촉 1점과 이단경식 석촉 1점, 석제 방추차가 출토되었으며, 토기는 북서벽에 면해 구순각목공렬토기편, 무문토기 발 등이 출토되었다.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측 능선부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5호~9호 주거지가 자리하고 있다. 이 중 5호·6호·8호 주거지는 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보이고, 내부에 1~2개의 무시설식 노지와 중심주혈이 확인되고 있다. 7호 주거지는 현재 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보이나 노지와 벽면과의 이격거리가 다른 주거지들과 달리 넓어 대형의 장방형 주거지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표 2. 청동기시대 주거지 현황 (규모의 괄호는 잔존수치)

번호	규모 (길이×너비×깊이,cm)	평면형태	장축방향	내부시설	출토유물	절대연대 (BP)
1	225×(110)×14	방형?	남서-북동	-	-	-
2	(738)×(240)×33	(세)장방형	남동-북서	노지2, 주혈	토제 어망추, 어형석도, 석제 방추차, 지석	2820±40
3	730×535×20	장방형	남서-북동	주혈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편, 구순각목공렬토기편, 무문토기 발, 석제 방추차	-
4	570×(444)×35	장방형	남서-북동	노지1, 주혈	구순각목공렬토기 발, 무경식(삼각만입, 투공) 석촉, 이단경식 석촉	2890±40
5	988×(363)×42	세장방형	남서-북동	노지2, 주혈, 저장혈	무문토기편, 지석	2750±40
6	(1142)×(345)×57	세장방형	남서-북동	노지3, 주혈, 벽구	-	-
7	936×(322)×38	(세)장방형	남서-북동	노지1, 주혈	구순각목토기, 지석편	2890±40 2830±40
8	(1449)×(350)×87	세장방형	남동-북서	노지1, 주혈	무문토기편, 지석	2760±40
9	657×(132)×33	장방형?	동-서	주혈, 저장혈	무문토기편	2860±40 2880±40

청동기시대 주거지들은 모두 환구가 위치한 구릉 정상부에서 뿔어내린 능선들을 따라 조성되었으며, 중복 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거지들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보이고,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구순각목공렬토기가 공존하는 주거지들(1기-2호~4호, 7호, 9호)과 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구순각목공렬토기만 확인되는 주거지(2기-5호~6호, 8호)로 나뉘며,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값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주변 동 시기 유적들과 비교해보면, 대체로 청동기시대 전기 중반~후반에 걸쳐 조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3. 청동기시대 유구 현황도



사진 8. 청동기 2호 주거지 전경



사진 9. 청동기 2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10. 청동기 3호 주거지 전경



사진 11. 청동기 3호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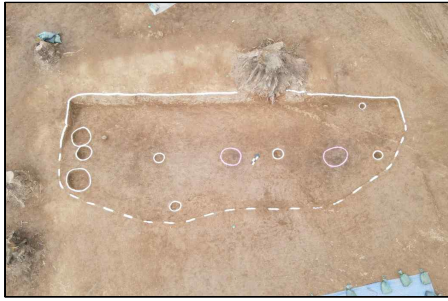


사진 12. 청동기 5호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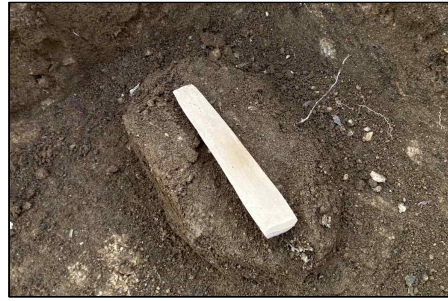


사진 13. 청동기 5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14. 청동기 7호 주거지 전경



사진 15. 청동기 7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16. 청동기 8호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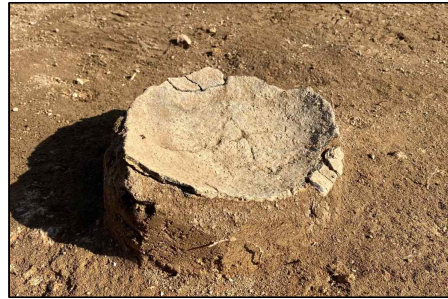


사진 17. 청동기 8호 주거지 출토유물

### 3. 청동기시대 지석묘 및 석관묘, 채석장

지석묘는 조사지역의 북동측 가지능선을 따라 2기가, 구릉 남동사면을 따라 4기가 열을 이루고 있다. 상석의 암질은 반상편정편마암이고, 형태는 타원형 내지 장방형을 이루나 치석이 거칠게 이루어졌다. 1호, 2호, 5호 지석묘의 경우 특별한 하부시설 없이 지석만 확인되었다. 3호, 4호, 6호 지석묘는 모두 개석식으로 하부에서 확인된 묘제는 모두 석관묘로 추정되며 굴착 후 바닥면에 1~2매의 판석을 깔 다음 일부 치석된 판재를 이용하여 벽석을 세웠다. 3호는 석관 내 상면에 있던 장방형 판석을 제거한 내부에서 다량의 목탄과 인골편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4호 지석묘의 석관 바닥면에서 석검의 병부와 신부가 파손되어 확인되었다. 조성 시기는 3호·4호 지석묘와 1호 석관묘가 환구를 파괴하고 조성된 점과 절대연대 값(3호 지석묘-BP 2500±40/1호 석관묘-BP 2430±40)으로 볼 때 환구와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석관묘는 4호 지석묘 하단에 연접하여 1기가 확인되었다.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보이며, 장축방향은 4호 지석묘와 같은 남동-북서방향이다. 석관의 벽석은 판석재와 할석을 이용하여 1~2단을 쌓았고, 묘광과 벽석 사이에 소형 할석으로 보강하였다. 유물은 석관 내부에서 반월형석도가 출토되었다. 석관 내부의 상면에 있던 장방형 판석을 제거한 하부에서 다량의 목탄과 인골편이 확인되었다.



사진 18. 청동기 지석묘, 석관묘 전경



사진 19. 청동기 4호 지석묘 상석 제거 전



사진 20. 청동기 4호 지석묘 상석 제거 후



사진 21. 4호 지석묘 출토유물(마제석검)



사진 22. 청동기 6호 지석묘 상석 제거 전



사진 23. 청동기 6호 지석묘 상석 제거 후



사진 24. 청동기 1호 석관묘 전경



사진 25. 청동기 1호 석관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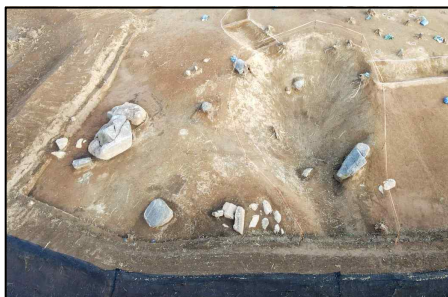


사진 26. (추정)채석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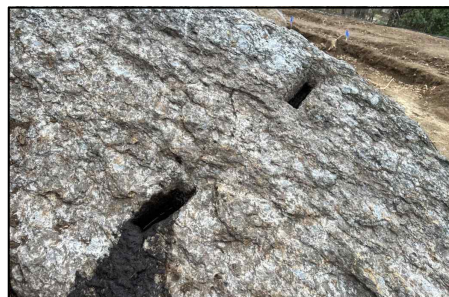


사진 27. (추정)채석장 석재 빼기흔

채석장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구릉의 서측 사면에 위치한다. 사면을 따라 다량의 암석이 산재하고 있으며, 괴석 형태 또는 일부 치석한 지석묘의 개석과 동일한 암질과 형태의 암석들이 확인된다. 일부 암석에는 인공적인 썰기흔이 3개소에서 10여 건이 확인된다.

### Ⅲ. 조사성과

평택 사리 유적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사리 산59번지에 예정된 공장건물 증설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유구는 청동기시대 환구 1기, 구릉 능선부를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 9기, 지석묘 6기, 석관묘 1기, (추정)채석장 1개소 / 고려시대 석곽묘 1기, 토광묘 1기, 매납유구 1기 / 조선시대 주거지 1기, 화곽묘 4기 / 시대미상 수혈유구 1기, 아궁이시설 1기, 주혈 12기 등 조사되었다.

평택 사리 유적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유구들은 조사지역과 인접한 평택 수월암리 유적, 평택 서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등에서 동 시기의 주거지와 지석묘 등이 조사되어 연관성을 보인다. 또한 구릉 정상부의 환구는 청동기시대 전기 단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근래에 화성 쌍송리 유적, 평택 용이·죽백동 유적, 천안 성성동 37-3번지 유적, 당진 수청동 유적 등에서도 조사되는 등 주변지역 조망이 용이한 구릉 정상부에 조성되는 예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 유적의 환구 성격이 방어보다는 의례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관계성이 주목된다.

## 평택 세교동 은실 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정 경 훈<sup>26)</sup>

I. 머리말 II. 유적 현황	III. 조사내용 IV. 조사성과
---------------------	-----------------------

### I. 머리말

평택 은실 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은 평택시 공원과에서 추진 중인 근린공원 조성에 앞서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2019년 03월 기남문화재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유물산포지 2개소, 유물출토지 4개소, 유적분포 가능지 2개소의 유존지역이 확인되었다.<sup>27)</sup>

사업대상지는 1번 국도 경기대로를 기준으로 남서쪽 지역은 1공구, 북동쪽 지역은 2공구 나뉘는데, 2023년 도원문화재연구원에서 1공구 내 유존지역에 대한 표본,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은실근린공원 유물산포지1' 시굴조사에 Tr. 2, 4, 5번에서 총 3기의 분묘와 Tr. 3, 4번에서 2기의 추정 주거지 등이 확인되었고, '은실근린공원 유물출토지2' 표본조사에서 구릉 사면 상단에 설치한 Tr. 4, 5, 6, 8번에서 총 4기의 분묘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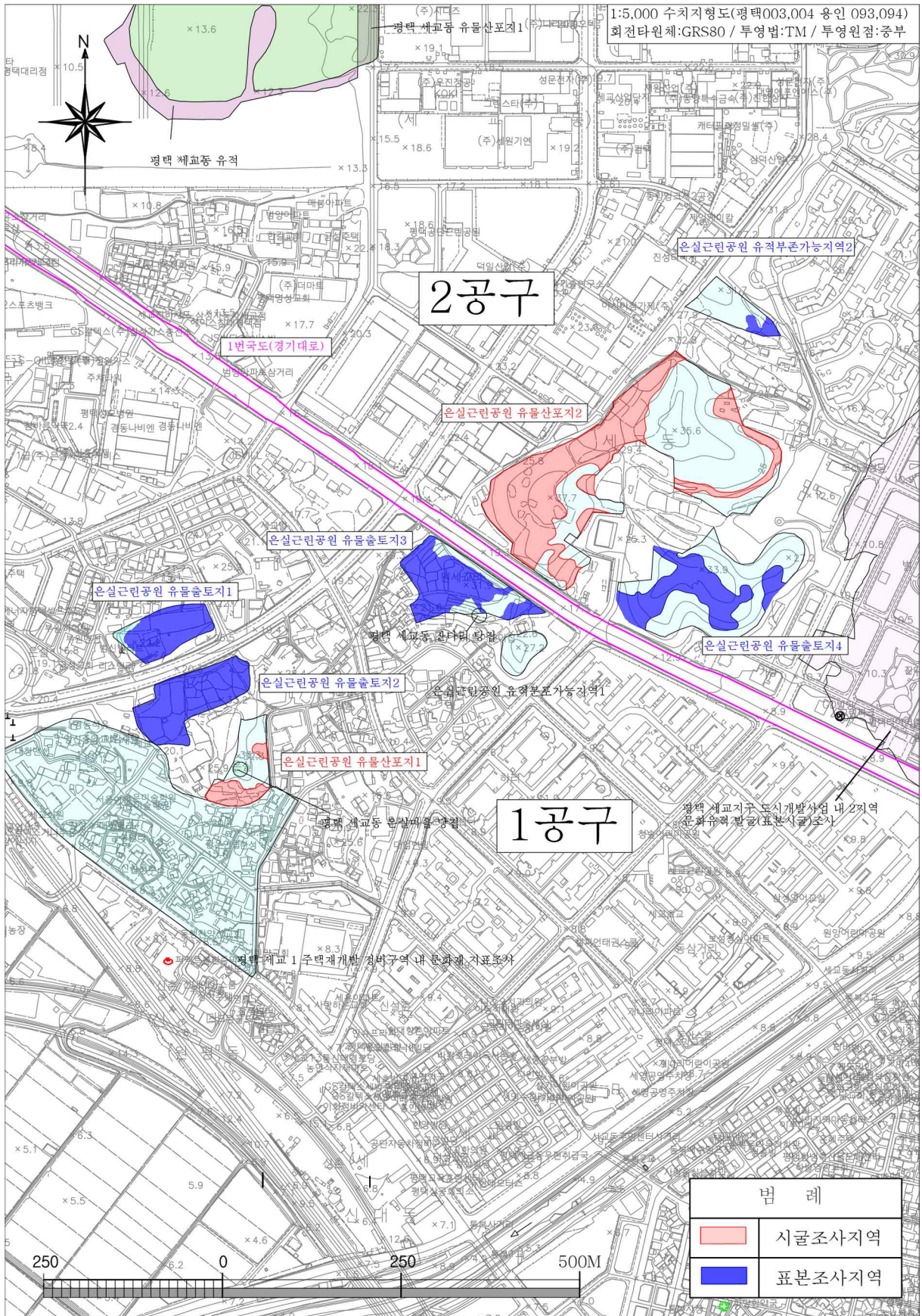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한 학술자문회의에서 유구가 확인된 트렌치를 중심으로 정밀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23년 09월 6일 발굴변경허가를 득하여 2023년 09월 12일부터 2024년 01월 05일(실 조사일수 69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조사는 '은실근린공원 유물산포지1(발굴조사 1지점)'과 '은실근린공원 유물출토지2(발굴조사 2지점)'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 II. 유적 현황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산 99번지 일원에 해당한다. 해발 약 50m 이내의 낮고 완만한 구릉지대로 원지형은 북동-남서쪽으로 능선이 이어지고 있으나 경기대로가 개설되면서 능선은 단절된 상태이다. 북동쪽으로 팔용산(해발 약 138m)의 지맥이 남서쪽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점차 축소되어 소구릉군으로, 구릉성 침식평야를 이루고 있다. 서쪽의 평야는 대부분 논 경작지로 이용 중이고, 조사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택지개발 등으로 소구릉지는 대부분 평탄화되어 주택과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된다.

26) 도원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27) 기남문화재연구원, 2019, 『평택시 은실근린공원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지도 1. 평택 은실근린공원 유존지역 현황도(1/25,000)

발굴조사 1지점은 소구릉지의 남사면과 동사면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경작지 및 묘역조성으로 인해 사면부가 계단식으로 형질변경 되었다.

발굴조사 2지점은 1지점이 위치하는 소구릉지의 북쪽 능선 정상부와 사면에 해당한다. 구릉의 정상부 일대는 전체적으로 계단식 경작지가 조성되어있고, 서쪽 사면 말단부는 비교적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조사지역 주변 1km 이내에서 발굴조사 된 유적으로는 금번 사업범위 동쪽 경계지역에 인접하여 '평택 세교동 모산골 유적'과 서쪽으로 '평택 장당동 · 신대동 유적' 북쪽으로는 '평택 세교동 유적'이 위치한다.

평택 세교동 모산골 유적에서는 원삼국시대 주거지 42기, 수혈유구 234기, 건물지 1동, 대벽건물지 2동, 굴립주건물지 93동, 구상유구 97기, 주공열 9기, 주공군 2기, 매납유구 19기, 미상유구 1기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석곽묘 2기, 토광묘 56기 등 총 558기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심발형토기, 직구호, 단경호, 장란형토기, 시루편, 대형 옹, 기와 등이 수습되고 있어 유적의 조성시기는 대략 4세기대로 추정된다.<sup>28)</sup>

평택 신대동 유적은 조선시대 생활유적으로 주거지 7기, 수혈 13기, 구상유구 6기, 소성유구 3기, 굴립주 3기 등 모두 32기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유물은 도기 38점, 자기 176점, 기와 11점, 석기13점, 철기 12점, 토제품 2점 등 총 252점이 출토되었다.<sup>29)</sup>

평택 세교동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토광묘 6기, 옹관묘 2기, 조선시대 토광묘 36기, 회곽묘 1기, 수혈유구 1기, 토광묘 8기와 회곽묘 1기, 수혈유구 6기 등 총 15기 등 총 61기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유물은 원저호, 이중구연 토기, 옹형토기, 광견호 등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원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유적으로 확인되었다.<sup>30)</sup>

28) 가경고고학연구소, 2019, 『평택 세교동 모산골유적』.

29)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2013, 『평택 장당동 · 신대동유적』.

30) 한성문화재연구원, 2021, 『평택 세교동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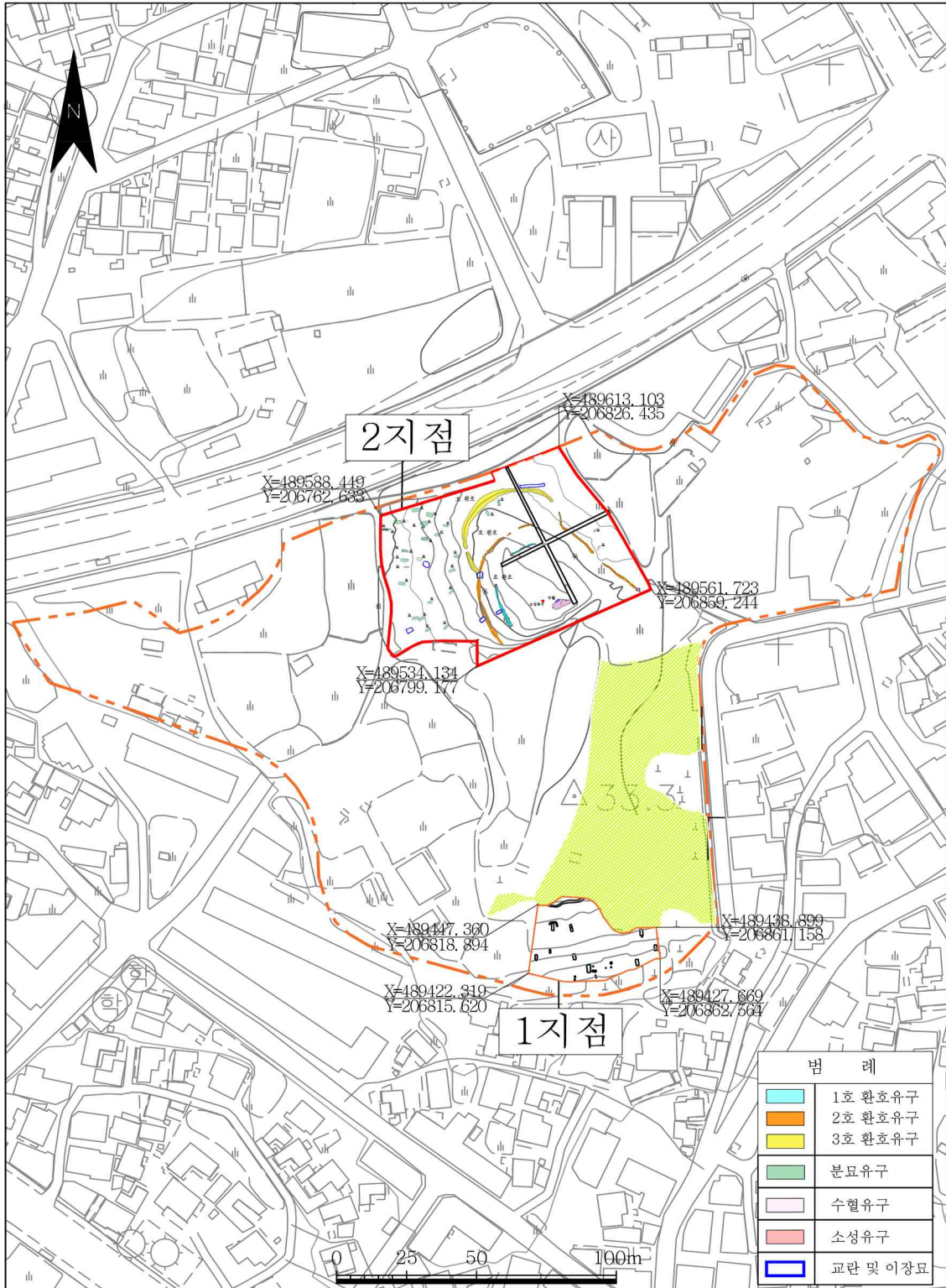


1. 평택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2. 평택 세교동 유적
3. 평택 동삭동 410-1번지 유적(4지점)
4. 평택 동삭동 410-1번지 유적(5지점)
5. 평택 동삭동 410-1번지 유적(6지점)
6. 평택 세교동 모산골 유적 I(1지점)
7. 평택 세교동 모산골 유적 I(2,3,6지점)
8. 평택 세교동 모산골 유적 I(4지점)
9. 평택 세교동 모산골 유적 I(5지점)
10.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2지역 문화유적 발굴(표본시굴)조사
11. 평택 세교동 모산골 유적 2차(1지점)
12. 평택 세교동 모산골 유적 2차(2지점)
13. 평택 동삭동 경작유적
14. 평택 장당동 · 신대동유적

지도 2.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 발굴조사 지역 현황도(1/25,000)

평택시 은실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1공구) 문화재 발굴조사 현황도

S = 1/2,000



※ ①투영법:TM ②방위:도북 ③투영원점:중부원점 ④본 좌표는 GRS80(X:600,000 Y:200,000)좌표임.

도면 1. 발굴조사 현황도(1/2,000)

### Ⅲ.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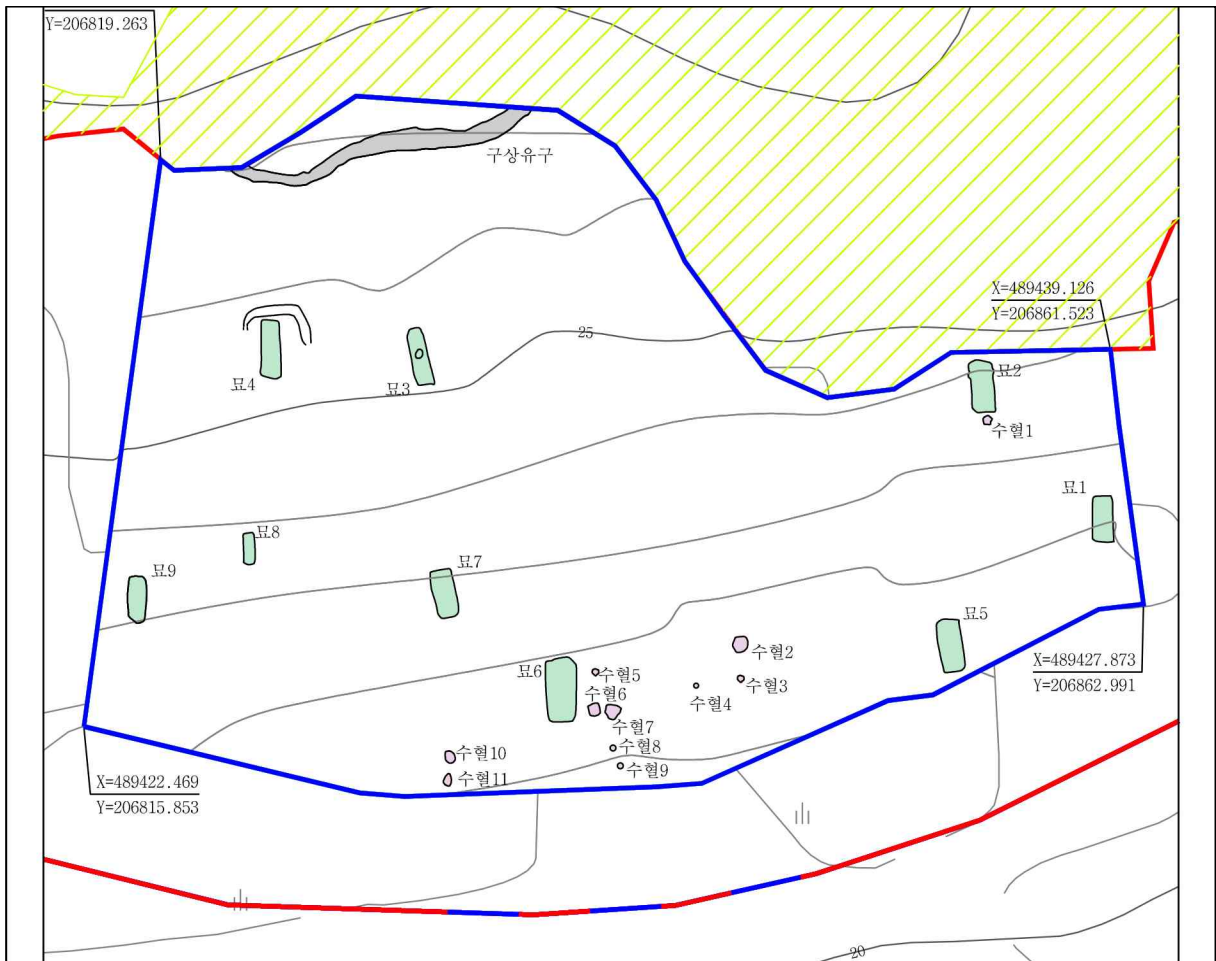
#### 1. 1지점

1지점에 대한 조사결과, 분묘 9기, 구상유구 1기, 수혈유구 11기 등 총 21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분묘는 모두 등고선과 직교하는 남향으로 토광묘와 회곽묘(5호)가 확인되었다.

3호 묘는 중앙 바닥에 원형의 요갱을 시설하였고, 요갱 내부에서 도기 명기 1점이 출토되었다. 6호 묘는 남쪽 하단 바닥에서 청동 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2호와 5호 묘에서는 관재와 인골이 확인되었다.

구상유구는 조사지역 북쪽 경계에서 1기가 확인된다. 구상유구는 동-서 방향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진행하며 북쪽 임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상유구 동쪽 바닥 내부에서는 조선시대 도기 저부편과 동체부편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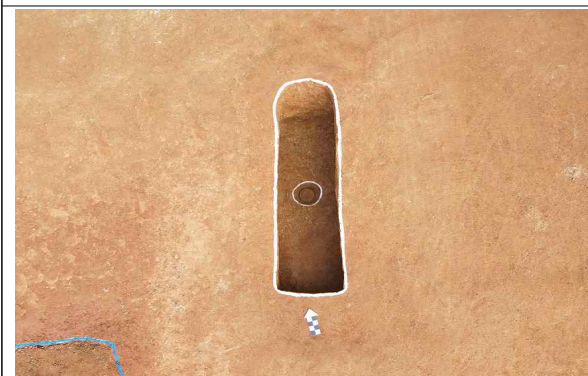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중앙 남쪽 경계지역 일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 평면 원형에 가깝다. 일부 수혈은 목탄이 섞인 내부토와 깊이 등으로 판단할 때 기둥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2. 평택 은실근린공원 발굴조사 1지점 결과 현황도(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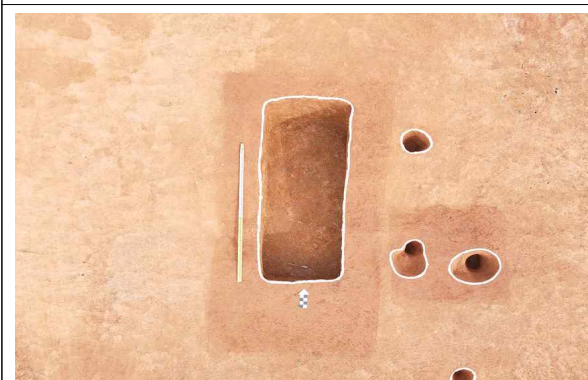
발굴조사 1지점 조사 완료 후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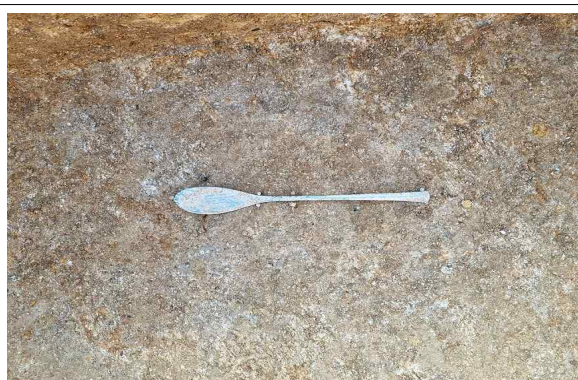
3호묘 조사완료 전경



3호묘 요갱 내 유물



6호묘 조사완료 전경



6호묘 청동 숟가락 출토모습

## 2. 2지점

2지점의 발굴조사 결과 삼중으로 조성된 초기 철기시대의 환호와 소성유구(노지) 1기, 수혈유구 1기, 고려~조선시대의 분묘유구 28기 등이 확인되었다.

환호는 해발 약 28~32m 사이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를 감싸고 도는 테뫼식이다. 총 3조의 환호가 확인되었다. 구릉 최상부의 1호는 단독으로 조성되었고, 2호는 최초 조성 후 북쪽으로 3호 환호를 덧대어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적인 형태는 구릉을 감싸고 도는 원형 계열로 추정되지만, 구릉 남쪽 지형이 경작 등의 행위로 인해 절토되어 전체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유구는 지표층 아래 10~30cm 이내에서 확인되고, 풍화암반과 갈색 점질토의 기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벽면은 사선으로 굴착하였고, 단면형태는 'U'자형과 'V'자형, 역사다리꼴이다.

1호 환호는 구릉의 가장 높은 해발 약 30~32m 사이에 위치하는데, 경작지 개간 등으로 인해 원지형이 대부분 삭평되어 북쪽과 서쪽 일부 구간만 남아있다. 유구의 크기는 둘레 약 37.35m, 너비 약 0.5~1.3m, 깊이 최대 약 0.7m이다.

2호 환호는 해발 약 28~31m 사이에 위치하고, 남쪽 구간은 절토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환호의 서쪽 구간에서 환호 내부에 불을 피웠던 흔적이 확인된다. 유구의 크기는 직경 약 46m, 너비 약 0.5~1.8m, 깊이 최대 약 0.8m이다.

3호 환호는 2호 환호의 북쪽에 덧대어 조성되었다. 2호와 3호가 만나는 지점은 삭평되거나 현대 묘가 조성되면서 훼손되어 층위를 통한 유구의 해석은 어려운 상황이다. 유구의 크기는 직경 약 36m, 너비 약 1.4~2.5m, 깊이 최대 약 1.6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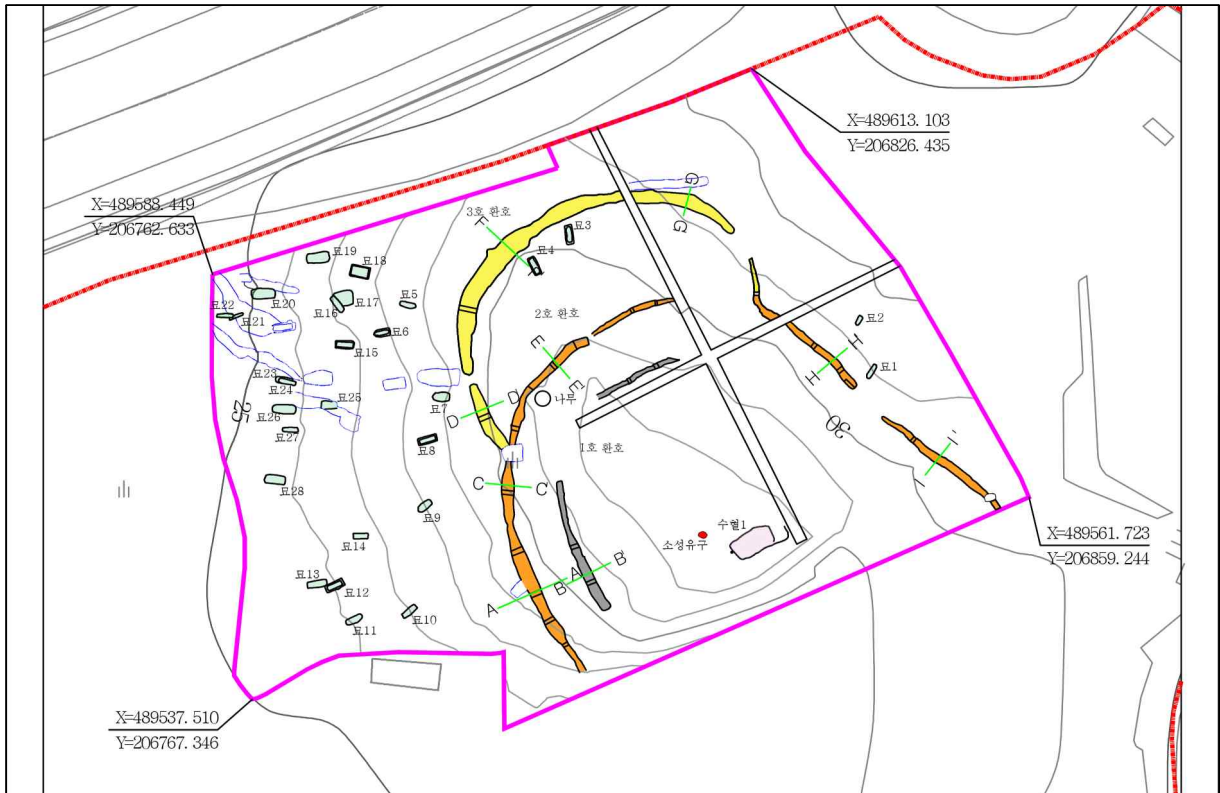
2호 환호의 동쪽 구간에 한 곳과 3호 환호의 동쪽과 서쪽 구간에 각 한 곳, 총 세 지점에 출입시설로 추정되는 단절 구간이 확인된다. 출입시설로 추정되는 곳의 폭은 2호 환호가 4.8m, 3호 환호는 1.8~3.7m이다.

유물은 내부 조사과정에서 흑도 저부편, 무문토기 편, 두형토기 대각 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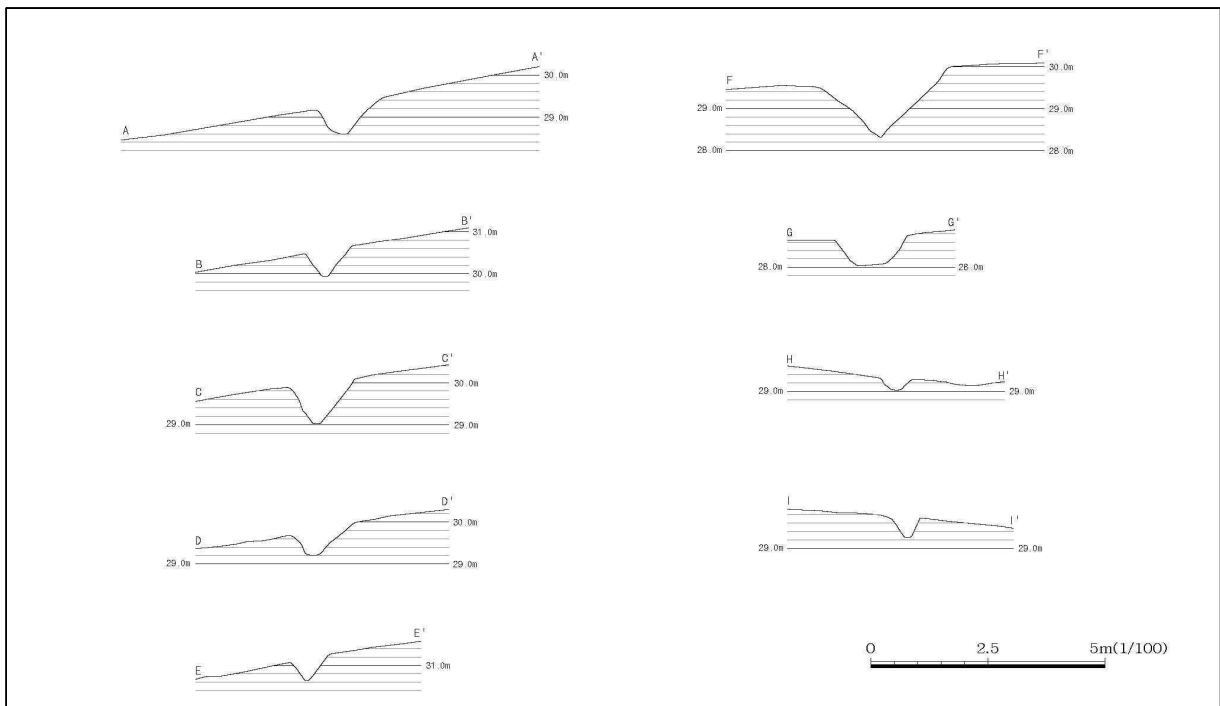
1호 환호 내부(구릉 정상부)에 수혈유구 1기와 수혈유구 북쪽에 인접하여 바닥만 남아 있는 원형의 소성유구(노지) 1기가 확인된다. 수혈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동쪽으로 출입시설이나 확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돌출된 구간이 확인된다. 벽면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고,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형태이다. 어깨선 아래 약 40cm에서 점토를 이용한 다짐층이 확인되고, 회색의 점토 덩어리와 목탄이 혼입된 부정형의 흔적이 확인된다. 유구 내부 동쪽 바닥으로 부정형의 수혈이 확인되는데, 바닥은 약간 움푹한 형태이다. 유구의 크기는 단축 약 1.6m, 장축 약 5m, 깊이 약 0.7m이고, 동쪽의 돌출된 구간은 약 1.7m이며, 깊이는 약 0.7m이다. 소성유구(노지)는 바닥만 남아있다.

유물은 조사 중 내부토 상부에서 미완성 석기 1점과 다짐층 상부에서 흑도 동체부와 저부편, 내부수혈 남쪽 벽가에서 흑도 저부편 등이 출토되었다.

분묘유구는 총 28기가 확인되는데 대부분 구릉의 서쪽 사면을 따라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모두 등고선과 직교한다. 유물이 확인되는 분묘는 17호가 유일하며, 서쪽 바닥으로 청동발 1점과 청동 손가락 2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3. 평택 은실근린공원 발굴조사 2지점 결과 현황도(1/800)



도면 4. 평택 은실근린공원 발굴조사 2지점 환호유구 단면도



발굴조사 2지점 조사 완료 후 원경



환호 전경(북쪽에서)



3호 환호 전경(동쪽에서)



3호 환호 전경(남쪽에서)



1, 2호 환호 서쪽구간 전경



1호 환호유구 서쪽 내부 토층



1호 환호유구 서쪽 내부 횡 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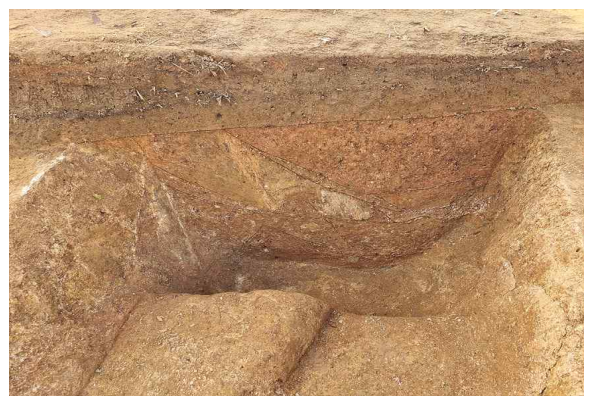
2호 환호유구 서쪽 토층



2, 3호 환호 중복구간 전경



3호 환호 서쪽 출입구 토층



3호 환호 기준토층



3호 환호 북동쪽 토층



3호 환호 서쪽 출입구 토층



수혈유구 1차 조사 중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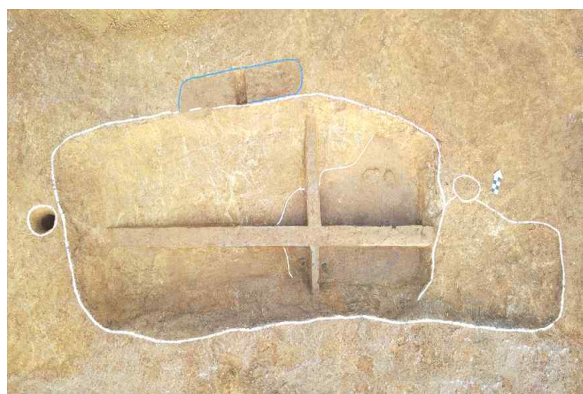
수혈유구 단축 토층



수혈유구 장축 토층



수혈유구 2차 조사 중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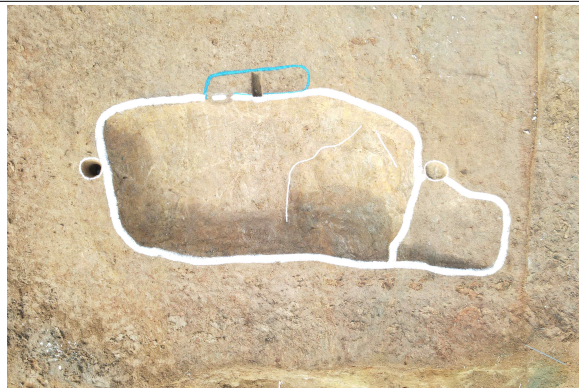
수혈유구 3차 조사 중 전경



수혈유구 4차 조사 중 전경



수혈유구 내부수혈 토층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

#### IV. 조사성과

금번 조사는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공원과)에서 계획 중인 은실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1공구)에 대한 발굴조사이다. 발굴조사는 2023년 09월 12일 착수하여 2024년 01월 05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 초기철기시대 환호와 고려~조선시대 분묘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환호는 해발 약 28~32m 사이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를 3중으로 감싸고 도는 형태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구릉을 감싸고 도는 원형 계열로 추정되지만, 구릉 남쪽 지형이 절토되어 정확한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기반토를 사선으로 굴착하였고, 단면형태는 'U'자형과 'V'자형, 역사다리꼴이다. 2호 환호의 동쪽 구간과 3호 환호의 동쪽과 서쪽 구간으로 총 세 곳의 출입시설로 추정되는 단절 구간이 확인된다.

환호 내부, 구릉 정상부에 용도 미상의 수혈유구 1기와 소성유구(노지) 1기가 확인된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동쪽으로 출입시설이나 확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돌출된 구간이 확인된다. 내부 조사에서 바닥 상부로 점토 다짐층과 일부 목탄이 혼입된 소결흔, 고운사질의 백토 덩어리가 확인되는 점과 확장구간과 중간 다짐층의 높이가 비슷한 점 등으로 볼 때, 2번 이상 재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내부에 노지 등과 같은 시설물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주거 용도 보다는 다른 용도의 유구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성유구는 원형으로 바닥만 남아있고, 야외 노지일 가능성이 있다.

유물은 환호와 수혈 내부에서 흑도 저부편, 무문토기 편, 두형토기 대각 편 등이 출토된 점으로 보아 환호와 동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유적의 시기는 원형점토대토기, 조합식 우각형파수부호, 양파 모양의 흑도 장경호 몸통 등으로 보아 기원전 5~4세기에 조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평택지역에서 확인된 환호유적은 용이동, 화양리 및 최근에 조사된 사리유적이 있지만 모두 청동기시대에 해당한다. 금번에 조사된 세교동 환호는 원형점토대토기가 나온 초기철기시대 환호로서 평택에서는 처음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시차를 두고 삼중으로 조성한 점 또한 독특한 사례이다. 향후 인근의 오산 누읍동 등 중복 사용례의 환호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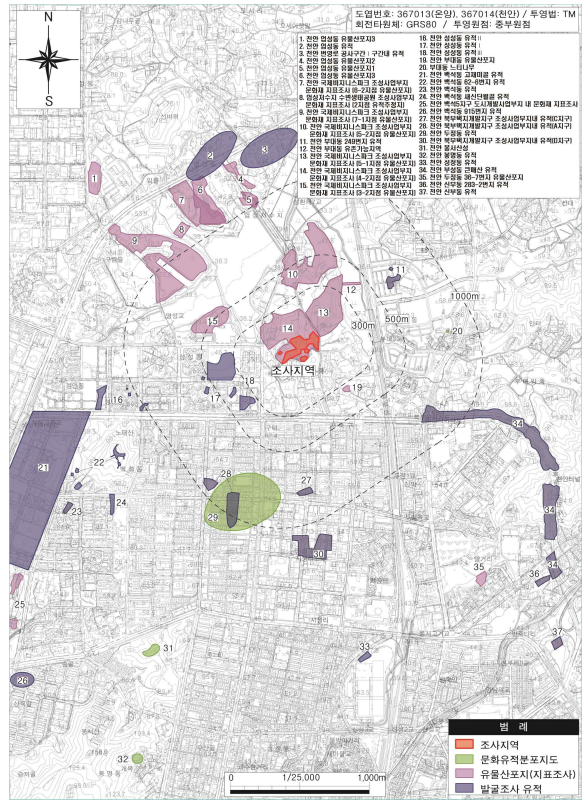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호에 대해서는 매장유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지보존이 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평택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환호와 앞으로 조사될 환호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 유적이 훼손되지 않고 보전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겠다.

# 천안 성성동 37-3번지 유적

소준섭(중원문화유산연구원)

## I. 조사개요

1. 조사명칭 : 천안 성성동(37-3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2. 조사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7-3번지 일원
3. 조사유형 : 정밀발굴조사  
(허가 제2023-1229호)
4. 조사기간 : 2023년 10월 12일 ~ 2024년 06월 14일
5. 조사면적 : 시 굴 조 사 - 47,604㎡  
정밀발굴조사 - 24,000㎡
6. 조사기관 : (재)중원문화유산연구원
7. 의뢰기관 : 신한자산신탁(주)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 및 주변유적

표 1. 천안 성성동 37-3번지 유적 유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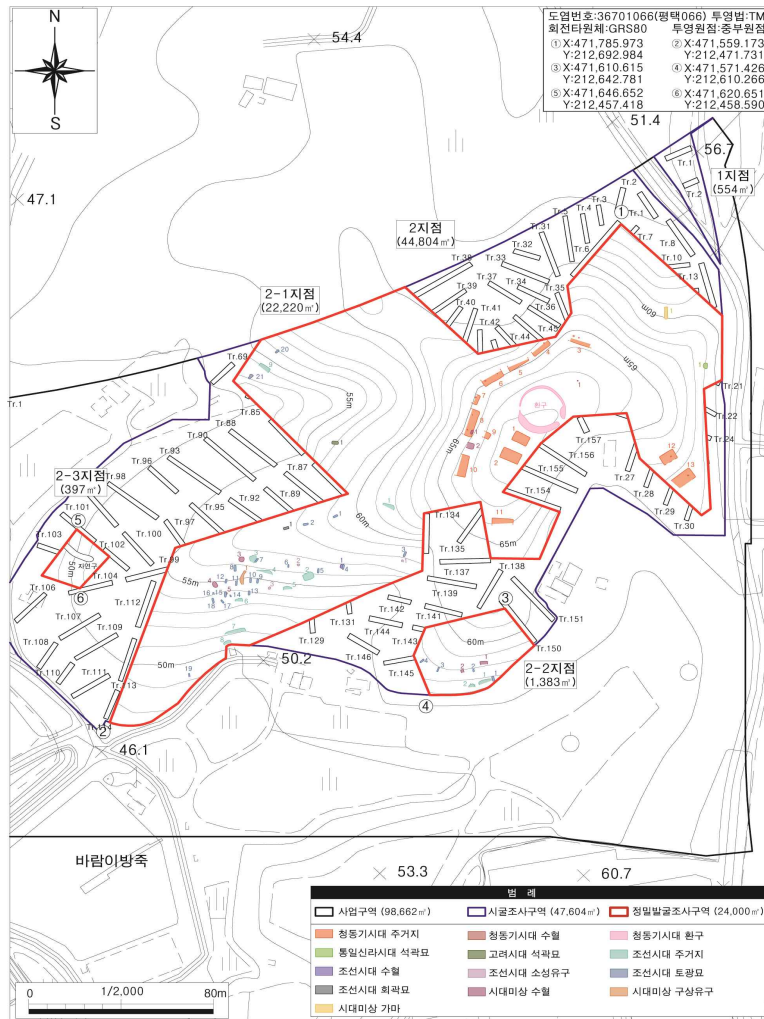
지점명	조사면적 (㎡)		청동기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시대미상			계
	시굴	정밀발굴	환구	주거지	수혈	석곽묘	석곽묘	주거지	수혈	손성유구	토광묘	회곽묘	수혈	가마	구상유구	
1	554	.	.	.	.	.	.	.	.	.	.	.	.	.	.	.
2	44,804	22,220	1	13	1	1	1	9	1	3	21	1	5	1	1	59
		1,383	.	.	.	.	.	.	2	.	.	4	.	2	.	8
		397	.	.	.	.	.	.	.	.	.	.	.	.	.	.
3	2,246	.	.	.	.	.	.	.	.	.	.	.	.	.	.	
계	47,604	24,000	1	13	1	1	1	11	1	3	25	1	7	1	1	67



사진 1. 조사지역 주변 모습(위성사진)



사진 2. 조사지역 원경(서쪽에서)



도면 2. 천안 성성동 37-3번지 유적 현황도

## II. 유적의 입지와 환경

유적이 자리한 성성동은 천안시의 북쪽에 위치하며, 남쪽과 서쪽은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어 아파트 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북동쪽으로는 성성호수공원(업성저수지)이 자리한다. 성성호수를 중심으로 북쪽과 동쪽으로는 해발 70m 내외의 낮은 구릉이 곳곳에 산재하고, 구릉 주변으로는 자연마을과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다. 하천은 성성호수에서 발원한 성환천이 북류하여 평택시 평공리에서 안성천과 합류하여 주변에 넓게 형성된 농경지를 관개한다.

현재 유적 주변일대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지형변화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에 유적의 입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과거의 항공사진과 지형도를 살펴보았다.

과거의 성성동 일대는 노태산(해발 141.1m)을 중심으로 여러방향의 가지능선이 형성되어 있다. 이 중 동쪽에 자리한 북서향의 구릉은 중앙부분이 해발 68.8m 정도의 정상부를 형성하고 있고, 사방으로 짧은 가지능선을 이루며 완만한 경사를 형성하였다. 유적은 능선의 중앙부분인 해발이 높은 곳에 위치한다. 한편, 능선의 북쪽부분은 과거 북동-남서방향의 곡간부가 형성되면서 중앙으로 성환천이 흘렀는데, 1972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업성저수지(성성호수)를 축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III. 조사내용

유적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유구는 환구 1기, 주거지 13기, 수혈 1기 등 모두 15기이다. 이들 유구는 구릉 정상부와 남동향 능선부에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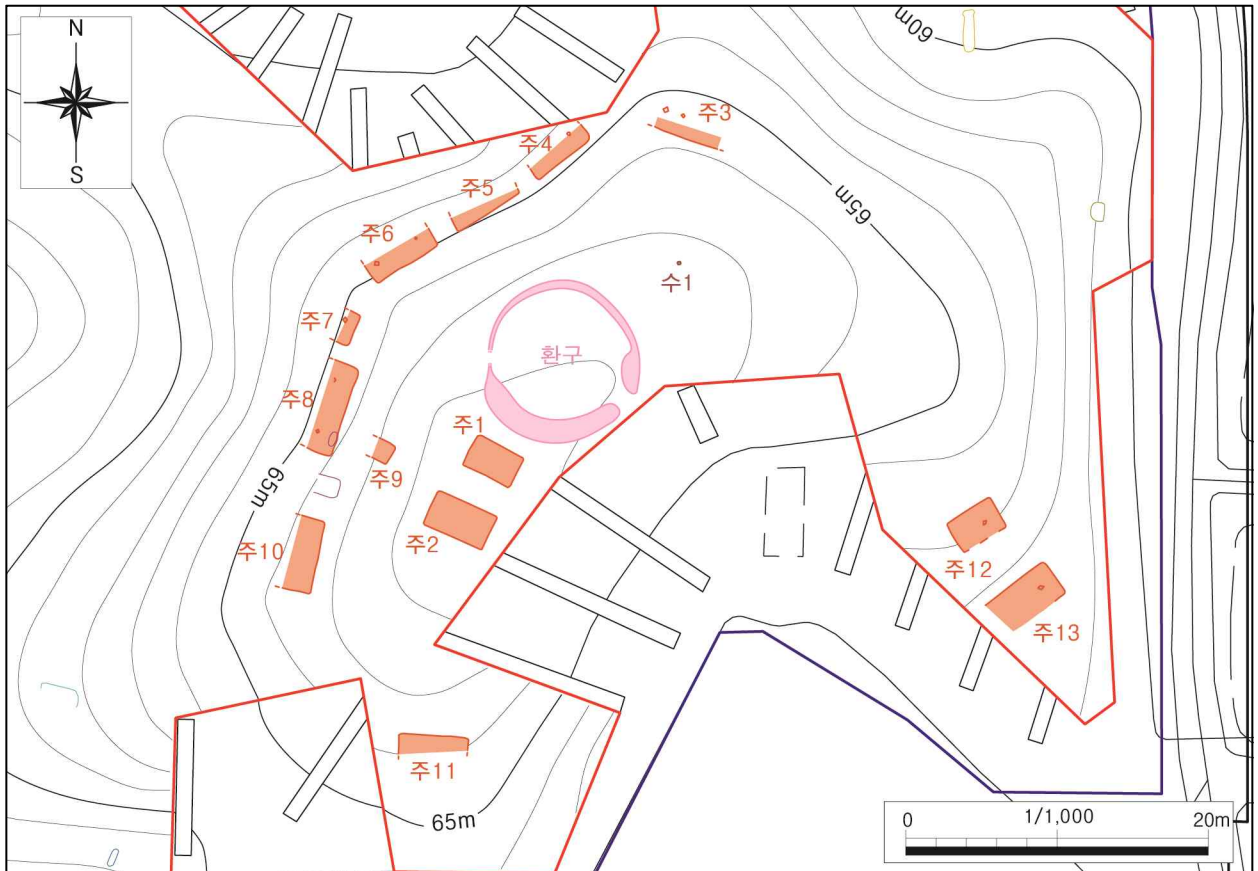
### 1. 청동기시대 환구

환구는 구릉 말단 정상부(해발 68.8m)에 위치하며, 정상부를 환형으로 감싸는 형태이다. 환구가 위치한 곳은 주변의 구릉보다 해발이 높은 곳으로 북쪽의 성환천 일대를 관망하기 좋은 입지를 가진다.

평면형태는 원형이지만, 북쪽 1/2가량은 근래 지형삭평으로 인하여 유구의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규모는 외경 20~21.6m, 내경 17.4m, 최대 폭은 3.14m, 최대 깊이는 1.01m 정도이며, 단면형태는 완만한 'V'자형이다.

내부 토층양상(사진 3-③ 참조)은 크게 5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바닥면부터 명황갈색 사질토(①)-암적갈색 사질점토(②)-흑갈색 점질토(③)-암황갈색 사질점토(④)-명적갈색 사질점토(⑤) 순으로 퇴적되어 있다. 퇴적양상은 환구가 조성된 시점부터 적어도 4차례의 큰 변화가 확인되는데, ②번 또는 ③번 층위에서만 유물이 출토되어 토층의 변화가 환구의 재사용과 관련한 변화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환구의 남동쪽 부분에는 단절부가 1개소 확인되는데, 환구의 안팎을 오가기 위한 출입



도면 3. 청동기시대 유구(환구·주거지) 배치도(1/1,000)

시설로 추정된다. 출입시설은 부가적인 시설이 확인되지 않으며, 환구 일부 구간을 굴착하지 않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출입시설의 너비는 약 2.65m 이다. 한편 출입시설 양쪽의 환구 내부 바닥면에는 15cm 정도 내외의 부정형 할석이 집중적으로 놓여 있으며, 그 주변으로는 목탄재가 혼입된 회백색 니질토가 5cm 정도 퇴적되어 있다. 할석의 밀집도는 출입시설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지며 바닥에서 떠서 확인된다.

환구의 안쪽 공간은 절반가량 삭평되었으나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공지(空地)로 추정된다.

유물은 환구 내부 바닥면에서 약간 뜬 상태로 무문토기 저부편 2점만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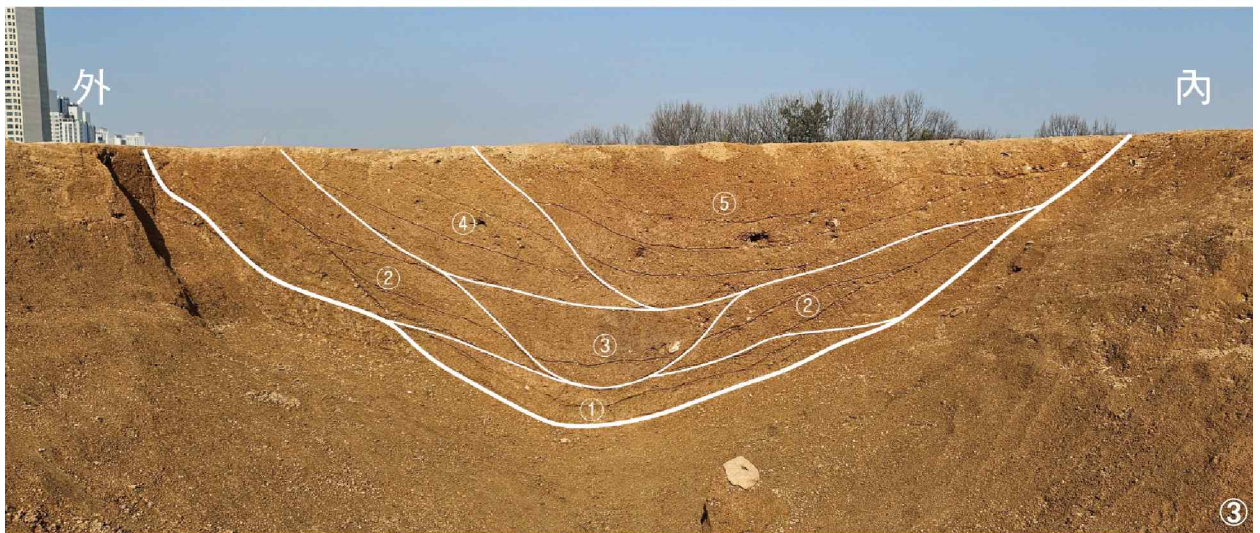


사진 3. 청동기시대 환구 ①전경, ②단면상태, ③토층



사진 4. 청동기시대 환구 ①·②출입구 모습, ③·④출입구 양측 내부 모습, ⑤내부바닥 세부, ⑥유물노출상태

## 2. 청동기시대 주거지

주거지는 모두 13기이며, 이 중 환구를 중심으로 11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2기(1호, 2호)는 정상부의 평탄면에, 나머지 9기는 환구의 북쪽부터 남서쪽까지 열상으로 정연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2기는 정상부에서 동남향으로 내려오는 능선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정상부 평탄면에 위치한 1호와 2호 주거지를 제외하고 하단부가 유실되었으나, 잔존상태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 장방형으로 판단되고, 이 중 7호와 9호 주거지는 방형으로 추정된다. 주거지는 황적갈색 또는 적갈색 풍화암반토를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고, 바닥면은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화재에 의해 폐기되었

다.

내부시설은 노지, 벽구, 저장공, 주공 및 벽주공 등이 확인된다. 노지는 무시설식으로



사진 6.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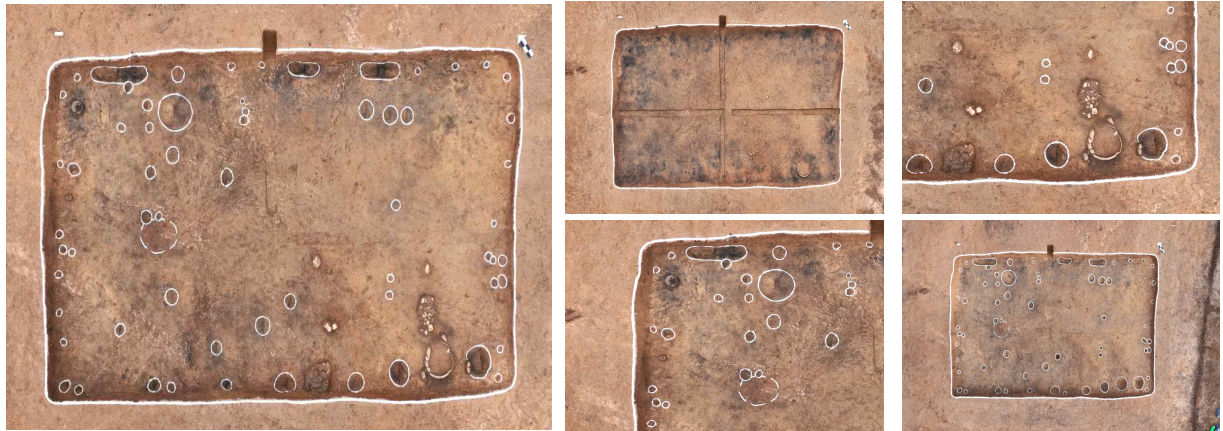


사진 7.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



사진 8. 청동기시대 5호 주거지



사진 9. 청동기시대 6호 주거지

평지식과 수혈식으로 확인되는데, 평지식 노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1개가 배치되어 있는 주거지는 6기(1·2·4·7·9·12·13호), 중앙에서 양쪽으로 2개가 배치되어 있는 주거지는 2기(6·8호), 수혈식과 평지식이 같이 배치되어 있는 주거지는 2기(10·11호)이다. 3호 주거지의 경우 평지식 노지가 한쪽에 치우쳐 2개가 확인되는데, 잔존한 배치로 보아 노지가 더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들 노지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원형으로, 평균 5~10cm 정도 두께로 피열되어 있고, 일부 노지 주변에는 취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공이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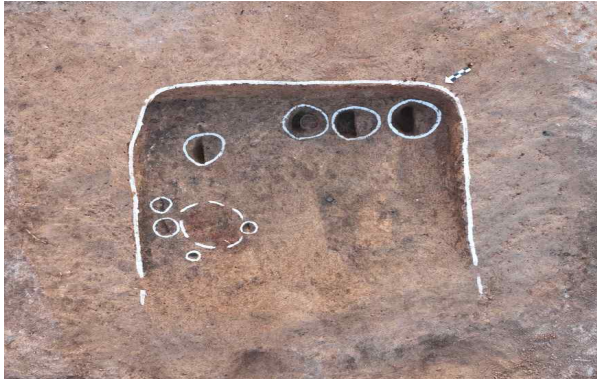


사진 10. 청동기시대 9호 주거지



사진 11. 청동기시대 10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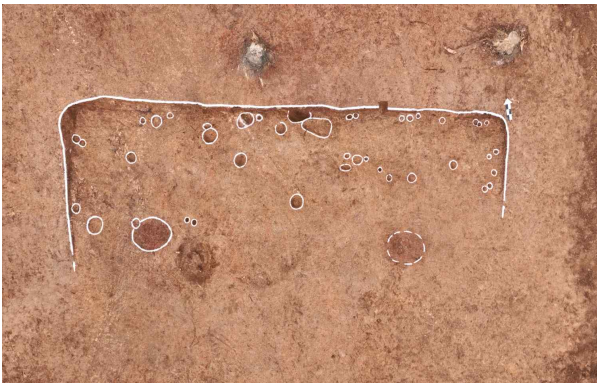


사진 12. 청동기시대 11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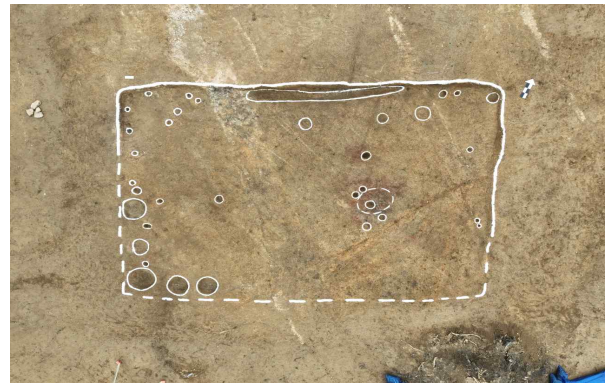


사진 13. 청동기시대 12호 주거지

인된다. 벽구가 확인되는 주거지는 4·5·12호로, 주거지의 장벽 바닥면을 따라 얇게 굴착하였고, 벽구 내부에는 벽주공이 함께 확인된다. 그리고 8호 주거지의 경우 후대에 조성된 수혈로 인해 일부 파괴되었으나, 주거지의 남동쪽 모서리 부분에 벽구가 확인되었고, 내부에는 다량의 목탄재가 채워져 있다. 저장공은 1·2·9·12·13호 주거지 남동쪽 모서리 부분에서 2~4개가 확인되며,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바닥면을 'U'자 형태로 굴착하였다. 특히 2호 주거지 저장공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호가, 9호 주거지 저장공에서는 단사선문토기발이 정치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주공 및 벽주공은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는데, 주거지 내부의 주공들은 크기와 배치가 정연하지 않으며, 벽면을 따라 소형 주공이 다수 배치되어 있다.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구순각목 토기호·발, 무문토기편, 방추차, 석검편, 석도 등이 출토되었는데, 1호와 2호 주거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거지는 출토된 유물의 수량이 5점 미만으로 출토빈도가 낮은편이다.

### 3. 주변 청동기시대 환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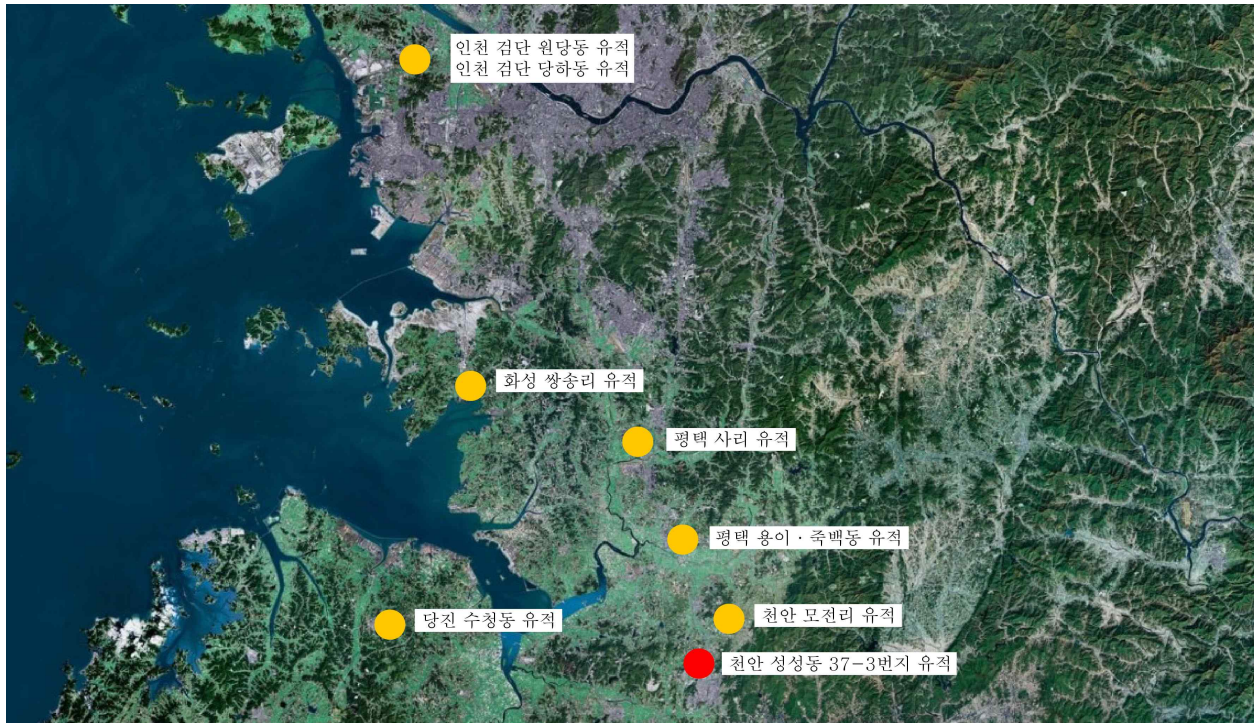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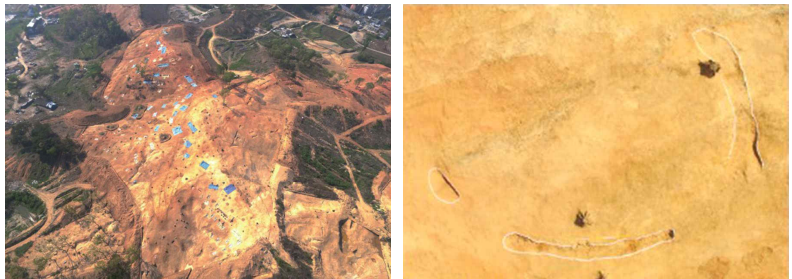


사진 14. 경기·호서지역 청동기시대 환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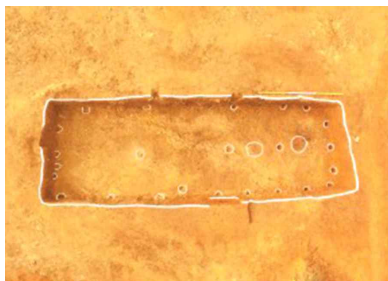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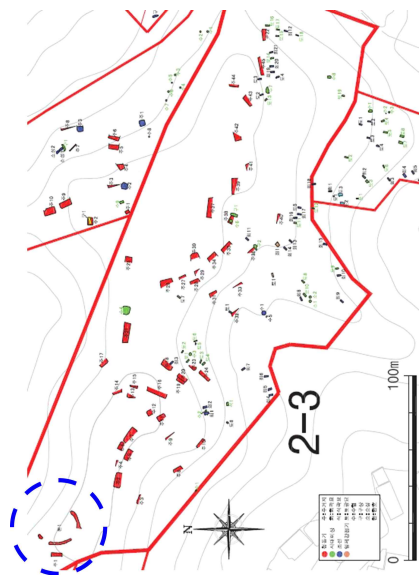
최근 전국적으로 매장유산 조사를 통해 환구(환호) 유적이 조사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중 천안 성성동 37-3번지 유적에서 조사된 환구와 유사한 형태가 확인된 유적을 경기·호서지역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인천 검단 당하동 유적<sup>31)</sup>

당하동 유적 환구의 입지는 유적의 중앙부에 위치한 계목산의 구릉 북서쪽 정상부 해발고도 60.5~62.5m에 조성되었다. 유적 내에 위치한 오두목골산이 해발 80.4m로 가장 높은 산지이나 경사도가 급한 편으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환구는 유구가 확인된 유적 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입지한다. 환구의 평면형태는 북동편 급경사 구간이 유실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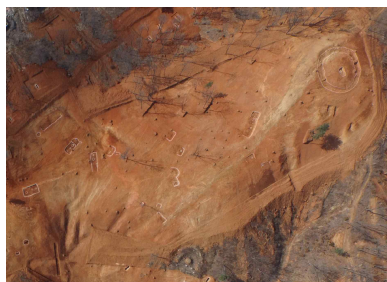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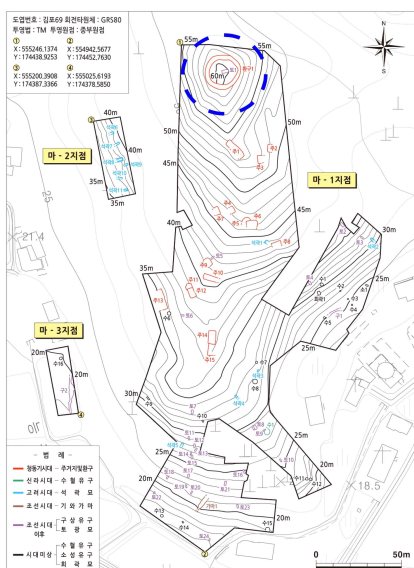
31) 충청문화재연구원, 2018, 『인천 검단 당하동 유적』.



**도면 4. 인천 검단 당하동 유적**  
 으나 원형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환구의 규모는 지름 24.2m, 너비는 0.92~1.62m 정도이다. 환구 내부 공간에서는 유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환구 내부에서 무문토기 동체부 1점이 출토되었다.

주변 유구는 환구로부터 서쪽으로 5m 떨어져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으며, 다른 주거군은 환구로부터 동쪽으로 30m 이상 떨어져 군집을 이룬다. 환구에서 출토된 유물이 무문토기 동체부 1점이기엔 정확한 시기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주거지에서 이 중구연단사선문과 공렬문토기가 출토되어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으로 편년되며,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주거지와 동일시기에 유구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2) 인천 검단 원당동 유적<sup>32)</sup>



**도면 5. 인천 검단 원당동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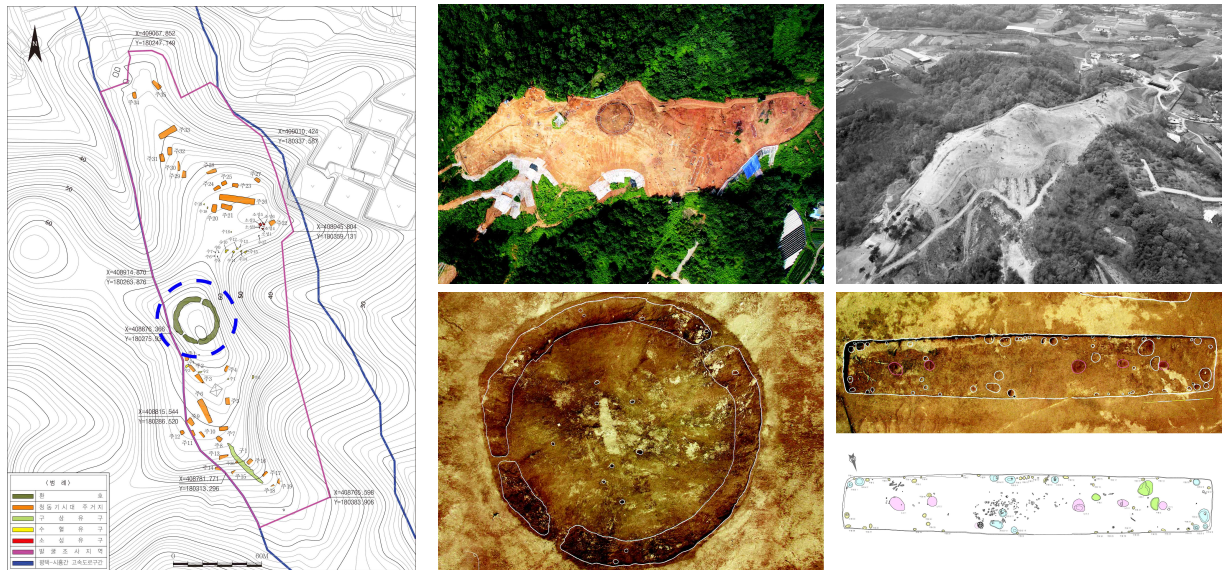
32) 중앙문화재연구원, 2019, 『인천 검단 원당동·마전동 유적·마전동』.

원당동 유적의 환구는 해발 60m의 구릉 정상에 감싸도록 원형 고리 형태로 단절구간이 없이 이어지게 조성되었다. 규모는 외경 20.8~21.2m이며, 너비 1.60~3.20m, 깊이 0.2~0.3m이다. 내부 공간에서는 조선시대 토광묘로 인해 교란되어 아무런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환구의 잔존 깊이가 얼마 되지 않으나, 단면 형태는 역제형으로 추정되고 환구 내에서도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환구 주변에 유구가 조성되지 않으며, 환구로부터 남사면 하단부 30m 정도 떨어져 주거지들이 조성되었다. 주거지들은 역삼동유형 주거지들로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으로 편년되며, 환구도 이와 비슷한 시기로 추정된다.

### 3) 화성 쌍송리 유적<sup>33)</sup>

쌍송리 유적의 환구는 해발 70m 구릉 정상부를 둥근 고리 형태로 감싸고 있다. 단면형



도면 6. 화성 쌍송리 유적

태는 역제형이며, 북동(N-25°-E)·서남(N-128°-W)·남서(N-175°-W)쪽 세 지점에서 간격 40~100cm 정도의 단절구간이 확인된다. 규모는 삭평으로 인해 기반층이 바로 노출되는 부분도 있으나 외경 33m, 최대 너비 4m, 최대 깊이 0.4~0.8m 정도이다. 유구 내부와 환구의 내부 공간에서 소형의 원형 수혈이 각각 7기와 8기가 조사되었다. 규모는 지름 15~30cm, 깊이 5~20cm 정도이며, 배치의 정형성은 없다. 유물은 환구 내부에서 구순각목 공렬문토기편, 대부토기 대각편, 석촉, 합인석부, 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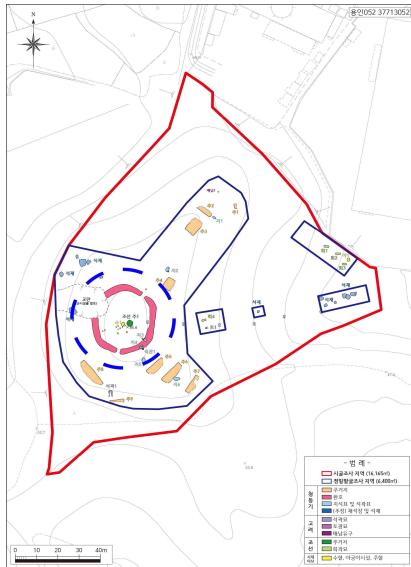
주변 유구는 환구와 중복관계가 없으며, 청동기시대 주거지 35기가 환구 남·북쪽으로 각각 10m 이상 떨어져 확인되었다. 취락의 구조는 세장방형 주거지 1기만 단독으로 독립되어 위치하며, 장방형 주거지는 2~4동의 주거지가 반원상으로 군집을 이루며 주거군을 형성한다. 주거지 간의 중복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유물은 구순각목공렬문토기, 이단경식석촉이 출토되어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인천 검단 원당동·마전동 유적-원당동II-』.

33) 기호문화재연구원, 2012, 『화성 쌍송리 유적』.

#### 4) 평택 사리 유적<sup>34)</sup>

사리 유적의 환구는 해발 62m 구릉 정상부를 감싸는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서쪽 일부는 후대 군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절토되어 훼손된 상태이고, 남동사면 상단으로는 3·4호 지석묘와 1호 석관묘가 환구 폐기 후 조성된 중복관계를 보인다. 규모는 외부 직경(남북 기준) 34.2m, 내부 직경 27.5m이며, 구의 너비는 2.3~3.8m, 깊이는 0.3~0.65m이다. 단면 형태는 대체로 구 중앙부의 폭이 좁은 'V'자형에 가깝다. 북동측 가지능선과 남측 사면부 방향으로 2개소의 출입시설이 확인되는데, 출입시설 너비는 0.65~0.67m이다.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출입시설과 접하는 환구의 구 바닥면을 다른 부분보다 깊게 굴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환구 서측 내부에 면하여 열을 이루며 소주혈들이 배치된 양상을 보인다. 유물은 환구 내 바닥과 접하는 퇴적층에서 무문토기 호, 무문토기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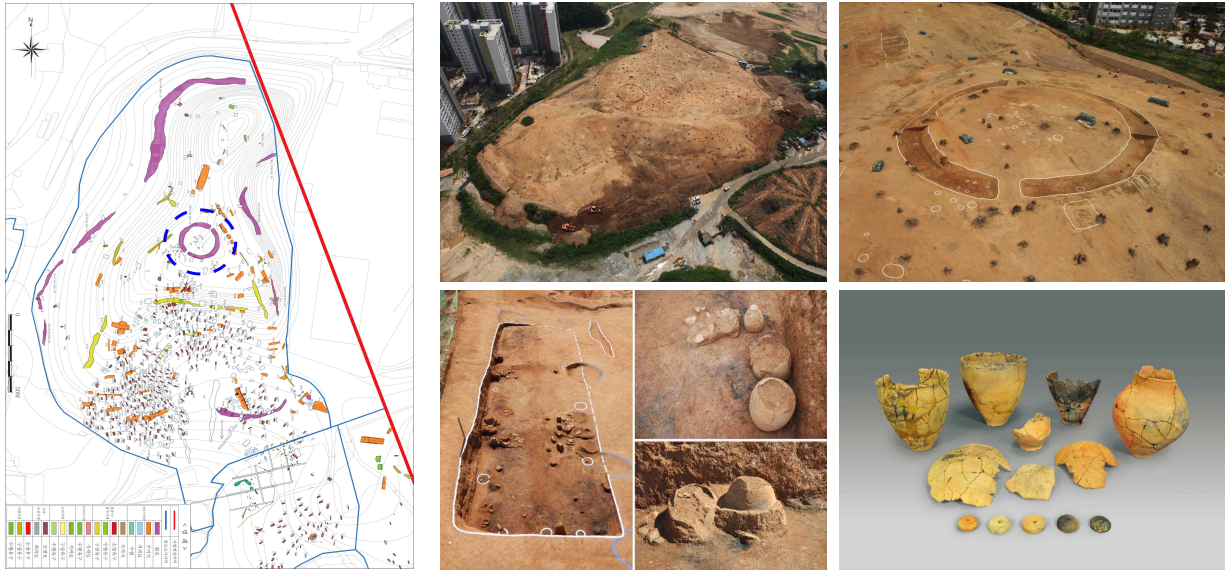
도면 7. 평택 사리 유적

#### 5) 평택 용이·죽백동 유적<sup>35)</sup>

용이·죽백동 유적은 구릉지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안성천을 중심으로 여러 지류천이 형성되어 있다. 환구는 2기로, 구릉 정상부에 1호 환구와 경사면을 따라 취락 주변을 감싸는 2호 환구가 확인되었다.

1호 환구는 해발 54m 구릉 정상부에 둥근 고리 형태로 조성되었다. 규모는 외경 23m, 너비 1.0~2.85m, 깊이 0.35~1.1m이다. 단면형태는 역제형이며, 단절구간이 동북(N-60°-E)·서남(N-115°-W)쪽에 대칭된 형태로 2개소가 확인되었다. 내부공간에는 남서쪽에 치우쳐 35기의 주혈이 확인되었으며, 환구의 바닥면 중앙부에서 노지로 추정되는 원형 또는

34) 라온문화재연구원, 2023, 「평택 사리(산59번지) 공장 증설부지 내 유적 문화재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35)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9, 『평택 용이·죽백동 유적』.



도면 8. 평택 용이·죽백동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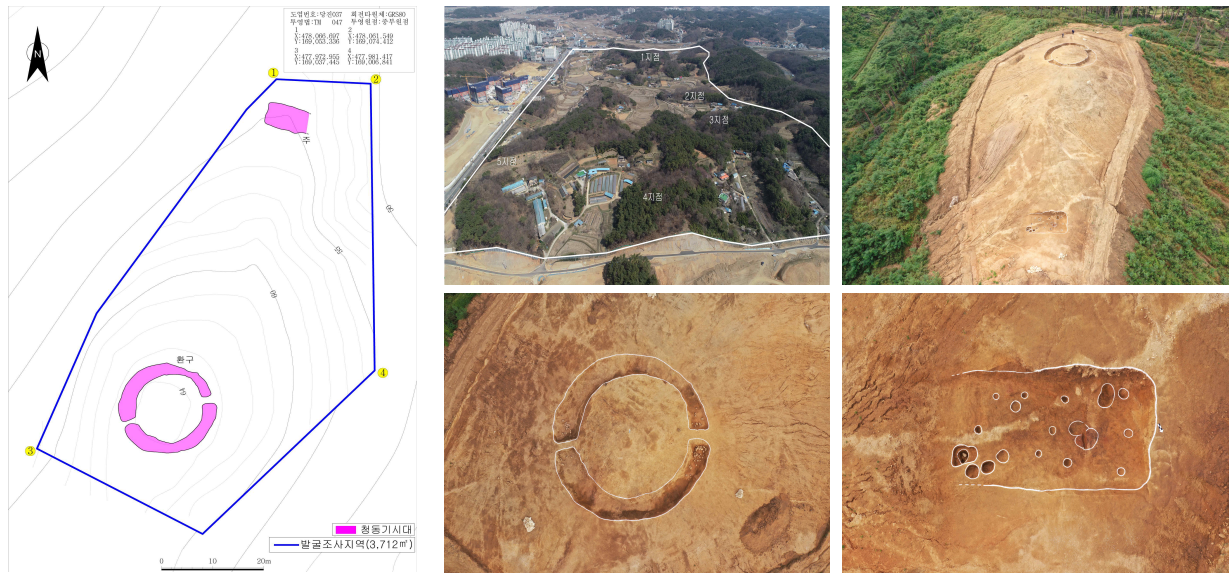
타원형의 소결면을 비롯해 주변으로 소형 수혈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공 렬문토기 구연부편, 적색마연토기 대각편, 이단경식 석촉, 무문토기 저부편 등이 출토되었다. 1호 환구와 주변 유구 간의 중복관계가 없으며, 청동기시대 주거지들이 5m 이상 떨어져 환상으로 분포한다.

2호 환구는 해발 36~49m에 구릉 사면부를 감싸며 남북으로 긴 표주박형으로 조성되었다. 규모는 외곽 둘레 약 660m, 내부 면적 약 22,740㎡, 너비 0.8~8m, 최대 깊이 2m이다. 단면형태는 역제형이며, 단절구간이 북동쪽과 남서쪽에 대칭된 형태로 확인되었다. 유물은 구순각목공렬문 발형토기 구연부편, 무문토기 저부편, 대팻날, 일단병식 석검 등이 출토되었다. 2호 환구는 대부분의 주거지가 환구 내부 공간에 위치하지만, 동남쪽 부분에서 세장방형 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고, 소수의 주거지가 환구 바깥 능선에서도 확인된다.

취락의 구조는 구릉 정상부에 1호 환구가 있고, 구릉 사면을 따라 환상으로 주거공간이 있으며, 2호 환구가 외곽 경계를 이룬다. 동쪽 경계 부근은 분묘 공간으로 분묘 공간으로 석곽묘 3기가 군집하여 조성되었다. 환구 내 출토유물과 주거지와 중복관계를 볼 때 2호 환구는 1호 환구가 축조된 후 시차를 두고 취락의 방어를 목적으로 후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취락의 연대는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으로 판단되며, 세장방형 주거지와 장방형 주거지의 중복양상으로 장기간 점유된 취락으로 판단된다.

#### 6) 당진 수청동 유적<sup>36)</sup>



도면 8. 당진 수청동 유적

수청동 유적은 태백산(해발 96m)에서 서쪽으로 뺀 가지 능선의 정상부인 해발 65m에 위치한다. 환구의 형태는 구름 봉우리를 중심으로 동북쪽으로 치우쳐 고리 형태로 감싸는 원형이며, 규모는 외경 18.5m, 내경 13.4m, 봉우리와 환구의 고저차는 1.5m이다. 단면은 상부 너비 2.2~3.2m, 바닥면 너비 1.3~2.1m, 깊이 0.4~1.6m로 역제형에 가깝다. 환구에는 단절구간이 동북(N-78°-E)과 서남(S-70°-W)에 거의 대칭적으로 2개소 확인되었다. 단절구간 양쪽의 환구 내부 바닥면에는 크리 15cm 내외 부정형 할석이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는데, 할석의 밀집도는 단절구간에 가까운 곳은 많고 멀어질수록 그 수가 적어진다.

환구의 내부 공간은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공지(空地)이다.

유물은 환구 내부 바닥면과 바닥면에서 약간 뜬 상태로 소량의 편만 출토되었는데, 적색마연대부토기 대각편,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구연부편,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 석축 미제품, 갈판 등이 있다.

주변 유구는 환구로부터 능선 아래인 북쪽으로 53m 떨어져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만 확인되었는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내부에 노지·주공·저장공의 결합양상으로 볼 때 역삼동·흔암리 유형의 주거지로 보인다. 출토된 유물은 다수의 토기편들로, 적색마연대부호, 이중구연거치문토기 구연부편, 구순각목공열토기 구연부편이다.

이러한 유물들의 공반관계와 출토유물,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 등을 통해 환구의 조성연대는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의 이른시기 정도에 해당한다.

## 7) 천안 모전리 유적<sup>37)</sup>

36)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9, 『평택 용이·죽백동 유적』.

37) 누리고고학연구소, 2021, 『천안 모전리 유적』.



#### IV. 조사성과와 의미

천안 성성동 37-3번지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환구 1기, 주거지 13기, 수혈 1기와 통일신라 석곽묘 1기, 고려시대 석곽묘 1기, 조선시대 주거지 11기·수혈 1기·소성유구 3기·토광묘 25기·회곽묘 1기, 시대미상 수혈 7기·가마 1기·구상유구 1기 등 모두 67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중 청동기시대 유구는 환구, 주거지, 수혈 등 생활유구가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환구는 주변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구릉 정상부를 원형으로 둘러싼 형태로 조성하였고, 환구 내부 공간에 제단과 같은 구조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출입시설 등의 존재를 통해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는 환구를 중심으로 등고선 방향을 따라 열상으로 분포되어 있고, 일부 주거지는 능선 중앙 평탄면에 자리하는데, 주거지는 서로 중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이며, 내부시설은 노지, 벽구, 저장공, 주공 및 벽주공 등이 확인된다.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구순각목토기 등과 방추차, 석검편, 갈판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의 유구의 조성 및 존속시기는 환호 내부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저부편과 주변에 자리한 주거지의 평면형태, 내부시설, 출토유물의 공반관계 등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유구들은 서로 중복되지 않고 비교적 일정한 간격을 형성하면서 조성된 특징을 보이는데, 주거지의 형태나 내부시설, 출토유물 등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유적에서 확인된 환구와 주거지의 입지구조는 평택 용이·죽백동 유적과 매우 유사하고, 인근의 청동기시대 주거유적인 백석동 유적과 두정동 유적 등을 통해 경기·호서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 교류양상과 계통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 청양 양사리 산2-11번지 일원 유적

황성수(한양문화유산연구원)

### I. 조사개요

- 허가번호 : 제2021-0330호
- 허가유적명 :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8공구) 내 유적
- 유적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산2-11번지 일원
- 조사면적 : 시굴조사 42,440.1m<sup>2</sup>, 정밀발굴조사 19,323m<sup>2</sup>
- 조사기간 : 2021. 06. 21. ~ 2023. 02. 03.

청양 양사리 산2-11번지 일원 유적은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평택-부여-익산 간 고속도로 신설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확인된 유적으로 1단계(평택~부여) 사업구간 5~14공구 중 8공구에 해당한다.

### II. 조사내용



[도면 1] 청양 양사리 산2-11번지 일원 유적 위치 및 주변 지형 현황

유적을 포함한 일대의 지형은 동쪽의 산악지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해발 약 70 ~ 120.0m 내외의 저평한 구릉지가 분포하고 있고, 구릉지는 유적 서쪽의 무한천을 따라 형성된 하성평탄지와 맞닿아 있다. 유적은 이러한 지형 중 해발 약 80.0m 내외 구릉지의

정상부를 포함한 북쪽과 남쪽 사면부에 해당한다.

본 유적은 삼국(백제)시대로 판단되는 승석문이 시문된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격자문이 시문된 회백색 연질토기편 등이 확인된 청양 양사리 백제토기산포지(백제문화개발원, 1995 /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6)에 해당된다. 이를 바탕으로 시굴조사를 진행하였고,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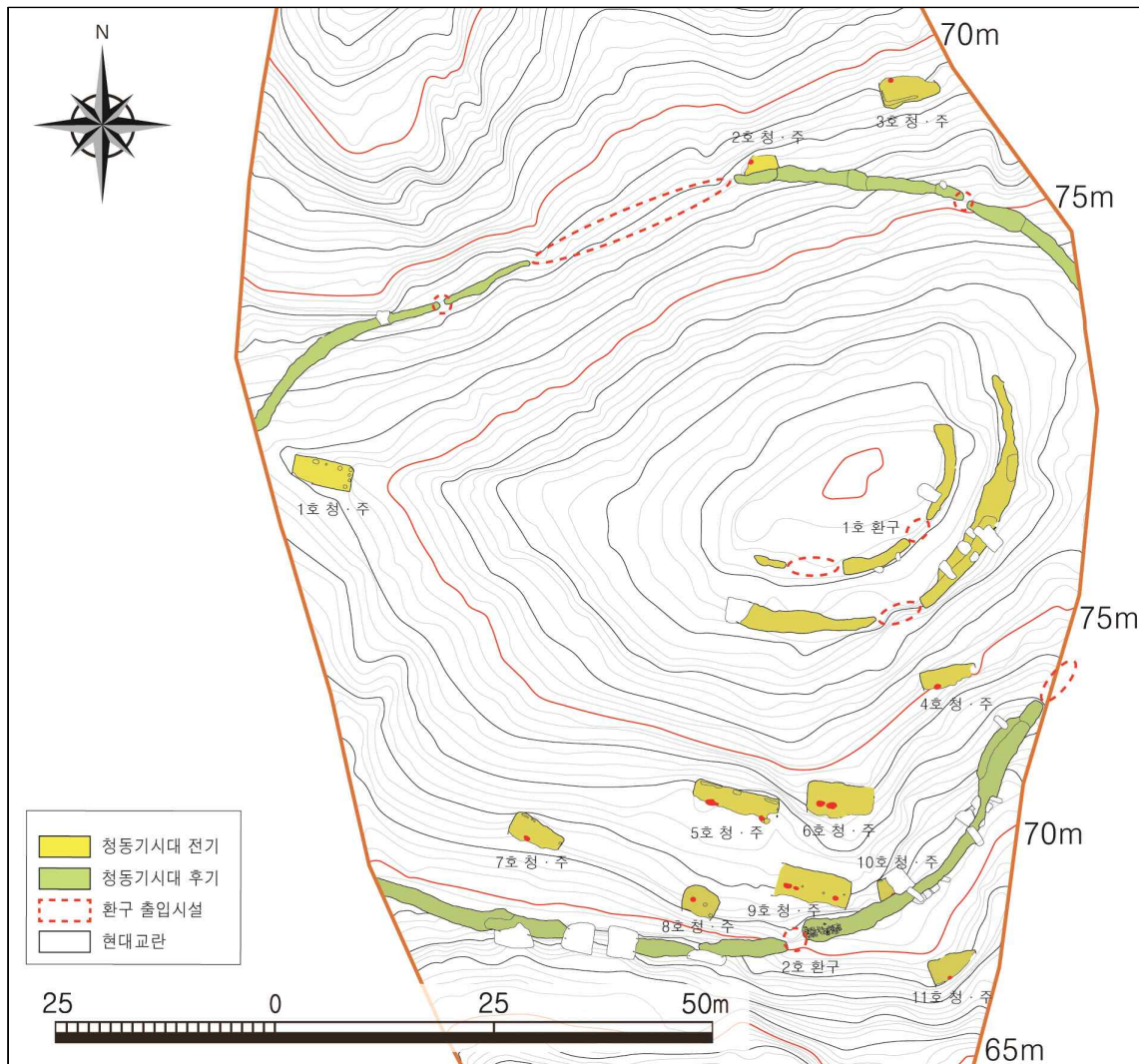
정밀발굴조사는 2개 지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밀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환구 2기·주거지 11기·수혈유구 2기,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1기·토광묘 4기, 삼국시대 구상유구 1기, 통일신라시대 석실묘 1기·석곽묘 2기, 조선시대 아궁이 1기·주혈군 1기·수혈유구 13기·구상유구 1기·제련로 1기·토광묘 45기·회묘 7기·옹관묘 1기, 시대미상 수혈유구 6기·구상유구 2기 등 총 102기의 유구가 확인·조사되었다. 본고에서는 확인된 유구 중 1지점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환구와 주거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사진 1] 청양 양사리 산2-11번지 일원 유적 원경(남서-북동)



[도면 2] 청양 양사리 산2-11번지 일원 유적 정밀발굴조사 현황도



[도면 3] 청양 양사리 산2-11번지 일원 유적 청동기시대 유구 현황도

### 1. 청동기시대 환구

청동기시대 환구는 총 2기가 확인·조사되었으며, 모두 1지점에 위치한다.

1호 환구는 해발 약 80.0m 내외의 구릉 정상부와 사면 상단부에 걸쳐(해발 77.71~79.81m) 조성되어 있으며, 산정을 둘러싼 형태이다. 조선시대 분묘와의 중복 관계와 현대 이장과정으로 인해 유구 일부가 훼손되었으며, 잔존하는 환구는 내측과 외측 환구로 구성된 이중 환구이다. 평면 형태는 산정을 둘러싼 반원형을 이루고 있는데 산정을 기준으로 북쪽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남쪽과 동쪽에서만 확인된다. 북쪽의 경우 경사로 인한 삭평 및 현대에 행해진 다수의 이장과 분묘 조성 등으로 인해 원지형 대부분이 훼손되었다. 이와 더불어 북쪽과 가장 가까운 환구의 바닥면이 북쪽으로 갈수록 대체로 낮아지는 양상과 잔존 지형·벽면의 조성방식 등을 고려할 때, 최초 조성 당시의 환구는 산정을 타원형으로 둘러싼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추정 규모는 북동-남서간 약 46.0m, 북서-남동간 약 31.7m이다. 내부 공간은 공지로 존재하며, 환구 외부로 청동기시대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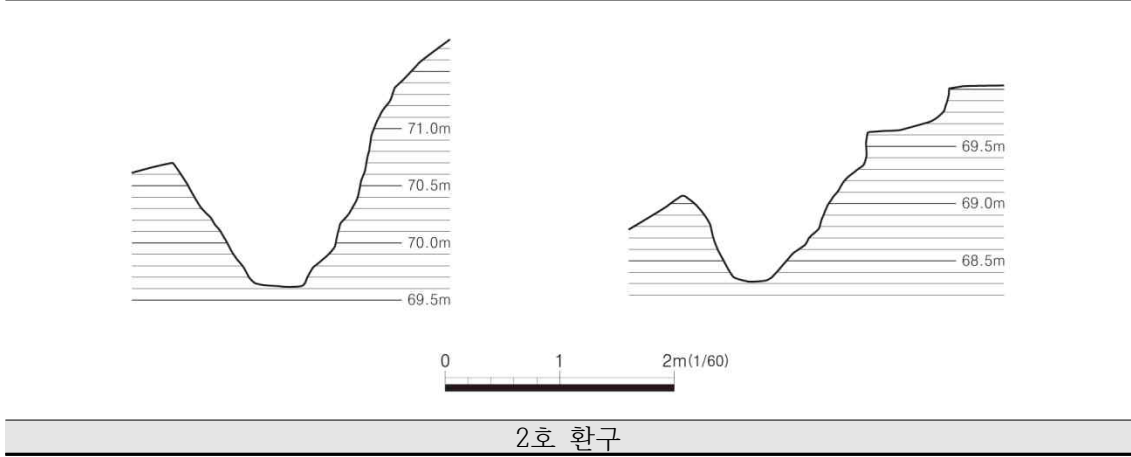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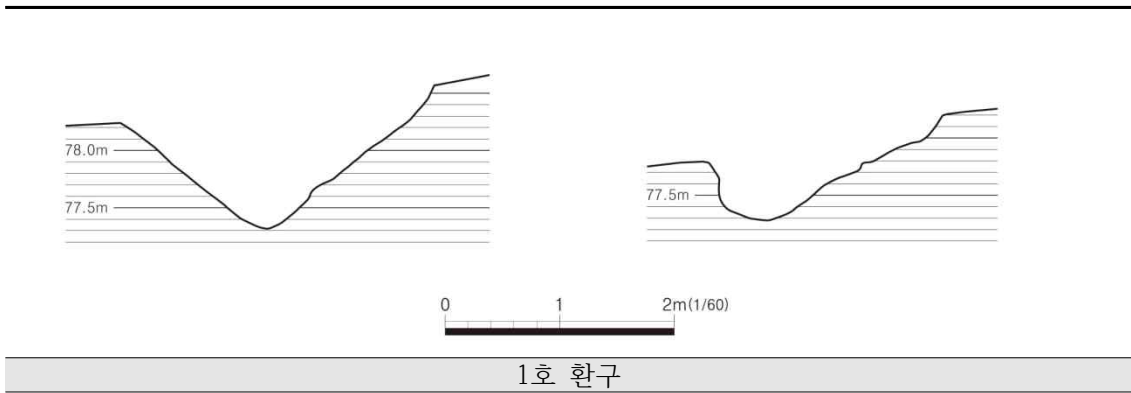
지들이 분포하고 있다.

2호 환구는 1호 환구와 동일한 구릉 사면에 위치하나 해발고도가 좀 더 낮은 사면 상단부(해발 68.25~76.60m)에 조성되어 있고, 1호 환구의 남동쪽으로 약 15.6m 이격되어 있다. 2호 환구 또한 조선시대 분묘와의 중복 관계와 현대 이장과정으로 인해 유구 일부가 훼손되었으며, 북동쪽과 남서쪽은 조사지역 경계와 맞물려 있어 전체 유구의 양상을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잔존하는 유구의 양상을 고려하면 2호 환구는 산정을 지형을 따라 타원형으로 둘러싼 형태로 추정되며, 추정 규모는 북동-남서간 약 109.7m, 북서-남동간 약 84.6m이다. 환구의 북쪽과 남쪽 일부 구간은 청동기시대 2·10호 주거지와 중복되어 확인되며, 주거지를 파괴하고 환구가 조성되어 주거지들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 2] 청동기시대 환구 조사 후 전경

1·2호 환구의 벽면과 바닥면의 조성방식은 대체로 유사하나 일부 구간에 한해 바닥면의 조성방식에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벽면은 1·2호 환구 모두 바닥면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선으로 굴착하였고, 바닥면은 비교적 평평하게 조성하거나 중앙 부분을 오목하게 하여 단면 형태가 'U' 형태 내지 완만한 'U'자를 이루고 있다. 1호 환구 일부구간의 바닥면은 양 벽면이 직접 맞닿을 정도로 좁게 조성하여 단면 형태가 'V'자 형태를 이룬다.



[도면 4] 청양 양사리 산2-11번지 일원 유적 청동기시대 환구 단면도

환구의 내부시설로서는 단 시설과 출입시설로 추정되는 공간이 확인된다. 단 시설은 2호 환구의 남쪽에서 확인되며, 환구의 벽면 조성방식과 동일하게 바닥면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선으로 굴착하여 벽면을 조성하였고, 바닥면은 환구의 중앙으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나 비교적 평평하게 축조하여 단면 형태가 완만한 'U' 형태를 이루고 있다.



[사진 3] 2호 환구 단시설 전경



[사진 4] 2호 환구 단시설 세부



[사진 5] 1호 환구 단절부 전경



[사진 6] 1호 환구 단절부 벽면 세부



[사진 7] 2호 환구 단절부 전경



[사진 8] 2호 환구 단절부 벽면 세부

출입시설과 관련해서 주혈이나 다짐층 등 직접적인 흔적은 확인되지 않지만 환구의 몇몇 구간에서 확인되는 단절부를 통해 출입시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환구는 하나의 형태로 이어지지 않고 몇몇 구간이 단절되어 있다. 단절로 인해 마련된 공간의 존재. 단절된 부분의 벽면과 바닥면을 고려할 때, 삭평 등으로 인한 유실이 아닌 의도적으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환구를 단절하여 조성하였으며, 이는 해당 공간을 출입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1호 환구는 외측 환구의 경우 출입시설이 1개소, 내측 환구의 경우 2개소가 확인되며, 내측 환구와 외측 환구의 출입시설이 서로 겹치지 않고 엇갈리게 조성되었다. 2호 환구는 남쪽에 2개소, 북쪽에 3개소가 확인되는데, 환구의 중앙에 위치한 남쪽과 북쪽의 각 1개소씩의 출입시설은 산정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되게 조성하였다. 출입시설의 폭은 1호 환구의 경우 약 330~550cm이며, 2호 환구는 약 60~2,500cm이다. 이와 관련하여 2호 북쪽 환구의 동쪽과 서쪽 출입시설은 폭이 60~70cm로 실질적으로 인력이 출입하기에는 협소한 규모로 인력이 통행하였다고 하여도 소수의 인력만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규모이다. 반면, 북쪽과 남쪽의 중앙 출입시설은 폭이 약 210~2,500cm로 앞선 출입시설에 비해 훨씬 넓은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다수의 인력이나 대규모 물품의 출입이 가능한 규모로 환구의 중앙부인 산정으로 이동하는 주출입로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 나머지 출입시설들은 보조 출입 공간으로 추정된다.

특히, 남쪽 중앙 출입시설과 연접한 환구 내부에서 다량의 할석이 확인되는데 할석들은 배치에 있어 규칙성 내지 정연성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체로 바닥면의 형태를 따라 중앙

부에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출입시설과 연접한 환구의 벽면 쪽에서 밀집도가 가장 높게 확인되는데, 이는 출입시설과 관련된 시설물의 부재로 사용했던 할석들이 유구의 폐기 이후 자연적으로 환구 내부로 유입된 결과로 추정된다.



[사진 9] 2호 환구 내부 할석 노출 양상 1



[사진 10] 2호 환구 내부 할석 노출 양상 2

환구의 시기와 관련하여 유물의 출토양상을 살펴보면 유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1호 환구에서는 이중구연토기·소형호가 확인되며, 2호 환구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두형토기·파수·유구석부 등이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각 유구에서 노출된 목탄 시료를 대상으로 진행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에서도 1호 환구는 2940±40BP, 2950±40BP, 2호 환구는 2440±40BP, 2460±40BP로 측정되어 출토유물의 양상과 종합하면 1호 환구는 기원전 11~10세기의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며, 2호 환구는 기원전 6~5세기의 청동기시대 후기에 조성 및 사용된 유구로 판단된다.



[사진 11] 1호 환구 출토유물



[사진 12] 2호 환구 출토유물

## 2. 청동기시대 주거지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총 11기가 확인·조사되었으며, 구릉 능선부(1호, 74.78m)와 사면 상단부(69.91~75.83m)에 입지한다. 대부분 1호 환구와 2호 환구의 사이 공간에 주거지 간 중복 없이 위치하나 3·11호 주거지는 2호 환구의 외부에 분포하고 있고, 2·10호 주거지는 2호 환구와 중복(주거지 선행)되어 확인된다. 주거지의 하단부는 삭평으로 인해 대부분 유실되었으며, 잔존양상을 고려할 때, 평면형태는 장방형(1·2·4~11호)과 방형(3·8호)으로 구분된다. 내부시설은 무시설식의 노지와 벽구·주혈 등이 있으며, 노지는 1호 주거지를 제외한 모든 주거지에서 확인되는데 주거지 단축 중앙부의 장축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유물은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호형토기와 발형토기(공렬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문), 반월형석도 및 방추차(토·석재) 등이 출토되었다. 다만, 평면형태 방형의 8호 주거지에서는 대부호와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되고,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에서도 2810±40BP(기원전 9세기)로 확인되어 유적 내 주거지들 중 가장 늦은 시기의 주거지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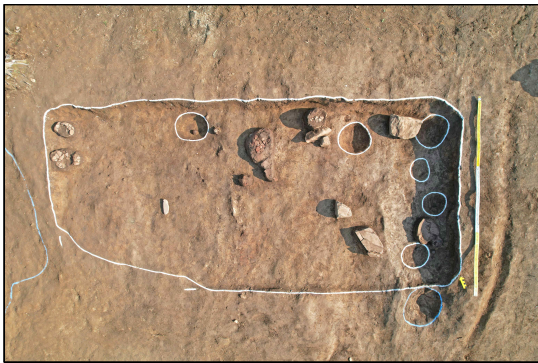
이와 같이 청양 양사리 산2-11번지 일원 유적의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평면 형태가 장방형과 방형을 이루며, 내부에서 무시설식의 노지와 벽구 및 주혈 등이 확인된다. 그리고 출토유물은 공렬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대부호, 적색마연토기·반월형석도 등이 출토되었다. 이 중 공렬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흔암리식토기)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락동식토기)는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유물로서 이를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와 종합하면 본 유적의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기원전 11~9세기의 청동기시대 전기 중엽에서 후엽까지 점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_ 청양 양사리 산2-11번지 일원 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속성표

유구 번호	전체규모(cm)	장축방향	평면형태	내부시설	출토유물	방사성탄소연대	비고
	길이×너비×깊이						
1	(677)×(327)×34	E-10°-S	(장방형)	주혈	호형토기, 발형토기 (공렬이중구연단사선문), 갈판, 방추차(토·석재)	2950±40BP	
2	(298)×(174)×32	E-14°-N	(장방형)	노지	무문토기	-	2호 환구 중복
3	(675)×(354)×51	-	(방형)	노지, 벽구	-	-	
4	(641)×(256)×46	E-31°-N	(장방형)	노지, 주혈	무문토기	-	
5	(986)×(302)×34	E-14°-S	(장방형)	노지, 벽구, 주혈	발형토기, 반월형석도, 지석	2990±40BP	
6	(761)×(409)×78	E-7°-S	(장방형)	노지	-	2910±40BP	
7	(412)×(200)×39	E-31°-S	(장방형)	노지, 벽구, 주혈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갈판	3000±40BP	
8	(419)×(334)×88	-	(방형)	노지, 주혈	대부호, 적색마연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석도	2810±40BP	
9	(550)×(256)×33	E-12°-S	(장방형)	노지, 주혈	석재 방추차	2950±40BP	
10	(234)×(208)×52	E-8°-N	(장방형)	노지, 주혈	-	-	2호 환구 중복
11	(566)×(303)×72	E-15°-N	(장방형)	노지	반월형석도	-	



[사진 13] 청동기시대 주거지(4~11호) 조사 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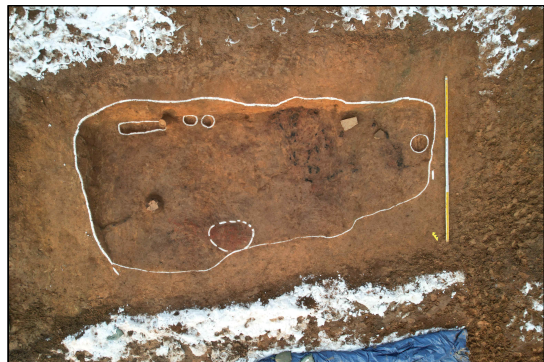
[사진 14] 1호 주거지 전경



[사진 15] 4호 주거지 전경



[사진 16] 6호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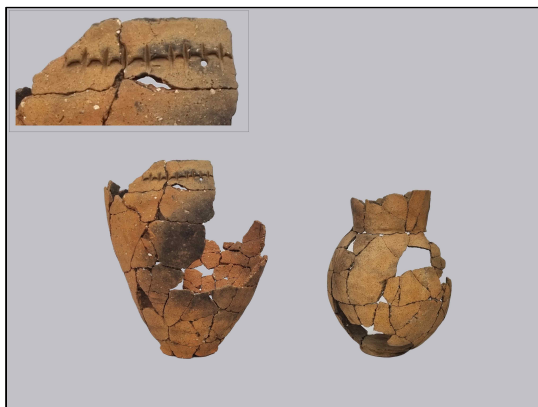
[사진 17] 7호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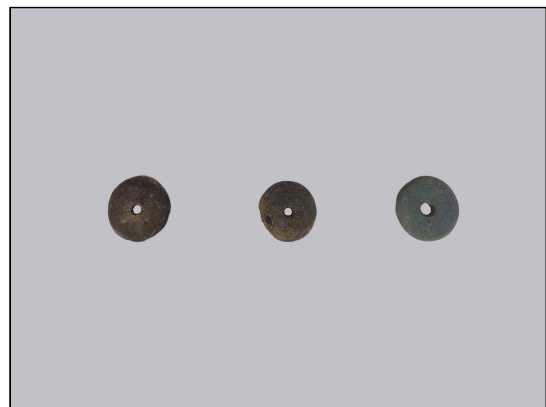
[사진 18] 8호 주거지 전경



[사진 19] 9호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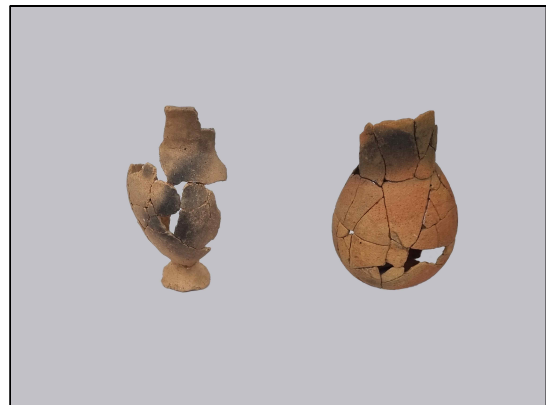
[사진 20] 1호 주거지 출토 유물 1



[사진 21] 1호 주거지 출토 유물 2



[사진 22] 7·8호 주거지 출토 유물



[사진 23] 8호 주거지 출토 유물

### Ⅲ. 조사성과

청양 양사리 산2-11번지 일원 유적의 구릉 사면 정상부-상단부에서는 청동기시대 환구 2기와 주거지 11기가 조사되었다. 이 중 1호 환구와 주거지는 동시기의 유구로 확인되었으며, 2호 환구는 1호 환구와 주거지가 폐기되고 시간이 흐른 후 조성되었는데 공반하는 유구 없이 단독으로 존재한다.

환구는 구릉 정상부와 상단부에 산정을 타원형으로 둘러싼 형태로 조성되었으며, 2호 환구는 1호 환구보다 해발고도가 낮은 사면부에 위치한다. 2기의 환구 모두 출입시설로

판단되는 단절부가 확인되며, 내부 공간은 주거와 관련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넓은 공지로 존재한다.

주거지는 구릉 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1호 환구의 외부에 분포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방형을 이루며, 내부시설로 무시설식 노지와 벽구·주혈이 확인된다. 노지는 1호 주거지를 제외한 모든 주거지에서 확인되며, 단축 중앙부의 장축선상에 위치한다.

유물은 1호 환구에서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고, 주거지에서는 공렬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의 출토양상과 주거지의 구조 및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를 종합해 볼 때, 1호 환구와 주거지는 기원전 11~9세기의 청동기시대 전기 중엽~후엽까지 점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2호 환구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파수, 유구석부 등이 출토되었는데,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와 종합해 볼 때, 기원전 6~5세기대의 유구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1호 환구는 산정을 타원형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내부 공간은 공지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에는 동시기인 청동기시대 전기의 주거지들이 배치되어 있고, 주거지들의 단축 방향은 대체로 환구 내부의 산정을 향해 있다. 이는 취락의 조영 단계에서부터 환구와 주거지들을 동시에 배치하고자 한 집단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환구와 주거지들이 동일 권역 내에 분포하는 환구 취락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시간적 단절을 거쳐 후기가 되면 해당 지역을 의례공간으로 재사용하게 되고, 환구는 더 넓은 공간의 확보를 위해 이전 시기와 달리 사면부로 입지가 변화하게 되며, 그 결과로 구릉 일대를 아우르는 대규모 환구가 조성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청양 양사리 산2-11번지 일원 유적은 청동기시대 전기와 후기의 의례 공간으로 판단되며, 시간적 단절이 있지만 신성시하는 공간에 대한 인식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 동춘동(199번지 일원) 농원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청동기 환호 조사내용

김용준<sup>38)</sup>

---

38) (재)기남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연구1팀장

# I. 조사개요

1. 조 사 명 : 인천 동춘동(199번지 일원) 농원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2. 조 사 지 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9-3번지 일원
3. 허 가 번 호 : 제2024-0302호(발굴제도과-2939, 2024. 03. 20)
4. 조 사 유 형 : 시굴조사, 발굴조사
5. 조 사 기 간 : 2024년 6월 17일 ~ 12월 12일(실조사일수 58일)
6. 조 사 면 적 : 시굴조사 12,317㎡, 발굴조사 4,935㎡
7. 조 사 기 관 : (재)기남문화유산연구원
8. 조 사 의뢰인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9. 조사경위 및 경과

본 조사대상지역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199번지 일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원녹지과의 의뢰로 재단법인 호서문화재연구원에서 2019년 진행한 '인천 농원공원 소규모환경영양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매장유산 지표조사'<sup>39)</sup>를 통해 '동춘동 유물산포지3'으로 지정된 유존지역 내에 위치한다. 지표조사 결과, '동춘동 유물산포지3'은 시굴조사 대상지역으로, 사업시행 전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득하고 시굴조사를 진행하라는 국가유산청의 보존조치 통보가 있었다.<sup>40)</sup> 이에 사업시행처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에서는 농원근린공원 조성사업 전 시굴조사를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였다.

시굴조사는 본원에서 2024년 6월 17일에서 2024년 7월 3일(실조사일수 9일)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시굴조사 면적은 11,000㎡이다. 조사결과 전체 트렌치 53기 중 19개의 트렌치에서 신석기시대 수혈유구 6기, 조선시대 주거지 1기, 수혈유구 7기, 구상유구 1기, 토광묘 15기 등 총 30기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구가 확인된 트렌치를 중심으로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up>4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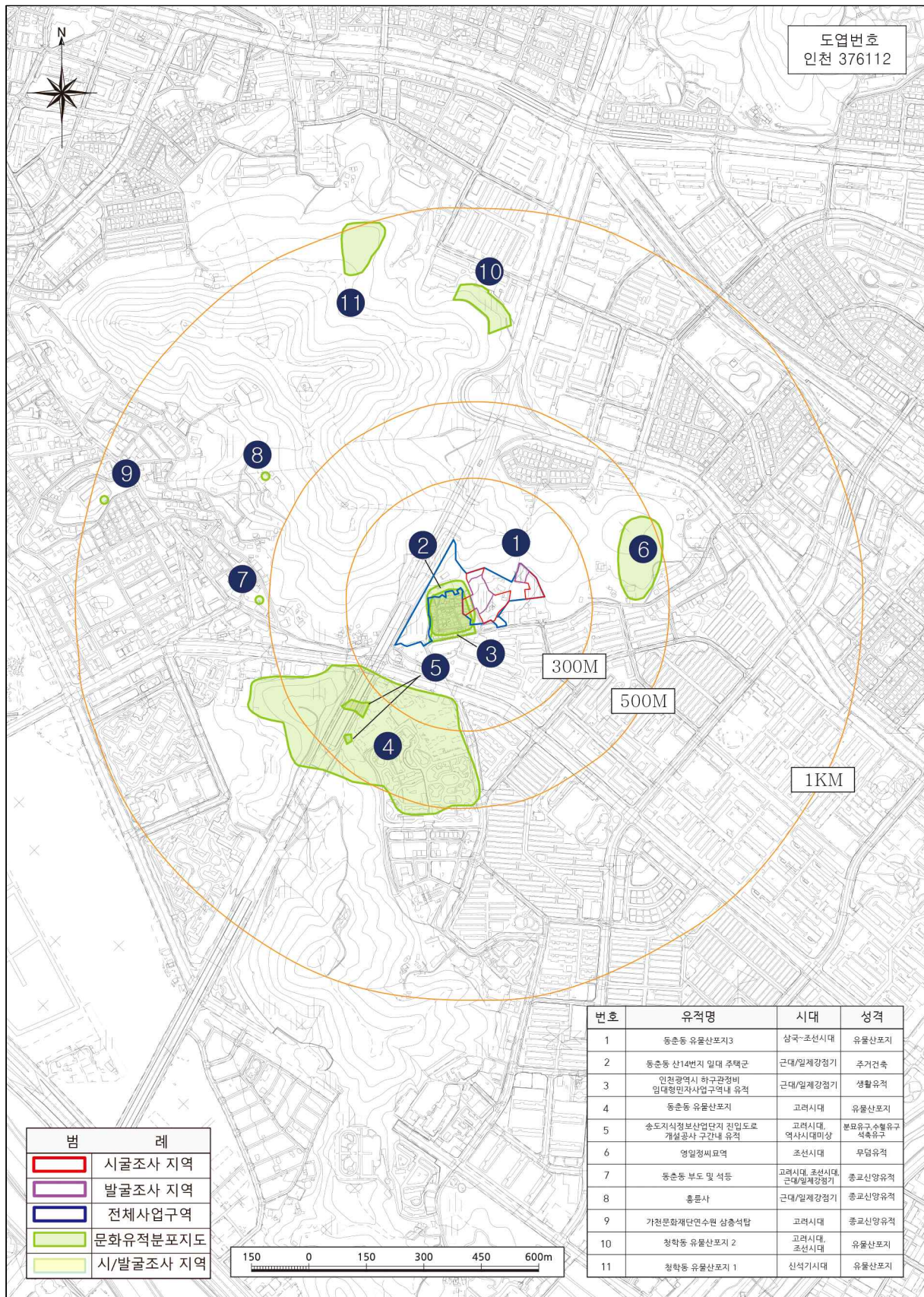
정밀발굴조사는 2024년 9월 4일에 착수하였고 2024년 12월 5일에 완료하였다. 발굴조사는 2개 지점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1지점에서 신석기시대 수혈 20기, 조선시대 토광묘 4기 등 총 24기의 유구가 조사되었고, 2지점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환호 1기, 조선시대 주거지 3기·건물지 2기·노지 1기·적심 2기·수혈 3기·토광묘 20기·회곽묘 15기 등 48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상기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환호가 조사범위 외부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되었고 환호의 성격 및 조사진행 방향을 토의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유적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추가적인 고고학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환호가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는 면적인 235㎡에 대한 정밀발굴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회곽묘 4기와 정밀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환호의 서측 말단부가 확인되었다.

39) (재)호서문화재연구원, 2019, 『인천 농원공원 소규모환경영양평가, 사전재해검토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40) 발굴제도과-15418(2019. 12. 26.) - 인천 농원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매장유산 보존대책 통보.

41) (재)기남문화재연구원, 2024, 『인천 농원 근린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매장유산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도면 1】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15,000)

## Ⅱ. 조사내용

조사지역의 지형은 청량산(淸涼山, 해발 173m)에서 남동쪽으로 뻗은 능선의 남사면 말단부 해발 20~35m 정도의 저구릉지에 해당한다. 조사지역 일대의 근세지도를 참고하면, 조사지역에서 남동쪽으로 약 500m 거리에 바다(간석지)가 위치하였다고 판단된다.

기존 임야 하단부에 민가와 경작지가 조성되어 지형의 삭평에 따른 형질변경이 수반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 능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임야 일부와 남쪽과 동쪽, 북동쪽으로 뻗어 내리는 사면은 전반적으로 원지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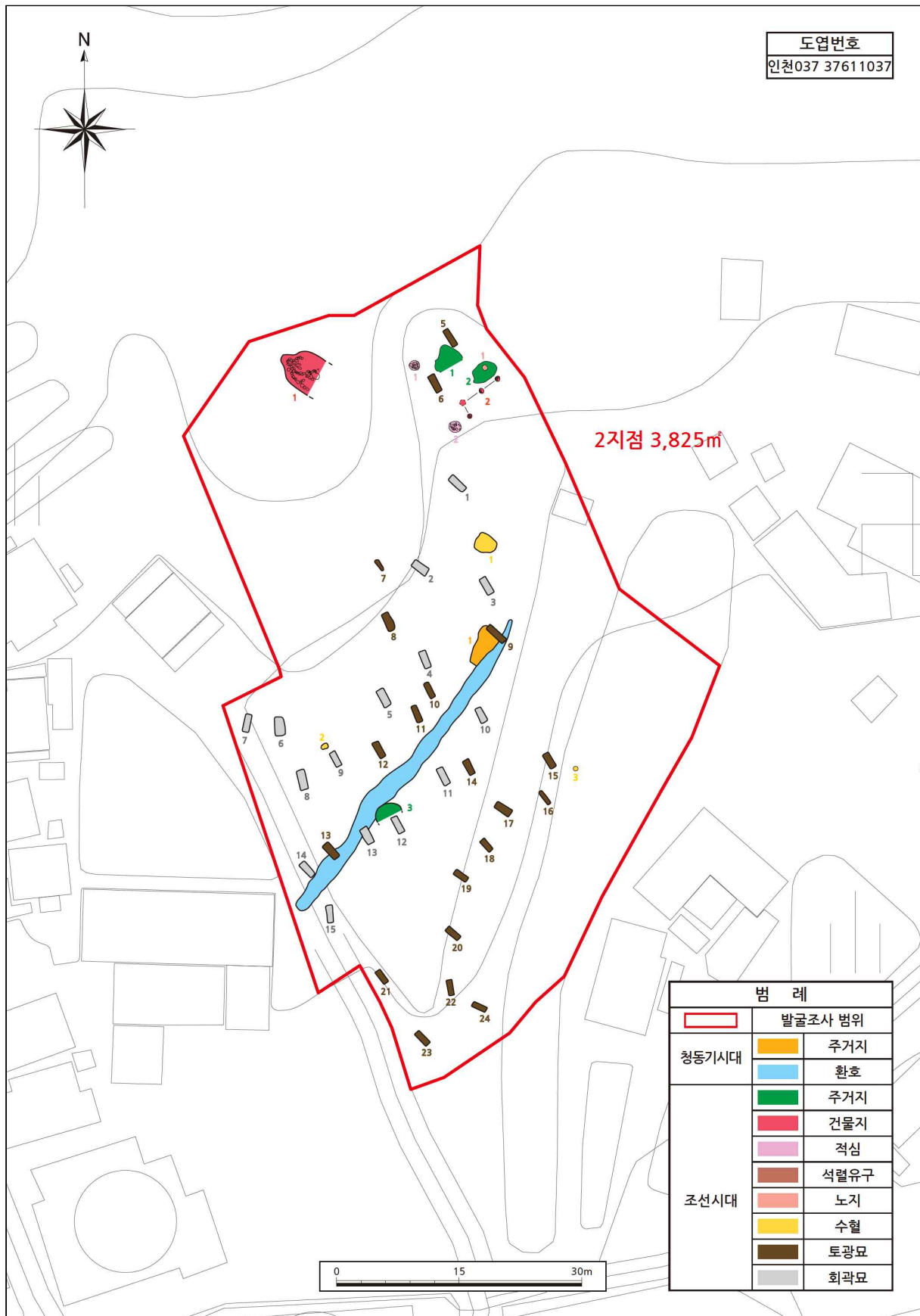
주변에는 남동쪽으로 동춘동 시가지가 형성되었고, 서쪽에는 송도에서 문학IC(인천 문학동)로 이어지는 미추홀대로가 남서-북동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다.

조사지역에 해당하는 '동춘동 유물산포지3'에서는 삼국~조선시대에는 이르는 토기편, 자기편 등이 다량 산재함을 확인한 바 있다.<sup>42)</sup>



【사진 1】 조사지역 전경 (직상방)

42)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9, 『인천 농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도면 2】 2지점 유구 현황도(1:700)



【사진 2】 조사지역 전경 (남동에서)



【사진 3】 2지점 조사후 전경(남에서)

## 1)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유구는 주거지 1기와 환호 1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2지점 중앙부에서 확인되었으며 잔존하는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규모는 길이 258cm, 너비 477cm, 깊이 38cm 정도이다. 청동기시대 1호 환호와 조선시대 9호 토광묘가 주거지 하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주거지의 잔존하는 벽면은 경사지게 굴토하였으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전지하였다. 내부에서 원형의 수혈과 노지 등의 내부시설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무문토기 동체부편, 무문토기 구연부편(구순각목 공열) 등이 출토되었다.



【사진 4】 청동기 1호 주거지

【사진 5】 출토유물

【사진 6】 내부시설(노지)

환호는 2지점 능선 중부에서 확인되었는데, 북동-남서 방향으로 2지점 전체를 횡으로 가로지르는 형태이다. 평면 형태는 ‘—’자형으로,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의 하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규모는 길이 4,315cm, 너비 40~251cm, 최대깊이 50cm 정도이다. 벽면은 대부분 바닥까지 완만하게 굴토하여 단면 ‘U’자형을 이루고 있다. 출입구시설을 비롯한 부가시설과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며 유물도 출토되지 않았다.

등고선방향을 따라 능선을 둘러싸는 모양으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나 서측의 현대건 축물과 동측의 인공수로의 조성으로 인해 양 말단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확인된 환호의 인근지역에서도 환호가 조사된 예가 확인되는데,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구리 토평동 유적<sup>43)</sup>, 인천 영동도 늘들유적<sup>44)</sup>, 인천 당하동유적<sup>45)</sup>, 인천 원당동유적<sup>46)</sup> 등이 확인된다. 이러한 유적들의 경우 대부분 평면원형 내지는 말각(원각)방형의 형태를 보이며 13~34m내외의 직경이 확인되며, 구의 폭은 1.3~3m 정도로 확인되며, 깊이는 가장 깊은 것이 0.8m정도이나 대부분 10~40cm정도의 최대깊이를 보인다.

확인된 인근의 환호들의 경우 내 외부에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소형수혈군, 적석유구 등이 확인되며, 환호 내부에서도 연관된 시기의 무물이 확인되거나 절대연대측정에서 기

43)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7, 『구리 토평동 유적』.

4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9, 『영종도 늘들 신석기유적』.

45) 충청문화재연구원, 2018, 『인천 검단 당하리유적』.

46) 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부지 IV지점 내 인천 검단 원당동·마전동유적-마전동』.

원전 8~13세기에 조성,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리 토평동유적의 경우 구순각목 문토기편이 확인되어 본 유적의 청동기 주거지와 동일한 시기의 유적일 가능성이 있다.

본 유적에서 확인된 추정 환호의 경우 구의 규모(폭, 깊이 등)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환호의 범주 내에 포함할 수 있으나, 확인된 환호들이 원형으로 조성되어 주거지역 내의 범위분할을 목적으로 하는것에 비해 '—'자형으로 길게 뻗은 형태인 것이 다르다. 다만 조사지역의 동.서측의 지형이 멸실되었고, 잔여하는 환호의 상면 또한 건축물과 분묘조성으로 인해 훼손된 것을 생각하면 환호의 원형을 유추하기는 쉽지 않다.

확인된 추정 환호의 내부 층위는 경사 상면인 북서쪽에서 기원하는 층적모재와 이후 상면 훼손에 의해 유입된 토양이 순차적으로 퇴적된 양상을 보이는데, 층위 하부에 기반 층인 암반풍화토와 고토양층의 구성요소인 황갈색, 연갈색의 사질토가 퇴적되어 있고, 층위 중단부에 유구 내부토인 암갈색 사질점토(목탄 소량 포함), 상면에 분묘 조성으로 유입된 것으로 예상되는 토양이 쌓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환호 전면으로 동일하게 확인되며, 북동부 말단의 청동기주거지 중북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 7】 청동기 1호 환호 전경(남동에서)



【사진 8】 청동기 1호 환호 전경(북서에서)



【사진 9】 청동기 1호 환호 전경(북동에서)



【사진 10】 청동기 1호 환호 전경(남서에서)



【사진 11】 청동기 1호 환호 층위(남서부 말단)



**【사진 12】 청동기 1호 환호 층위(남서부 말단)**



**【사진 13】 청동기 1호 환호 층위(유구 중앙부)**



**【사진 14】 청동기 1호 환호 층위(유구 중앙부2)**



**【사진 15】 청동기 1호 환호 층위(유구 중앙부3)**



【사진 16】 청동기 1호 환호 층위(북동부 말단, 청동기주거지 중복부위)

### Ⅲ. 조사결과

1. 청동기시대 유구는 환호 1기,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환호는 2지점 능선 중부에서 확인되었다. 내부에서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조성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규모, 폭, 등고선 방향, 퇴적양상을 고려할 때 청동기시대 또는 초기 철기시대의 환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환호의 위치는 산지에서 이어지는 급경사면이 고토양이 분포한 완만한 평사면과 만나는 부위에서 경사면을 둘러싸는 모양으로 확인된다. 추후 내부에서 출토된 목탄의 AMS연대 측정 결과 등을 참고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이며, 내부 바닥면에서 노지와 벽주공으로 보이는 수혈 등 5개의 내부시설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북장벽 인근에 위치하며 벽에 연접한 2개의 수혈은 벽주공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물은 구순각목 공열토기의 구연부와 기형을 알 수 없는 무문토기의 동체부편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모두 노지 상면의 퇴적토에서 확인되었다.

# 아산 상성리 유적 청동기시대 환호의 성격

## -아산 상성리 195-1번지 유적-

박한철<sup>47)</sup>

### 목차

- |                     |                     |
|---------------------|---------------------|
| I. 머리말              | III. 편년             |
| II. 아산 상성리 환호유적의 현황 | IV. 아산 상성리 환호유적의 성격 |
|                     | V. 맺음말              |

## I. 머리말

청동기시대 환호는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195-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단독주택부지 조성에 따른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지난 (재)충청문화재연구원이 2005년과 2006년에 걸쳐서 지방도 628호선(인주~영인) 확·포장공사 구간을 발굴조사하였으며, 환호 북쪽부분 일부가 확인된 바 있다.<sup>48)</sup> 환호가 확인되는 지역은 문화유적분포지도에서 명기된 무문토기 유물산포지로 알려졌던 곳이기도 하다. 환호는 영인산(해발 365.5m)에서 북동쪽으로 뺀어 내려오는 해발 약 39m 정도의 정상부를 포함한 나지막한 구릉 사면부에 해당한다.

아산시(牙山市)는 충청남도의 북부지역이면서 서쪽으로 아산만과 삽교호를 경계로 당진시와 접해 있다. 지형은 차령산맥이 북서부 해안가로 갈수록 저산지 및 구릉이 발달되었고, 전체적으로 오랜 침식으로 인한 잔구성의 노년기 지형을 이루고 있다. 곡교천 유역과 아산만에 면한 일부 지역에는 충적층 지대가 형성되어 경작지 및 주거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조사지역 인근은 나지막한 구릉 및 넓은 충적지, 그리고 큰 하천과 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선사시대부터 생활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산시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대부분 곡교천을 중심으로 지석묘, 취락들이 발굴조사되어 확인되었고, 무문토기 산포지도 전반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아산지역 전반에 걸쳐 대규모 취락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곡교천 일대에는 점토대토기문화 단계의 유적과 특히 탕정면 일대에 용두리 진터 유적<sup>49)</sup>과 밖지르레 유적<sup>50)</sup>에서 선사시대부터 대규모 원삼국시대 분묘군이 조사되었다. 아산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원삼국시대 더 나아가 마한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였던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산지역에는 청동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까지의 고분과 취락유적은 곡교천을 일대로 전반적으로 확인되었지만, 환호유적은 상성리에서 처음으로 그 현황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발굴조사 당시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건물지와 분묘등이 확인되었으나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대표 유구인 아산 상성리 환호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리고 환호의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출토유물과 탄소연대측정을 통해 검토한 후 중서부지역의 청동기~원삼국시대의 환호와 비교하여 그 성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47) (재)국원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연구3부장

48) (재)충청문화재연구원, 2008, 『지방도 628호선(인주~영인) 확·포장공사 구간내 아산 상성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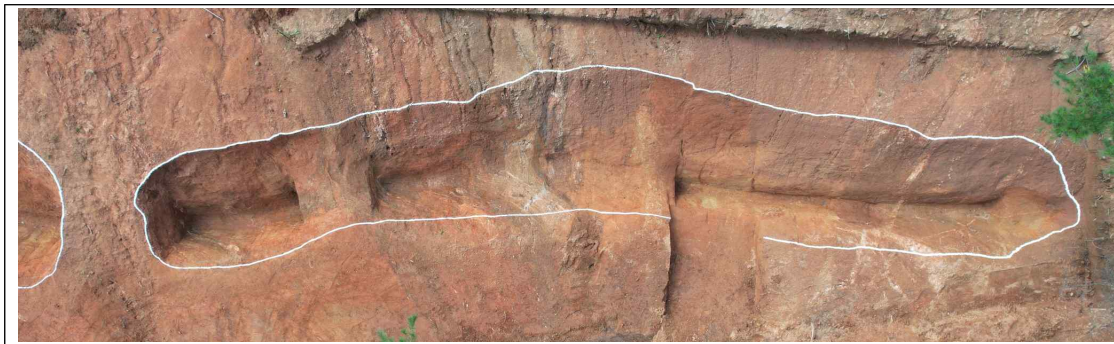
49) 충청문화재연구원, 2011,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

50) 충청남도 역사문화재연구원, 2011, 『아산 명암리 밖지르레유적』.



청동기 시대 환호는 조사지역 경계 북쪽부터 시작하여 동쪽, 서쪽에 전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입지는 해발 약 39m정도의 구릉 정상부에서 해발 32~35m의 등고선을 따라 축조되었다. 환호의 단절된 부분을 기준으로 총 6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북쪽에 2006년도에 확인된 환호와 연결하여 확인된다. 환호의 구분되는 구간에 대해 살펴보면 1~4구간은 등고선과 나란하게 조성되었으며, 5~6구간은 등고선과 직교하게 조성되었다. 단절된 곳은 지형이 평탄하고 환호 끝부분 바닥에서 숯과 혼재된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어 출입시설로 추정함과 동시에 의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오랫동안 경작활동으로 인해 유실이 많이 이루어져 현재 남아 있는 추정 출입시설은 총 3군데 정도 확인된다. 환호 유구가 많이 유실되어 전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으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으로 추정되고 조사지역 내에 잔존하고 있는 환호의 길이는 약 145m정도이다. 다만 조사지역 경계 바깥인 서쪽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길이는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북쪽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발굴조사 당시 명명한 환호 1~6구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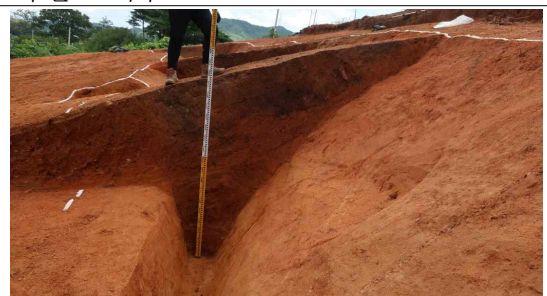
### 1. 환호 1구간



[사진 3] 환호 1구간 조사후



[사진 4] 환호 1구간 토층단면①



[사진 5] 환호 1구간 토층단면②



[사진 6] 환호 1구간 유물노출②



[사진 7] 환호 1구간 유물노출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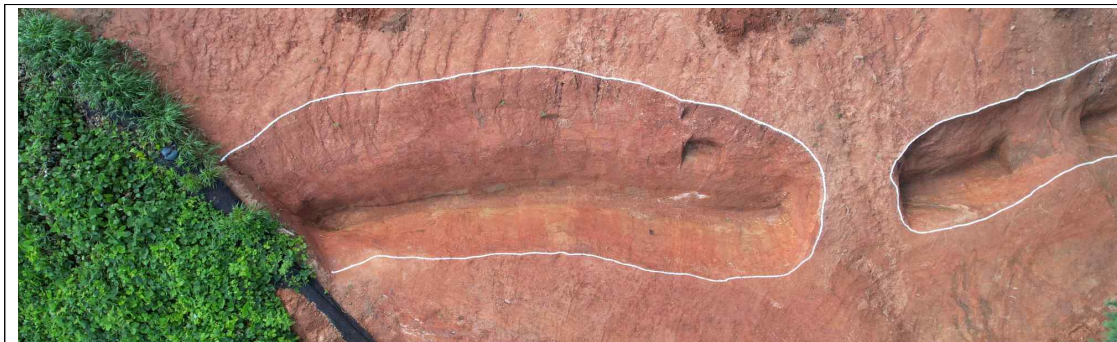
환호 1구간은 1지점 북서쪽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의 상단부에 해당한다. 해발은 약 32m정도이다. 표토는 풍화암반을 굴착하여 암갈색 사질점토로 노출되었다.

1구간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조성되었다. 장축방향은 N-70°-W이다. 토층 양상을 살펴보면 암갈색사질점토-적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적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 포함)-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포함)-황갈색사질토- 적갈색 점질토(유물포함층) 순으로 퇴적되었다. 토층으로 보아 한번에 폐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바닥은 배수와 관련하여 물이 흘렀던 흔적이 확인된다.

규모는 잔존길이 19.5m, 최대너비 4.0m, 최대깊이 2m 정도이며, 단면은 'V'자형을 이루고 있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1구간 동쪽 끝부분에 집중적으로 확인되며 무문토기편, 두형토기편 등 숫과 혼재되어 환호 바닥에서 수습되었다.

## 2. 환호 2구간



[사진 7] 환호 2구간 조사후



[사진 8] 환호 2구간 토층단면①



[사진 9] 환호 2구간 토층단면②



[사진 10] 환호 2구간 유물노출①



[사진 11] 환호 2구간 유물노출②

환호 2구간은 1지점 북쪽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의 상단부에 해당한다. 해발은 약 32m정도이다. 표토는 풍화암반을 굴착하여 암갈색 사질점토로 확인되었다.

2구간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조성되었으며, 장축방향은 N-90°-W이다. 토층 양상을 살펴보면

암갈색사질점토-적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적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 포함)-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포함)-황갈색사질토-적갈색 점질토(유물포함층) 순 순으로 퇴적되었다. 토층으로 보아 한번에 폐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바닥은 배수와 관련하여 물이 흘렀던 흔적이 확인된다.

규모는 잔존길이 15.5m, 최대너비 4.7m, 최대깊이 2m 정도이며, 단면은 'V'자형을 이루고 있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2구간 서쪽 끝부분에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무문토기편, 두형토기편 등 숫과 혼재되어 바닥에서 수습되었다.

### 3. 환호 3구간



[사진 12] 환호 3구간 조사후



[사진 13] 환호 3구간 토층단면①



[사진 14] 환호 3구간 토층단면②



[사진 15] 환호 3구간 유물노출①



[사진 16] 환호 3구간 유물노출②

환호 3구간은 1지점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사면부에 해당한다. 해발은 약 34m 정도이다. 표토 제거후 암갈색 사질점토가 충전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3구간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조성되었으며, 장축방향은 N-30°-W이다. 토층 양상을 살펴보면 암갈색사질점토-황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 포함)-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 포함)-갈색사질토(유물포함층) 순으로 퇴적되었다. 토층으로 보아 한번에 폐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바닥은 배수와 관련하여 물이 흘렀던 흔적이 확인된다.

규모는 잔존길이 17m, 최대너비 2m, 최대깊이 1.0m이며, 단면은 'V'자형을 이루고 있다. 내부시

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무문토기편, 석촉편 등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 4. 환호 4구간



[사진 17] 환호 4구간 조사후



[사진 18] 환호 4구간 토층단면①



[사진 19] 환호 4구간 토층단면②



[사진 20] 환호 4구간 유물노출①



[사진 21] 환호 4구간 유물노출②

환호 4구간은 1지점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사면부에 해당한다. 해발은 약 33m 정도이다. 표토 제거후 암갈색 사질점토가 충진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4구간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조성되었으며, 장축방향은 N-30°-W이다. 토층 양상을 살펴보면 암갈색사질점토-황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 포함)-갈색사질점토-황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 포함)-갈색점질토 순으로 퇴적되었다. 토층으로 보아 한번에 폐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바닥은 배수와 관련하여 물이 흘렀던 흔적이 확인된다.

규모는 잔존길이 36.5m, 최대너비 1.5m, 최대깊이 1m 정도 단면은 'V'자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환호 벽면과 바닥면은 전체적으로 얇게 점토층 흔적이 확인된다.

유물은 4구간 북쪽 끝부분에 무문토기편, 두형토기편 등 석재와 혼재되어 바닥면에서 수습되었다.

#### 5. 환호 5구간



[사진 22] 환호 5구간 조사후



[사진 23] 환호 5구간 토층단면①



[사진 24] 환호 5구간 토층단면②



[사진 25] 환호 5구간 유물노출①



[사진 26] 환호 5구간 유물노출②

환호 5구간은 1지점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사면부에 해당한다. 해발은 약 34m 정도이다. 표토 제거후 황갈색 사질점토가 충전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5구간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게 조성되었으며, 장축방향은 N-50°-W이다. 토층 양상을 살펴보면 황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 포함)-갈색점질토 순으로 퇴적되었다. 토층으로 보아 한번에 폐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바닥은 배수와 관련하여 물이 흘렀던 흔적이 확인된다.

규모는 잔존길이 22m, 최대너비 1.3m, 최대깊이 0.6m이며, 단면은 'V'자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환호 벽면과 바닥면은 전체적으로 얇게 점토층 흔적이 확인된다.

유물은 5구간 남쪽 끝부분에 무문토기편, 두형토기편 등이 바닥면에서 수습되었다.

## 6. 환호 6구간

환호 6구간은 1지점 남서쪽에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사면부에 해당



[사진 27] 환호 6구간 조사후



[사진 28] 환호 6구간 토층단면



[사진 29] 환호 6구간 유물노출

한다. 해발은 약 36m 정도이다. 표토 제거후 암갈색 사질점토가 충전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6구간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조성되었으며, 장축방향은 N-85°-W이다. 구상유구의 토층 양상을 살펴보면 암갈색사질점토-황갈색사질점토-적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 포함) 순으로 퇴적되었다. 토층으로 보아 한번에 폐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규모는 잔존길이 16.5m, 최대너비 1.6m, 최대깊이 0.5m이며, 단면은 'V'자형 이루고 있다. 단면의 경우 자연배수로 인하여 'V'자형에서 바닥이 마모되어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6구간 동쪽 끝부분에 무문토기편 등이 바닥면에서 수습되었다.

## 7. 내부시설

내부시설로는 환호의 단절된 부분을 출입시설로 추정하고 있는데 경작활동으로 인해 유실이 많이 이루어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다만 조사단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추정 출입시설을 총 3군데로 보고 있다. 단절된 부분 중에서 지형이 평탄하고 단절되어 있는 구간의 폭은 약 4m정도 확인된다. 또한 단절된 환호 끝부분 바닥에서 숯과 혼재된 청동기 시대 후기 유물등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여기서 출입시설로 추정함과 동시에 의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출입시설이 대부분 경작지 조성으로 생긴 삭평으로 생긴 단절로 파악되나, 전체적인 지형과 위치, 출토유물이 확인되는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출입시설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1] 2006년과 2022년 상성리 환호의 현황(단위 m)

구분	잔존길이	단면	최대너비	최대깊이	내부시설	출토유물
1구간	19.5	V	4.0	2	추정	두형토기,

4구간	36.5	V	1.5	1	추정 출입시설	두형토기, 무문토기,
5구간	22.0	V	1.3	0.6	추정 출입시설	두형토기, 무문토기,
6구간	16.5	V	1.6	0.5	추정 출입시설	무문토기

### Ⅲ. 유적의 편년

아산 상성리유적 환호에서 토도류 116점, 석기류 2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환호의 바닥에서 불규칙하게 산재되어 확인되었다. 유물 집중도 높은 곳은 4구간 환호이며, 그 중 동쪽 끝 부분에서 두형토기 편이 10점 이상이 출토되었다.

토기류 다수는 무문토기류로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대부분 전체 기형을 알 수 없는 동체부편이나 저부편이 수습되어 기종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저부를 비교하면 평저형의 낮은 굽이 있는 저부편과 높은 굽의 대각편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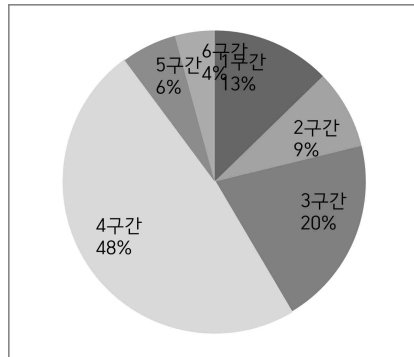
[표 2] 아산 상성리 유적 환호 토기 출토 현황

	구연부		저부		파수편	동체부편	기타	합계
	점토대 구연부편	무문 구연부편	평저 저부편	대각편				
1구간	1	0	7	0	1	6		15
2구간	1	0	0	4	1	4		10
3구간	4	1	15	1	0	2	석축	24
4구간	2	0	29	15	5	6		57
5구간	0	0	2	2	1	0	토제품, 석제방추차	7
6구간	0	0	1	1	1	2		5
합계	8	1	54	23	9	20	3	118

평저형의 저부는 다양한 형태로 출토되었으며, 굽의 두께나 손질 기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저부에 일부 잔존한 동체 기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무문토기 발이외에도 호나 옹류의 기형이 일부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저부에서 동체부로 올라가는 각도가 크게 형성되어 동체부가 다소 넓을 것으로 추정되며, 최대 동체경과 저부와 직경 차이가 작은 발형토기보다 호나 옹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저부에서 사선으로 직립하는 동체

부의 기형과 관련하여 주변 유적 출토품과 비교한 결과 완형토기나 개로 확인하였다. 구연부는 소수만 확인되었고 대부분이 원형점토대로 나타났다. 점토대가 없는 부는 1점 출토되었고 두께는 일정하고 1cm 이하의 얇은 것으로 확인되어, 원형점토대토기와 비슷한 시기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태토가 매우 가는 흑색의 저부편은 마연된 것이 관찰되어 흑색마연토기로 확인하였으며, 굽의 형태와 잔존한 동체부 형태를 주변 유적과 비교하였을 때, 흑도호일 가능성도 있다. 유적에서 출토된 특징적인 기형으로 [표 3] 구간 별 유물 출토 비율은 대각편과 파수편이 있다. 이러한 기형은 대체로 특수한 기종을 중심으로 제작된다. 먼저 유적에서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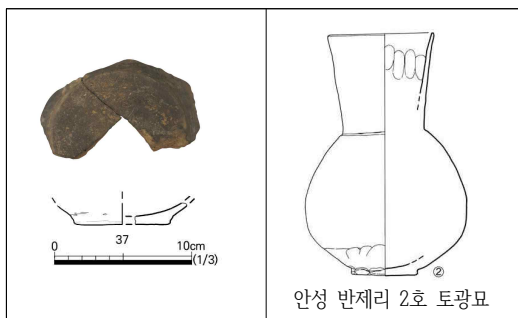
구연 두께 토기 상태 일부 장경

구분	발형토기	옹형토기	완형 토기
상성리 출토 유물			
주변 유적 출토 유물 51)	 화성 동학산 환호	 안성 반제리 21호 주거지	 화성 동학산 환호

[도면 4] 토기 저부형태 비교

토된 대각편은 23점으로 저부 기형 77점 중 30% 가량 해당된다.

이렇게 동체부에 대각이 부착되는 선사시대 토기는 '굽다리토기'로 지칭하며 선사시대 전반부터 원삼국시대 전기까지 출토되는 기종으로 보고 있다. 그 중 점토대토기와 공반되는 기종은 '두형토기'<sup>52)</sup> 명칭으로 사용하므로, 원형점토대와 공반된 본 유적에서는 '두형토기'로 지칭하겠다. 두형토기의 명칭은 기존 연구<sup>53)</sup>(심수연, 2011)를 참고하였다. 두형토기는 크게 배신과 대각으로 구분되며, 배신의 기형으로 확인되는 토기는 확인되지 않았고, 대각만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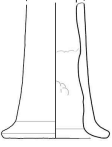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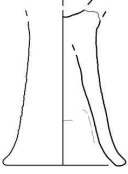

[도면 5] 흑색마연토기 기형비교

51)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華城 東鶴山遺蹟』.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安城 盤諸里遺蹟』.

52) 강병학, 2005, 「한반도 선사시대 굽다리토기 연구」, 『고문화』 66, p.6.

53) 심수연, 2011, 「嶺南地域出土豆形土器의 性格」, 『한국고고학보』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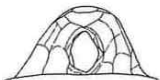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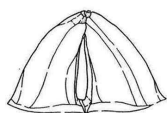



상성리 출토유물			주변유적
			 화성 동학산유적 환호

[도면 6] 두형토기 형식 분류 및 주변유적 비교

두형토기의 형식분류의 주요 속성은 세부적으로 대각 길이(장-단), 배신의 형태(호형, 발형, 접시형), 대각의 형태(원주형-나팔형), 저부 바닥의 형태(공심형-실심형)로 구분되었으며, 6형식으로 형식분류<sup>54)</sup>하였다.(강병학, 2005)

각상단에서 대각단까지 전체적으로 기형을 확인 가능한 출토품은 1점이 확인되었고, 대부분 각동부에 해당하는 대각편이 주로 출토되었다. 유적 출토품을 검토해 보았을 때, 대각의 길이는 장각, 저부 바닥의 형태는 공심형으로 제작되었다. 대각의 형태는 일부 원주형도 확인되나, 전반적으로 나팔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강병학 안의 6형식인 마지막에 해당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실심형의 형태(4단계)까지 고려한 형식분류안<sup>55)</sup>(박진일, 2006)을 참고하여 4단계 중 2·3단계에 포함되는 안을 따르면, 기원전 5~3세기 출토품으로 볼 수 있다.

두형토기 외에도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 개체로는 파수가 확인된다. 파수는 호형의 토기에 부착된다. 대체로 파수부호의 시간성은 파수의 형태를 중심으로 검토<sup>57)</sup>한다.(박진일, 2006; 진영민 2016; 서길덕, 2018). 파수편은 9점이 출토되었으며 환상형, 조합식우각형의 형태가 나타났다. 파수의 속성분류는 연구안<sup>58)</sup>(서길덕, 2018)에 따르면 파수는 직상방에서 보는 평면형태, 부착위치, 측면형태를 고려하여 형식분류를 시도하였다. 평면형태는 반원형(환상형)에서 삼각형(조합식우각형)으로, 투공형태도 원형에서 타원형 그리고 삼각형으로 변화한다. 유적에서 확인되지 않은 평면 삼각형과 투공 삼각형의 파수 형태는 삼각형점토

대토기 단계에 출토되며, 유적의 하한 시점을 알려준다. 유적에서 출토된 파수를 통해 확인한 편년은 대체로 기원전 4~3세기로 추정할 수 있다. 유적 출토 점토대토기는 저부나 동체부 등 형식분류 할 속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원형점	구분	반원형(환상형), 원형	삼각형(조합식우각형), 타원형
	서길덕 편년안		
주변 유적 <sup>56)</sup>		 화성 동학산 유적 환호	 화성 정문리유적 환호  화성 도이리유적 환호

54) 강병학, 2005, 위 논문.

55) 박진일, 2006, 「서울·경기지방 점토대토기문화 試論」, 『고고학』5-1.

5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08, 『화성 향남택지개발지구내 방축리·행정리·도이리유적』, 화성 도이리유적 환호  
 기전문화재단연구원, 2007, 『華城 東鶴山遺蹟』.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7, 『화성 정문리 환호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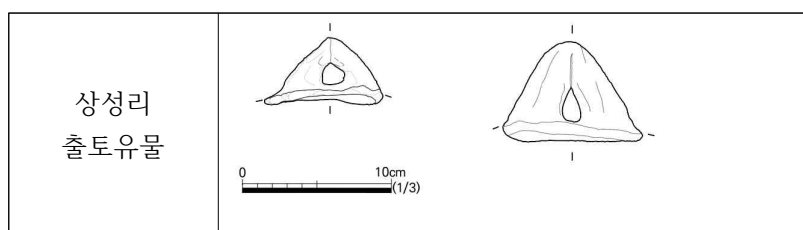
57) 박진일, 2006, 위 논문

서길덕, 2018, 『한국 점토띠토기문화기 무덤연구』, 세종대 박사학위논문.

진영민, 2016,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개시연대 재고」, 『한국청동기학보』18.

58) 서길덕, 2018, 위 논문.

토대로만 시간성을 추출한다면, 크게 존속시점은 상한인 기원전 5~6세기 무렵부터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등장하기 이전인 기원전 3세기 가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두형토기와 파수의 연구사를 검토한 결과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의 가장 이른시기의 토기의 기형은 확인되지 않았고, 그 다음 단계인 기형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므로 기원전 4~3세기로 추정된다.



본 유적과 유사한 토기 기형이 확인되는 아산만 인근의 환호 유적인 화성 정문리유적, 화성 동학산유적 등이 있으며, 이 유적들의 시기는 대체로 기원전 5~4세기, 4~2세기로 추정하였다.

이상으로 유적의 환호 내에서 출토된 토기를 검토하였다. 점토대토기의 구연부의 단면형태가 원형, 두형토기의 대각형태가 공심형, 파수의 반원형의 평면형태인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 연구사 및 주변의 환호 유적 비교 결과에 따라 청동기시대 후기로 추정된다. 또한 환호 내부 토기출토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목탄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시료의 방사선탄소 연대측정 결과는 기원전 6~4세기 사이에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이 측정 값은 유물의 편년연구와 부합하며 이를 바탕으로 아산 상성리유적의 환호의 중심연대는 기원전 4~3세기로 판단된다.

[표 3] 2022년 상성리 환호에 대한 목탄시료 AMS 연대측정값.

구분	출토위치	방사성 탄소연대(yrs BP)	보정연대
1	1지점 환호 1구간①	2460±30	BC 760~410(95.4%)
2	1지점 환호 1구간②	2470±30	BC 770~460(93.4%)
3	1지점 환호 2구간①	2450±30	BC 760~410(95.4%)
4	1지점 환호 2구간②	2430±30	BC 760~410(95.4%)
5	1지점 환호 3구간①	2440±30	BC 600~400(62.3%)
6	1지점 환호 3구간②	2420±30	BC 570~400(75.6%)
7	1지점 환호 4구간	2420±30	BC 570~400(75.6%)
8	1지점 환호 5구간	2400±30	BC 550~390(86.4%)

## IV. 성격

### 1. 입지 및 현황

환호는 사전적 의미로 “맹수로부터 마을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둥글게 판 도랑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단면상의 모습이 V자형, U자형으로 나타난다.”<sup>59)</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환호유적은 방어·경계·의례·배수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알려져 있다. 즉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취락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산 상성리 195-1번지 유적은 남쪽에 위치한 영인산(해발 365.5m)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낮은 구릉 사면부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 영인저수지가 위치하고 그 주변으로 총적대지에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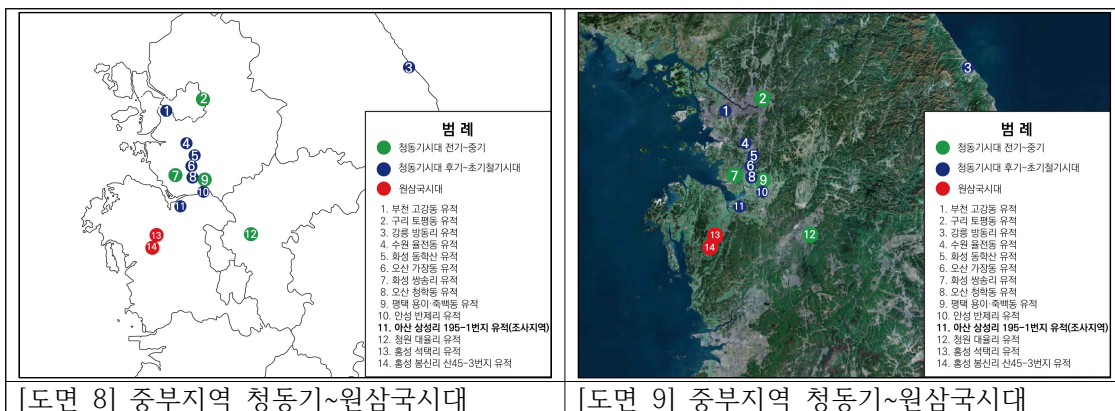
59) 國立文化財研究所, 2011, 『韓國考古學專門事典-城郭烽燧篇-』.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다. 주변 저지대와 고도차가 약 20m 내외로 비교적 낮고 완만한 지형이다. 고도는 높은 편은 아니지만 사방을 조망하기에 좋은 편이다. 이러한 조망권을 가지고 있어 생활유적이거나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환호의 입지와 형태에 관련한 기존 연구성과를 보면 연구자 간에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기준은 해발고도와 환호열 개수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이다. 배덕환<sup>60)</sup>은 환호의 입지의 경우 구릉과 평지로 구분되며 환호열의 개수는 단독과 다중으로 확인된다고 파악하였다. 이상엽<sup>61)</sup>은 환호의 입지는 산정상형과 구릉형으로 구분하였고 형태는 테뫼형과 포곡형으로 확인된다고 파악하였다. 위 연구자 간의 견해차는 있으나 공통적인 점은 낮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고 단독환호와 다중환호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중부지역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환호를 살펴보면 평지와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구릉 정상부를 둘러싼 사면부에 위치한 환호가 대부분이다. 본 유적에서 환호 역시 구릉 정상부를 둘러싼 형태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중부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원삼국시대 환호유적은 부천 고강동 유적<sup>62)</sup>, 구리 토평동 유적<sup>63)</sup>, 강릉 방동리 유적<sup>64)</sup>, 수원 울전동 유적<sup>65)</sup>, 화성 동학산 유적<sup>66)</sup>, 오산 가장동 유적<sup>67)</sup>, 화성 쌍송리 유적<sup>68)</sup>, 오산 청학동 유적<sup>69)</sup>, 평택 용이·죽백동 유적<sup>70)</sup>, 안성 반제리 유적<sup>71)</sup>, 청원 대울리 유적<sup>72)</sup>, 홍성 석택리 유적<sup>73)</sup> 등이 있다. 이들 유적은 대부분 중심시기가 청동기시대 후기~초기철기시대(점토대 토기 단계)로 편년되고 있으며, 구리 토평동 유적·화성 쌍송리 유적·평택 용이·죽백동 유적·청원 대울리 유적은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청동기시대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중부지역에서 확인되는 환호유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0) 배덕환, 2001, 「嶺南地方青銅器時代環濠聚落研究」, 東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61) 이상엽, 2006, 「중부지역 환호유적에 대한 일검토-안성 반제리유적을 중심으로-」 『고고학 5-1호』, 서울경고고학회.  
 62) 한양대학교박물관, 2000, 『부천 고강동 선사유적 제4차 발굴조사보고서』.  
 63)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7, 『구리 토평동 유적』.  
 64)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강릉 방동리 유적』.  
 65) 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수원 울전동 유적』.  
 66)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화성 동학산 유적』.  
 67) 경기문화재연구원, 2008, 『오산 가장동 유적』.  
 68) 기호문화재연구원, 2012, 『화성 쌍송리 유적』.  
 69) 거래문화유산연구원, 2013, 『오산 청학동 유적』.  
 70)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9, 『평택 용이·죽백동 유적』.  
 71)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안성 반제리 유적』.  
 72)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청원 대울리·마산리·풍정리 유적』.  
 73)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5, 『홍성 석택리 유적』.

환호유적 현황도 1	환호유적 현황도 2
------------	------------

[표 4] 중부지역 청동기~원삼국시대 환호유적 현황표

구분	입지	평면형태	단면 형태	규모 (길이x너비/깊이)	시기	부대시설 및 관련시설	성격
부천 고강동 유적	해발 92m 능선 정상부	원형/1열	방형	적석:지름6m 환구:30m x 63m x 4m/1m	청동기 시대 후기 ~초기 철기시대	출입 시설, 적석유구	구획 의례
구리 토형동 유적	해발 15.5m 평지	원형/1열	U	107m x 2.8m/0.8m	청동기 시대 전기	출입 시설	-
강릉 방동리 유적	해발 약 99m 구릉 정상부	원형/2열	U	49m x 2.2m /0.95m	청동기 시대 후기 ~초기철기 시대	수혈	방어 구획
수원 울전동 유적	해발 101~104m 구릉 정상부	-/1열	U	101.6m x 2m /1.07m	청동기 시대 후기 ~초기철기 시대	수혈	구획 의례
화성 동학산 유적	해발 122.2m 동학산 정상부	?/4열	U	165m x 4m/1.14m	청동기 시대 후기 ~초기 철기시대	수혈	구획 의례
오산 가장동 유적	해발 약 75m 구릉 정상부	?/1열	U	구1:25.5m x 0.98m x 0.44m 구2:22m x 1.64m x 0.5m	청동기 시대 후기 ~초기 철기시대	없음	구획 의례
화성 쌍송리 유적	해발 약 70m 구릉 정상부	원형	U	90m x 4m /0.8m	청동기 시대 전기	주거지, 수혈	구획 의례
오산 청학동 유적	해발 약 35m 구릉 사면부	타원형?/1열	U	? x 1.4~3.5m /1.35m	청동기 시대 후기 ~초기 철기시대	없음	구획
평택 용이·죽백동 유적	해발 53~54m 구릉 정상부	원형/1열	U	230m x 1.5~3m x 2m	청동기 시대 전기	수혈, 노지, 주혈, 출입구	의례
안성 반제리 유적	해발 94~95m 구릉 상단부	원형 /1열	U	71m x 3m /?m	청동기 시대 후기 ~초기 철기시대	주거지, 목책, 제단시설?	구획 의례
청원 대울리 유적	해발 63~68m 구릉 상단부	?/3열	U	내호:16.5m x 1.8m x 1.3m 중호: ? x 3m x 1.4m 외호:27m x 1.2m x 0.7m	청동기 시대 전기	주거지, 수혈	구획
홍성 석택리 유적	해발 52~54m 구릉 정상부	장타원형 /2열	U,Y	400m x 4m/?	원삼국 시대	주거지, 목책	방어

홍성 봉신리 산45-3 번지 유적	해발 42~45m 구릉 정상부	타원형 /2열	U	300 x 4.3m /0.4m	원삼국 시대	수혈	-
아산 상성리 (195-1번 지) 유적	해발 32m 구릉 상단부	장타원형 /1열	V	145m x 1.5~4.5m /0.8~2m	청동기 시대 후기 ~초기 철기시대	출입 시설	구획 의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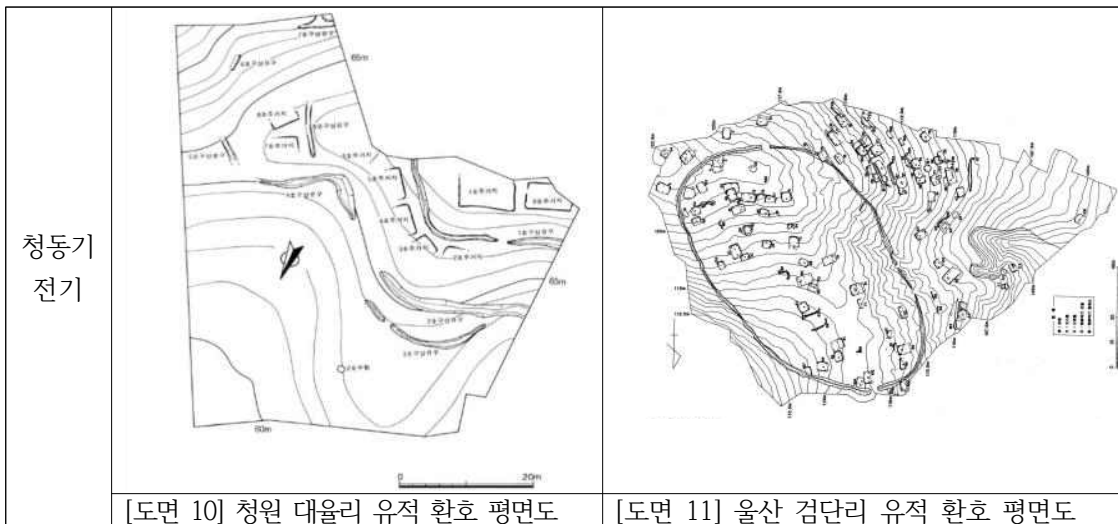
입지와 현황을 파악한 결과 환호의 입지가 서해안과 강, 하천 주변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낮은 구릉에 위치하는 점이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용수의 확보와 수렵 등 생활의 용이함 때문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조사지역 주변으로 동일한 시기의 유적은 부천 고강동 유적, 수원 울전동 유적, 화성 동학산 유적, 안성 반제리 유적 등이 확인되는데 지역적으로 인접하여 동일 집단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뒤에서 언급하는 평면형태와 내부시설 등을 통해 본 유적에서 확인된 환호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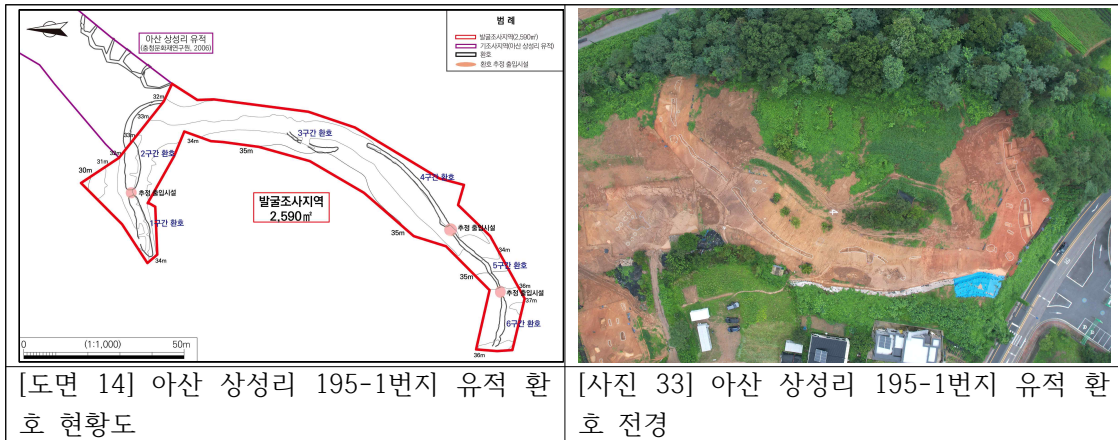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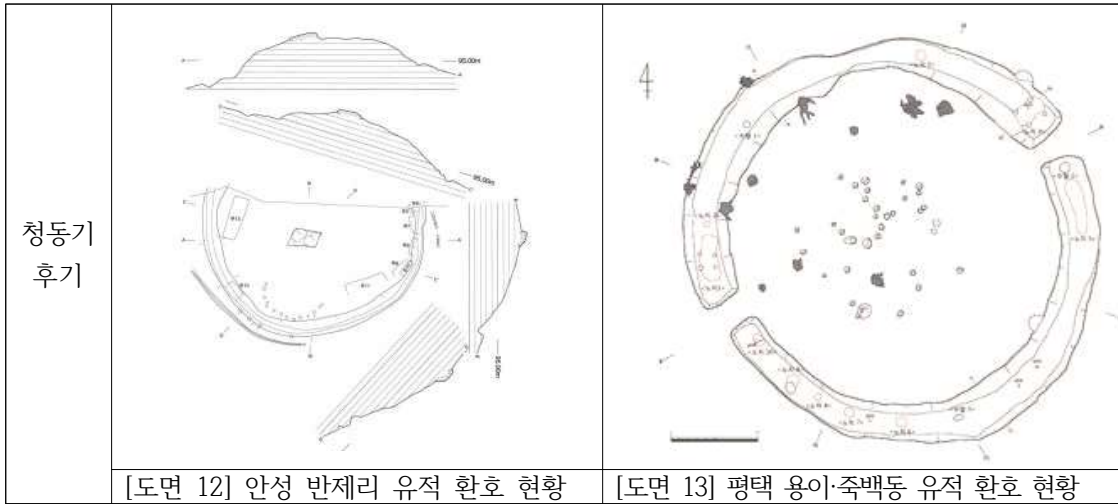
## 2. 평면형태 및 내부시설

중부지역에서 확인되는 환호의 형태는 1열의 단독환호와 2열 이상의 다중환호로 구분되며 평면형태는 원형과 장타원형에 가깝게 확인된다. 환호의 입지는 낮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체로 조망권을 확보하기 용이한 곳에 조성되어 있다. 다만 기능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청동기 전기와 후기의 환호를 비교해 보면, 후기의 경우 하천 주변의 충적지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어업과 농업을 동시에 가능하며, 이로 인해 이전 시기보다 잉여생산물의 확충과 함께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취락 구성원의 증가와 더불어 주거지가 증가됨으로써 이를 둘러싼 환호의 규모가 대형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어 방어적인 요소와 더불어 배수 기능의 강화되면서 환호의 다중화도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후기의 경우에는 전기의 환호와 유사한 입지조건과 작은 규모의 환호유적이 의례적인 기능을

[표 5] 청동기 전·후기 환호 유적 비교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유적에서 확인되는 환호는 오랫동안 경작활동으로 인해 훼손되어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으나 후기의 환호의 성격과 유사하다. 한편 환호 내부 토기 출토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목탄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시료의 방사선탄소 연대측정 결과는 기원전 6~4세기 경으로 집중되었다. 이 측정값은

위에서 살펴본 환호 출토 토기의 기존 편년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산 상성리유적의 환호의 중심연대는 기원전 4~3세기로 판단된다. 환호의 성격은 구릉 정상부를 둘러싸고 있고, 출입시설의 양측단에 두형토기 등을 집중적으로 폐기하였던 것으로 보아 기원전 5~3세기 경 일종의 의례행위가 이루어진 공간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정황을 정리하면 본 유적에서 확인되는 1열의 단독환호는 구획과 의례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며, 배수의 역할도 겸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출입시설과 연결되는 환호에서는 숯과 함께 두형토기 저부편 등이 동반 출토되었다. 환호 내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 두형토기는 길고 가는 굽다리기를 가진 것이 특징이기에 실용성보다는 제사와 같은 특수한 용도로 쓰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아산 상성리 환호는 기원전 5~3세기 경 구릉 정상부에서 일종의 의례행위의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 V. 맺음말

본 유적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환호는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195-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단독주택부지 조성에 따른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지난 (재)충청문화재연구원이 2005년과 2006년에 걸쳐서 지방도 628호선(인주~영인) 확·포장공사 구간을 발굴조사하였으며, 환호 북쪽부분 일부가 확인된 바 있다. 환호가 확인되는 지역은 문화유적분포지도에서 명기된 무문토기 유물산포지로 알려졌던 곳이기도 하다. 환호는 영인산(해발 365.5m)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해발 약 39m 정도의 정상부를 포함한 나지막한 구릉 사면부에 해당한다.

청동기시대 후기 환호는 정상부의 8부 능선을 따라 1열로 이어진다. 2006년에 조사지역 북쪽 도로개설과정에서 충청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한 환호와 북쪽에서 연결된다. 환호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에 해당된다. 잔존길이는 약 145m 정도이지만, 조사경계 서쪽으로 더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환호의 출입시설은 환호가 단절된 부분으로 총 3곳이다. 출입시설과 접하는 양측면의 환호 끝부분 바닥에서 숯과 혼재된 청동기 시대 후기 유물(무문토기, 점토대토기, 두형토기)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유물이 일정한 공간에 두형토기 등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양상으로 보아 의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유적과 토기 기형이 유사하게 확인되는 아산만 인근의 환호유적과 비교해 본 결과 청동기시대 후기로 추정된다. 한편 환호 내부 토기 출토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목탄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시료의 방사선탄소 연대측정 결과는 기원전 5~3세기 사이로 확인되었다. 이 측정값은 유물의 기존 편년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기에 아산 상성리 유적 환호의 중심연대는 기원전 4~3세기로 판단된다.